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031-257-1841

제191호 2021년 02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코로나로 고향 못가는 다문화가족, 용기 갖고 희망의 봄 기다리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월 8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를 방문해 센터 이용자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돌아보는 일정 중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역현황과 다문화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관련기사 4면> 송하성기자

경기도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국정책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면서 불법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된다.

법무부는 한국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 무사증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전체 불

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한 데 따라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면서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거나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늘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상 국가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 등이다.

법무부는 내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도 개선된다. 이제 출입국사범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전까지는 범칙금 납부가 현금만 가능해 외국인주민이 갑자기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이 컸으

나 이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됐다.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이 외국인주민에 환영받는 이유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미등록 외국인주민이 갑자기 법무부에 단속되면 고국으로 돌아갈 짐을 챙기거나 준비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보호시설로 이송돼 대기하다가 강제출국됐다.

앞으로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 전월세 등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출국할 때까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만약 법무부가 정한 기간까

지 출국하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하고 기한을 정해 석방할 수 있다. 만약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뒤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금까지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을 보호소에 구금했던 관행을 없애고 외국인주민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어 27면, 베트남어 35면, 러시아어 33면, 일본어 17면, 태국어 45면>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26, 27, 32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23, 24, 35, 45 일본어(Japanese) 日本語 17, 19, 35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1, 14, 21, 25, 31, 45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3, 18, 26, 29, 33, 39, 47 타갈로그어(Tagalog) 6 네팔(Nepal) नेपाली 46 영어 English 11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3, 17, 20, 23, 29, 30, 41, 45 금융 Finance 14, 31 도서관 Library 34 육아 Infant Care 8, 21, 32, 47 복지 Welfare 3, 5, 11, 12, 27, 33, 34 교육 Education 6, 9 기고 Column 27 문화 Culture 13 주거 Residence 11, 19, 21, 23, 24, 26, 32, 35, 37, 38, 39, 44 인권 Human Rights 25, 48 코로나 Covid19 8 요리 Cook 19 비자체류 Visa 1, 17, 27, 33, 35, 45 보건 Health 15, 24 한국어 Korean 15 환경 Environment 18 범죄예방 46

"다문화가족 등 경기도민의 아이디어가 '경기도 정책'이 됩니다!"

경기도,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 온라인 접수 ... 총 상금 1,410만원에 도전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는 경기도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 연 3회 개최되고 있다.

운영미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

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생활적폐 청산'과 'DMZ 홍보·마케팅'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없앨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관행적 변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 가능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도의 소리(vog.gg.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국민제안→공모제안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심사점수에 따라 1등 최대 500만 원 2등 최대 35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031-8008-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들도 평소 한국생활 중에 느꼈던 점에 대해 개선점을 경기도에 제안해 보면 어떨까? 송하성 기자

육아 지원 배제되는 청소년부모가정 지원해야!

이진연 경기도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관계자 정담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의원은 9일(화), 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청소년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여성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건강증진과 등 총 6개의 집행부서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전문위원실 등이 참석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원가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아동수당, 주거, 어린이집 지원 등 모

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라며 "태어난 아이를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외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지난 2020년 12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청소년부모를 정의할 때는 '청소년'이 왜 아이를 키우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에 하루하루 답답해 하며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으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희망을 품어보고자 한다"라며 "또한 경기도가 청소년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와 타 시도 역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정책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끄는 구성원'으로의 역할까지 각각도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의 각 부서가 모두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시군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진연 의원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 우울? 다양한 가족도 카톡 상담으로 마음 방역해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 '모바일 채팅 로봇, 채팅상담 서비스'를 2월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족상담전화의 챗봇 서비스는 상담 빈도가 높은 임신·출산 갈등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다가족서비스 상담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팅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원과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챗봇과 채팅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를 친구로 추가한 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족상담전화에서는 전문상담원을 통해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로 연계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갈등, 양육비, 한부모, 가족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는 가족상담전화의 상담건수는 2019년 53,649건에서 2020년 70,640건으로 31.7% 증가했다. 가족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챗봇, 채팅 상담 서비스는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했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 등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시작

고양시, 학생응원 프로젝트 2탄 '위기청소년 지원' 첫 모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8일 고양형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1년 학생응원 프로젝트'의 두 번째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했다.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는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 구축된 학습모임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공동체들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결과 자료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그룹 육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19'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발굴 및 모니터링, 실제 사례 컨설팅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8일 열린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첫 모임에서는 지난해 결과물인 '평화로운 학교문화포럼 결과보고서'와 '고양형 혁신교육-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119' 지도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유관기관 소개 및 학기 초 관계형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발굴에 대

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고양시다문 화가죽지원센터, 이민자통합센터가 참여했으며 고양시청 평생교육과 혁신교육팀,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생활인권지원 담당,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식물연구회, 회복적 서클대화협회 등 여러 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네트워크 모임에서 나눈 의견을 토대로 '고양형 혁신교육-위기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119' 지도는 2월 중으로 각 학교와 교실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관내 학교 폭력 예방 기관의 역할과 성격, 연락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 형식의 리플렛으로, 앞으로 대자보 형태로도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출력, 비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시 혁신교육팀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한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작년에는 네트워크 구축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네트워크 119 지도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각 기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임은 유관기관 외에도 교사, 전문가,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자료를 바탕으로 포럼 및 워크숍도 올해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관련 문의는 온마을배움지원센터(☎031-8075-2281~4)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삼송동·창릉동, 설 명절 저소득층에 상품권 지급

설 연휴를 앞두고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행정복지센터와 창릉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상품권 후원이 이어지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나눔에 참여한 삼송서울정형외과와 삼송동상점가상인회, 다함봉사단은 온누리상품권 후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까지 사랑을 전했다.

삼송서울정형외과와 삼송동상점가상인회에서 후원한 약 4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은 삼송동 거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층 80명에게 전달됐으며 다함봉사단이 전달한 온누리상품권은 창릉동 거주 독거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삼송동 거주 다문화가정 쉐릴 엔몬타니엘씨는 "평소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명절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천 삼송동장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주는 많은 분들 덕분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미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우리 독거어르신들이 활력을 얻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작은도서관 2곳에서 '아이돌봄 사업' 신청자 모집

고양시(시장 이재준) 도서관센터가 2월부터 작은도서관 2곳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다음 달 사업 운영을 앞두고 현재 돌봄서비스 신청자 모집이 한창이다. 이번 고양시의 아이돌봄 사업은 경기도의 '2021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 공모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에서 실시하는데, 행신동 소재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관장 이승희)와 중산동 소재 '하늘벗 작은도서관'(관장 이종선) 등 2곳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생 틈새 돌봄' 목적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아이돌봄 지원책으로, 접근이 편리한 거주지 인근의 마을도서관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은 안전한 돌봄 활동을 지원 받으면서도 아이들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도서관 문화를 생활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돌봄 서비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생과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아동까지다. 주 5일간 하루 최대 5시간 범위 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지은 기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 시작

고양시, 증상 유무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 지원받도록 확대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은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 근무함에 따라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만 지원대상에 해당됐지만, 올해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1인당 23만원을 1회에 한해 제공한다. 사용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단, 올해 말까지 사용이 일괄 마감되니 그 전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

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고양시 거주 취약노동자다. 취약 노동자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대상이 된다.

신청 접수는 12월 10일까지 상시 운영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신청서와 고용형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031-8075-3563)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이재준 시장,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다문화가족 격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월 8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를 방문해 센터 이용자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기관들을 돌아보는 일정 중의 하나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역현황과 다문

화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충격이지만 이 주의 배경을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는 더 크다. 이 때문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이재준 시장이 다문화가족들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센터 이용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고향에 다녀오지도 못하고, 쓸쓸히 설 명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의 봄을 기다려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센터 직원들에게도 “고양시 최일선의 복지일꾼으로서 방역에 협조하

면서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유진 센터장은 “다문화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실직이나 수입이 줄어드는 경제적인 문제, 친정 식구 도움 없이 임신과 출산, 돌봄의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약해진 사회적 지지체계,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결손 및 학습격차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준 시장님의 오늘 격려 방문이 더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과 센터 직원들은 다문화가족들이 고양시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하성 기자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 3천 마리까지 지원한다. 고양시는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히, 율해는 반려견 외에 반려묘도 대상에 포함된다. 선착순 3천 마리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혹은 고양이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 방문교육서비스 안내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돕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에게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과 가족생활(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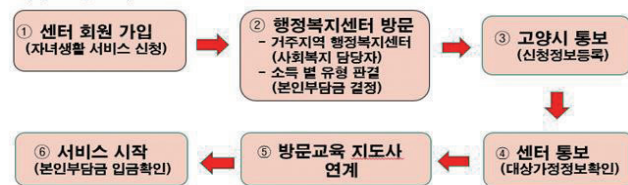
항목	한국어교육 서비스	가족생활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서비스 제공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서비스 제공	•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 제공
대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생애주기 별 각 1회 지원 (총3회 지원) ① 임신·출산(임신중-생후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초과-만 12세 이하)	• 만 3세-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내용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인지영역 • 자아정서사회영역 • 문화역량강화 영역 • 시민교육영역
서비스 제공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 80회기	• 주 2회, 회당 2시간 • 40회기	• 주 2회, 회당 2시간 • 80회기
기타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발생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좌 입금 (우리 1005-802-586332)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발생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좌 입금 (우리 1005-802-586332)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발생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좌 입금 (우리 1005-802-586332)

※ 우선선정 대상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 계층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2% 이하인 자),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

■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사업(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1. 이용신청절차



-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우선선정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2. 본인부담금 시간당 단가 및 정부지원 시간

유형	21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인기준)	시간제 (원/시간)		비고 (4주 부담금) *4주 8회 16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7,314천원 이하)	13,620원	무상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월 7,314천원 초과)	9,540원	4,080원	65,280원

3. 본인부담금 전입금

-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7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좌로 본인부담금 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방문교육서비스 중지 및 일시 중지

1. 방문교육서비스 중지

- 지도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 (ex. 차량지원, 경조사 등)
- 지원대상 가정의 사정 변경 (이사,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 등)된 경우
- 센터 및 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긋 경우
-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 기타 지도사의 보호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한 서비스 기간 또는 회기를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된 경우라도 서비스가 1회 제공된 것이므로 추후 서비스 제공 불가

외국인주민을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에 관한 모든 것!

Những điều cần biết về chế độ trợ cấp thu nhập 100,000won/người của tỉnh Gyeonggi



Như các bạn đã biết, do những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đến nền kinh tế của toàn dân, tỉnh Gyeonggi đã quyết định hỗ trợ thu nhập lần thứ 2 cho toàn người dâ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với số tiền là 100,000won/người, bao gồm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2 vừa qua.

Hôm nay chúng ta hãy cùng nhau tìm hiểu tỉ mỉ hơn những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dự án này của tỉnh Gyeonggi nhé!

Q1. Đối tượng đăng kí là những ai?

A1. Tính vào thời điểm lúc 24h, ngày 19 tháng 1 năm 2021, bất kể thu nhập như thế nào, chỉ cần là người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bao gồm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ều có thể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của tỉnh. Những trẻ nhỏ được sinh ra trong khoảng thời gian tiến hành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thì bố hoặc mẹ của trẻ có thể đăng kí thay trẻ.

Q2. Cách thức đăng kí như thế nào?

A2. Chúng ta sẽ có 4 hình thức đăng kí ứng với các nội dung cụ thể như sau:

1. Online: Đăng kí tại <https://basicincome.gg.go.kr/>

a. Phương thức trợ cấp: Thẻ đặc thù của khu vực + Thẻ tín dụng, Thẻ Check

b. Thời gian đăng kí: 1/2/2021~14/3/2021

c. Lưu ý: Từ tuần đăng kí 1 đến tuần đăng kí 4, áp dụng đăng kí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năm cuối của năm sinh

nhất định, bắt đầu từ tuần đăng kí thứ 5 trở đi tiếp nhận tất cả các đăng kí mà không phân biệt số cuối của năm sinh.

2. Offline: Trực tiếp đến Ủy ban nhân dân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để đăng kí

a. Phương thức hỗ trợ: Thẻ đặc thù của khu vực

b. Thời gian đăng kí: 1/3/2021~30/4/2021

c. Lưu ý: Từ tuần đăng kí 1 đến tuần đăng kí 4, áp dụng đăng kí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năm cuối của năm sinh nhất định, bắt đầu từ tuần đăng kí thứ 5 trở đi tiếp nhận tất cả các đăng kí mà không phân biệt số cuối của năm sinh. Cụ thể đó là

-Thứ 2: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1 và 6

-Thứ 3: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2 và 7

-Thứ 4: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3 và 8

-Thứ 5: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4 và 9

-Thứ 6: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5 và 0

-Cuối tuần: Không phân biệt số cuối năm sinh.

3. Dịch vụ đến nhà tiếp nhận đăng kí

a. Phương thức hỗ trợ: Thẻ đặc thù của khu vực

b. Thời gian đăng kí: 1/2/2021~28/2/2021

c. Lưu ý: Dịch vụ chỉ hỗ trợ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người cao tuổi, người khuyết tật, những gia đình có một bố(mẹ) có thu nhập thấp, những người đang nhận sự hỗ trợ cơ bản về sinh hoạt của Chính phủ hay những người thuộc tầng lớp được xã hội bảo trợ.

4.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a. Phương thức hỗ trợ: Thẻ đặc thù của khu vực

b. Thời gian đăng kí: 1/4/2021~30/4/2021

c. Lưu ý: Có thể đăng kí Online hoặc Offline một cách đồng thời.

Q3. Địa điểm và thời gian sử dụng tiền trợ cấp là như thế nào?

A3. Địa điểm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Những nơi đã đăng kí liên kết với dịch vụ thanh toán bằng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có địa điểm nằm tại quận huyện thành phố nơi mà người đăng kí đã đăng kí địa chỉ. Tuy nhiên một số những nơi không thể sử dụng số tiền hỗ trợ này đó chính là những siêu thị có quy mô kinh doanh lớn, những nơi vui chơi giải trí như quán karaoke hay quán bar, những nơi có thu nhập đầu vào từ trên 1 tỷ/năm

Thời gian bắt đầu được sử dụng là 3 tháng kể từ ngày mà người đăng kí nhận được tin nhắn thông báo được sử dụng số tiền hỗ trợ này. Những người nhận được tin nhắn thông báo từ ngày 1 tháng 4 thì thời gian sử dụng cuối cùng sẽ đến hết ngày 30 tháng 6.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의 경제생활과 소득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2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Q1: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A1: 2021년 1월 19일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에 태어난 신생아도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의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 방문하여 신청

가.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나. 신청기간: 2021.02.01.~2021.03.14

다. 비교: 요일별 5부제 적용(1~4주차), 요일별 5부제 미적용(5주차 이후)

2.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나. 신청기간: 2021/03/01~2021/04/30

다. 비교: 요일별 5부제 적용(1~4주차)/요일별 5부제 미적용(5주차 이후)

구체적으로는 월요일은 생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생년 끝자리 2과 7, 수요일은 생년 끝자리 3과 8, 목요일은 생년 끝자리 4와 9, 금요일은 생년 끝자리 5과 0, 주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가.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나. 신청기간: 2021.02.01.~2021.02.28

다. 비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수령자 등 취약계층

4. 외국인

가.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나. 신청기간: 2021.04.01.~2021.04.30

다. 비교: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신청 가능

Q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3: 사용 가능한 장소는 주민등록 거주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사행성 업종,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금액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 승인 문자를 수신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에보안내 131

02 Pamamaraan ng Pagpasok sa Elementaryang Paaralan

Mga Uri ng mga Elementarya

- Pambansang Elementaryang Paaralan** : Isang elementaryang paaralan itinatag at pinamamahalaan ng estado o isang elementaryang paaralang kaanib ng mga pambansang pamantasan ng edukasyon o mga kolehiyo ng edukasyon sa mga pambansang pamantasan
- Pampublikong Elementaryang Paaralan** : Isang munisipal o panlalawigang paaralang elementarya itinatag at pinamamahalaan ng isang lokal na pamahalaan
- Pribadong Elementaryang Paaralan** : Isang paaralang elementarya itinatag at pinamamahalaan ng mga korporasyon o mga indibidw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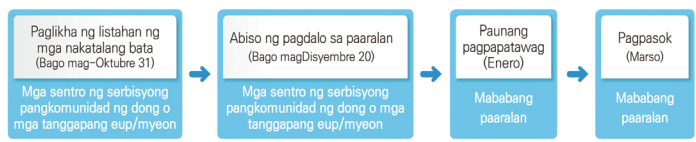
Mga Puntirang Mag-aaral

- Ang mga batang edad 6 sa pagitan ng Enero 1 at Disyembre 31 ay saklaw ng ipinag-uutos na edukasyon sa Elementarya.
- Mga mag-aaral na ipapatala sa pampaaralang taon 2021 :
Mga batang ipinanganak sa pagitan ng Enero 1 – Disyembre 31, 2014
- Mga mag-aaral na ipapatala sa pampaaralang taon 2022 :
Mga batang ipinanganak sa pagitan ng Enero 1 – Disyembre 31, 2015

Petsa ng Pagpasok

- Tumatako ang pampaaralang taon ng mga mababang paaralan mula Marso 1 hanggang katapusan ng Pebrero ng susunod na taon, at **karaniwang nagaganap ang pagpasok sa paaralan sa Marso**, bagama't **maaring makapasok** ang mga mag-aaral **anuman oras ng taon** basta't hindi makakasagabal ang nahuling pagpasok sa pagkumpleto nila ng pampaaralang kurikulum.

Pamamaraan ng Pagpasok



- Maaari mong tuklasin kung karapat-dapat ang iyong anak na dumalo sa paaralan sa sentro ng serbisyong pangkomunidad ng iyong dong o sa tanggapang eup/myeon. Ipadala ang abiso ng pagdalo sa paaralan sa tahanan ng bata sa Disyembre 20.
- Sa pangkalahatan, **itinatag ang mga paaralan ayon sa tirahan ng mga magulang (mga tagapag-alaga) ng bata**, alinsunod sa pamantayan ng panlalawigang tanggapan ng edukasyon, **nguni't maaaring piliin ng mga batang mula sa mga pamilyang multikultural na pumasok sa mga Elementaryang Paaralan may mga espesyal na klase para sa mga mag-aaral na multikultural.**
- Dahil nagsasagawa ang mga pambansa at pribadong elementaryang paaralan ng kanilang sariling proseso ng pagpili, kailangan mong direktang makipag-ugnayan sa paaralan para sa impormasyong tulad ng mga petsa ng pagpasok.

Mga payo Pagpasok ng mga bata mula sa mga pamilyang may pagkamamamayang banyaga

- Kahit na ipinanganak ang iyong anak sa Korea, kung siya ay mula sa isang pamilyang may pagkamamamayang banyaga, walang ilalabas na abiso ng pagdalo sa paaralan.** Samakatuwid, mangyaring bumisita sa pinakamalapit na mababang paaralan bitbit ang mga dokumentong magpapatawag ng iyong paninirahan sa Korea para sa pagpapayo sa pagpasok.
- Pinapayagang magpatala kahit ang mga hindi rehistradong dayuhan,** at kakailanganin mong magdala ng mga dokumentong magpapatawag ng iyong paninirahan sa Korea tulad ng kasunduan sa pag-uapa o ang nasusulat na garantiya ng personal na pagkakakilanlan (nasusulat na garantiya ng kapitbahayan) at mga dokumentong magpapatawag ng petsa ng kapanganakan ng iyong anak.

03 Pamamaraan ng Pagpasok sa Primaryang Paara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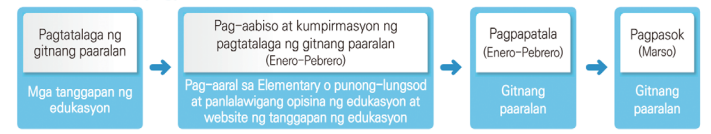
Mga puntirang mag-aaral

- Ang mga batang nagtapos mula sa mababang paaralan o may katumbas na mga kwalipikasyong pang-edukasyon ay karapat-dapat sa pagpapatala sa gitnang paaralan.

Petsa ng pagpasok

- Tumatako ang pampaaralang taon ng gitnang paaralan mula Marso 1 hanggang katapusan ng Pebrero ng susunod na taon. **Karaniwang nagaganap ang pagpasok sa paaralan sa Marso**, bagama't **maaring makapasok** ang mga mag-aaral **anuman oras ng taon** basta't hindi makakasagabal ang nahuling pagpasok sa pagkumpleto nila ng pampaaralang kurikulum.

Pamamaraan ng pagpasok



- Sa pangkalahatan, ang mga punong-lungsod at panlalawigang tanggapan ng edukasyon ay **itinatalaga ang mga paaralan ng tanggapan ng edukasyon na isinasaalang-alang ang pampaaralang distrito ng mag-aaral**, nguni't **maaring piliin ng mga batang mula sa mga pamilyang multikultural na pumasok sa mga gitnang paaralang may mga espesyal na klase para sa mga mag-aaral na multikultural.**
- Kung ang iyong anak ay kasalukuyang nakatala sa mababang paaralan, **wala nang iba pang dapat ihanda ang mga magulang (mga tagapag-alaga), dahil responsibilidad ng mababang paaralang ihanda ang mga dokumento at isagawa ang lahat ng mga tungkuling nauugnay sa pagpasok sa gitnang paaralan.**
- Para sa mga dalubhasang gitnang paaralan, tulad ng mga gitnang paaralan ng pisikal na edukasyon, mga gitnang paaralan ng sining, at mga pandaigdigang gitnang paaralan, nagsasagawa ang bawat paaralan ng kanilang sariling proseso ng pagpili sa paghahanap ng mga bagong mag-aaral na natutugunan ang mga ispesipikong kinakailangan alinsunod sa layunin ng kanilang pagkakatag. Dahil nag-iiba-iba ang mga kinakailangan, pamamaraan, at paraan ng pagpili para sa mga bagong mag-aaral kada paaralan, makabubuting basahin mo ang mga patnubay sa pagpasok para sa mga bagong mag-aaral na ibinibigay ng bawat paaralan.

[Mga Saligan ng Pagpasok Kada Uri ng Paaralan]

Kategorya	Mga karaniwang gitnang paaralan	Mga dalubhasang gitnang paaralan
Mga katangian	• Nahahati batay sa kasarian sa mga gitnang paaralan para sa mga babae, mga gitnang paaralan para sa mga lalaki, at mga paaralang kood	• Pinipili ang mga mag-aaral na magaling sa mga tiyak na larangan para sa masinang pagpasananay • Mga gitnang paaralan ng pisikal na edukasyon, mga gitnang paaralan ng sining, at mga pandaigdigang gitnang paaralan
Matrikula (bayad sa pagpasok, bayad sa pag-aaral)	• Libre	• May bayad (nag-iiba-iba depende sa paaralan)
Mga saligan ng pagpasok	• Tutukuyin depende sa kategorya ng paaralan at distrito ng gitnang paaralan	• Hiwalay na saligan ng pagpasok

Mga payo Suporta para sa mga aktibidad pagkatapos ng Elementarya, Primarya at Mataas na Paaralan

- Ang mga serbisyong pangangalaga ng bata ay ibinibigay sa mga klaseng pangangalaga sa elementarya ng paaralan para sa mga bata ng mga mag-aaral mula sa mga pamilyang may dalawang naghahapuhay at may mababang kita.
- Ang mga mag-aaral ng Elementarya, Primarya at Mataas ay maaring lumalok sa iba't ibang programa pagkatapos ng paaralan upang palakasin ang kanilang mga kakayahang sa pag-aaral at paunlarin ang kanilang mga kasayan at kakayan.
- Para sa pagkakaroon ng aplikasyon, saklaw at nilalaman ng aplikasyon, mangyaring suriin sa tanggapan ng edukasyon.

04 Pamamaraan ng Pagpasok sa Mataas na Paaralan

Mga uri ng mataas na paaralan

- Mga karaniwang mataas na paaralan** : Mga pampubliko at pribadong mataas na paaralang nagbibigay ng karaniwang edukasyon, na kumakatawan sa pinakamalaking bahagi ng mga mataas na paaralan
- Mga mataas na paaralang may espesyal na layunin** : Mga mataas na paaralang naglalayong magbibigay ng nagdadalubhasang edukasyon sa mga espesyal na larangang tulad ng mga wikang banyaga, pandaigdigang edukasyon, at agham
- Mga dalubhasang mataas na paaralan** : Mga mataas na paaralang tinuturuan ang mga mag-aaral na may parehong galing, kaangkupan, at mga kakayahang para sa layuning pagyamanin ang mga galing sa mga ispesipikong larangan o magbibigay ng edukasyong nakatuon sa karanasan tulad ng direktang paglalagud ng kalikasan.
- Mga nagsasariling mataas na paaralan** : Mga pampubliko at pribadong mataas na paaralang hinirang upang patakubin nang may kasarinlan ang mga paaralan o mga kurikulum kumpara sa iba pang mga uri ng mga mataas na paaralan

Mga puntirang mag-aaral

- Karapat-dapat ang mga mag-aaral na nagtapos mula sa gitnang paaralan o may mga katumbas na kwalipikasyong akademiko na pumasok sa mataas na paaralan.

Petsa ng pagpasok

- Tumatako ang pampaaralang taon ng mataas na paaralan sa pagitan ng Marso 1 at katapusan ng Pebrero ng susunod na taon, at **karaniwang nagaganap ang pagpasok sa paaralan sa Marso**.

Mga petsa ng pagpili

- Pumpipili ang mga mataas na paaralan ng mga bagong mag-aaral dalawang beses sa isang taon.
 - Unang bahagi: Mga karaniwang mataas na paaralan (sining at pisikal na edukasyon), mga mataas na paaralang may espesyal na layunin (agham/sining/pisikal na edukasyon, at mga mataas na paaralang meister).
 - Ikalawang bahagi: Lahat ng mga mataas na paaralan kabilang ang mga karaniwang mataas na paaralan (hindi kabilang ang sining at pisikal na edukasyon) na hindi pumpipili sa unang bahagi.
- Nag-iiba-iba ang mga petsa ng pagpasok at mga saligan sa mga munisipal at panlalawigang tanggapan ng edukasyon, samakatuwid kailangang alamin ang mga ito bago ang aplikasyon.

[Mga saligan ng pagpasok kada uri]

Kategorya	Detalyadong kategorya	Layunin	Mga saligan ng pagtanggap
Karaniwang Paaralan	Karaniwang Paaralan	• Sekundaryang edukasyon batay sa kagalingang akademikong kinakailangan para sa gitnang paaralan	• Larangang alinsunod sa pamantayan: loterya • Larangang hindi alinsunod sa pamantayan: mga talang pampaaralan at pagsusulit para sa pagpasok, atbp.
	Banyagang Paaralan	• Lumikha ng mga nagtapos na komportable sa pagtatrabaho gamit ang wikang banyaga	• Pagsasala ng pagkatuto ayon sa sariling paghihimok ng komite sa saligan ng pagpasok ng bawat paaralan
Mataas na paaralang may espesyal na layunin	Pandaigdigang Mataas na Paaralan	• Lumikha ng mga nagtapos na dalubhasa sa pandaigdigang abal-abal	• Pagsasala ng pagkatuto ayon sa sariling paghihimok ng komite sa saligan ng pagpasok ng bawat paaralan
	Paaralan ng Siyensya	• Senyasa sa pagsasanay sa talento	• Pagsasala ng pagkatuto ayon sa sariling paghihimok ng komite sa saligan ng pagpasok ng bawat paaralan
Dalubhasang mataas na paaralan	Paaralan ng Sining at pisikal na edukasyon	• Paglilingan ng mga artistikong talento tulad ng pentik, musika, sining, sayaw, teatro, at pelikula	• Talang pampaaralan, panayam at praktikal na pagsusulit, atbp.
	Mataas na paaralang Meister	• Pagtataguyod ng mga batang meister na may kaugnayan sa dalubhasang pang-industriya na pangangailangan sa mga maasahan na larangan	• Talang pampaaralan, panayam at praktikal na pagsusulit, atbp.
Nagsasariling paaralan	Dalubhasa (Bokasyonal)	• Bokasyonal na edukasyon para sa mga mag-aaral na nais na magtrabaho pagkatapos mag-aaral	• Talang pampaaralan, panayam at praktikal na pagsusulit, atbp.
	Dalubhasa (Alternatibo)	• Alternatibong pagpapatawag ng programang edukasyon na nakasentro sa mga mag-aaral	• Talang pampaaralan, panayam at praktikal na pagsusulit, atbp.
Nagsasariling paaralang may espesyal na layunin	Nagsasariling pribadong mataas na paaralan	• Kurikulum at pamamahala ng akademiko ayon sa pilipya ng paaralan	• Pagsasala ng pagkatuto ayon sa sariling paghihimok ng komite sa saligan ng pagpasok ng bawat paaralan
	Nagsasariling pampublikong mataas na paaralan	• Upang mapabuti at mapaunlad ang sistema ng edukasyon, awtomatikong patakubin ang mga paaralan at mga kurikulum sa paglikha sa superior	• Larangang alinsunod sa pamantayan: loterya at pagtatalaga • Larangang hindi alinsunod sa pamantayan: mga talang pampaaralan at pagsusulit para sa pagpasok
Iba pang mga paaralan	Paaralan para sa mga batang likas na magaling	• Patakubin ang pasadyang pagsasanay para sa mga batang may talento na nangangailangan ng espesyal na edukasyon upang mabuo ang kanilang potensyal	• Komite sa rekomendasyon at pagpili

※ Mayroong makukuhaing detalyadong impormasyon tungkol sa pagpasok sa website ng Pagpasok sa mataas na paaralan (www.hischool.go.kr).

Tandaan Operasyon ng kurikulum ng elementarya, primarya at mataas na paaralan

Pagsasaayos ng mga Semestre at mga Klase

- Ang pampaaralang taon ng mga elementarya, primarya, at mataas na paaralan ay nahahati sa dalawang semestre
 - Unang semestre : Mula Marso 1 (dahil ang Marso 1 ay isang pambansang bakasyon, nag-uumpisa ang mga klase sa Marso 2) hanggang sa araw (kadalasan, ang petsa ng pagtatapos ng bakasyon sa tag-init) na itinakda ng pinuno ng pinuno ng mga klase, na isinasaalang-alang ang bilang ng pampaaralang araw, bilang ng mga araw na walang pagtuturo at ang operasyon ng mga kurikulum ng mga katugong paaralan
 - Ikalawang semestre : Mula sa araw kasunod ng huling araw ng unang semestre hanggang sa huling araw ng Pebrero ng susunod na taon
- Karaniwang inoorganisa ang mga klase upang daluhan ng mga nabibilang sa parehong grado nguni't, kung kinakailangan, maaaring matalaga ang mga mag-aaral mula sa dalawa o higit pang grado upang dumalo sa parehong klase.

Bilang ng Pampaaralang Araw at Pagdalo

- Bagama't maaaring mag-iiba-iba sa mga paaralan, karamihan sa mga paaralan ay nag-aalok ng mga klase 5 araw kada linggo (Lunes hanggang Biyernes), na aabot sa kabuuang 190 araw o higit pa sa bawat pampaaralang taon.
- Pinapayagan lamang ang mga mag-aaral na tumuntong sa susunod na grado kung dadalo sila sa kahit 2/3 man lamang ng mga pampaaralang araw. Gayunpaman, **kung lilipat ang isang mag-aaral na multikultural sa isang bagong paaralan sa kalagitnaan ng semestre ng paaralan, papayagan siyang tumuntong sa susunod na grado pagkatapos dumalo sa kahit 2/3 man lamang ng mga araw mula sa petsa ng pagpasok sa bagong paaralan.**
- Hindi magiging kasahulan sa isang mag-aaral ang kanyang pagliban kapag may baidong dahilan sa pagliban. Dapat isumite ng tagapag-alaga ang mga nauugnay na dokumentong ibinigay ng paaralan sakaling lumiban ang isang mag-aaral dahil sa isang likas na sakuna (lindol, malakas na ulan, malakas na pag-ulan ng niyebe, sunami, atbp.), isang nakakahawang sakit na hinirang ng estado, pakikilahok sa mga opisyal na paligsahang inaprubahan ng punong-guro, pag-aaral sa mismong lugar, pag-aaral sa palitan at pakikihalubilo, mga pangkaranasang aktibidad sa labas ng klase (pagbisita sa mga kaibigan at kamag-anak, mga biyahe ng pamilya, atbp.), pagdalo sa mga kaganapan ng pamilya, o anumang iba pang pagliban sa kadahilananang inaprubahan ng punong-guro.
- Bago tumuloy sa mga pangkaranasang aktibidad sa labas ng klase, dapat sagutan ng mga mag-aaral ang isang papel para sa aplikasyong ibinigay ng paaralan at isumite ito sa kanilang guro sa homeroom. Pagkatapos ng aktibidad, dapat magsumite ang mga mag-aaral ng isang simpleng ulat na isinasalarang ang karanasan. Maaaring gumamit ng mga pangkaranasang aktibidad sa labas ng klase basta't hindi sila makakasagabal sa pagkumpleto ng kurikulum gaya ng nakaatas sa ilalim ng mga tuntunin at regulasyon ng paaralan. Maaaring mag-iiba-iba ang pinapayagang panahon kada paaralan.

Bakasyon

- Sa pangkalahatan, tumatako ang bakasyon sa tag-init ng hanggang isang buwan mula huling bahagi ng Hulyo, at nag-uumpisa ang bakasyon sa taglamig sa unang bahagi ng Enero at nagtatapos sa huling bahagi ng Pebrero. Depend sa paaralan, maaaring mabawasan ang panahon ng bakasyon sa taglamig, at maaaring magkaroon ng hiwalay na bakasyon sa tagsibol (bakasyon sa katapusan ng pampaaralang taon) bilang karagdagan (mga dalawang linggo mula kalagitnaan ng Pebrero ng susunod na taon).

Pagsasaayos ng kurikulum

- Ang kurikulum ng mababang paaralan ay nahahati higit sa lahat sa **gawang aklat-aralin at mga pangmalikhaing karanasang aktibidad**. Binubuo ang **mga pangmalikhaing karanasang aktibidad** ng apat na larangan: mga nagsasariling aktibidad, mga pangsamahang aktibidad, mga boluntaryong aktibidad, at mga pangkarerang aktibidad.

[Mga pangmalikhaing karanasang aktibidad at kanilang mga larangan]

Larangan	Mga aktibidad	Larangan	Mga aktibidad
Mga nagsasariling aktibidad	• Aktibidad sa adaptasyon • Mga maliit na aktibidad • Mga aktibidad sa kaganapan • Aktibidad ng malikhaing katangian	Mga pangsamahang aktibidad	• Aktibidad sa akademiko • Mga akadidad sa kultura at sining • Mga aktibidad sa palakasan • Praktikal na gawain sa paggawa • Mga aktibidad ng pangkat ng kabataan
Mga boluntaryong aktibidad	• Mga aktibidad ng boluntaryong kampus • Mga aktibidad ng boluntaryong pamayanan • Mga aktibidad sa pangangalaga sa kapaligiran • Mga pangkampiyaning aktibidad, atbp.	Mga pangkarerang aktibidad	• Mga aktibidad na unawain ang sarili • Mga aktibidad ng paghahanap ng impormasyon sa karera • Mga aktibidad sa paglapano ng karera • Mga aktibidad karanasan sa karera

‘설 맞아 이주민 시설 등 위로 방문해’

이재준 고양시장, 이주민통합센터 등 복지시설 방문해 격려



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8일 관내 30곳 노인과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 생활시설 890명을 대상으로 위문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12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신애원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6곳과 고양 이주민통합센터(사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련 기사 4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6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의 직접 현장을 찾아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양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총 500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90만원까지 지급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들을 직접 대면해 살피는 대신 시설 외부에서 시설장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위문이

진행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살피며 일하는 근무자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한 위문금 전달 외에도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봉사 및 지역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시설 운영 관련 어려운 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을 맞아 시민 모두가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인내하고 협조해주신 시민께 감사”

이재준 고양시장, “함께 손잡고 걸어오며 희망 만들어 낸 시간”

1월 26일은 고양시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고양시 첫 확진자는 전국 3번 확진자로 국내 첫 지역사회 확진자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고양시민 멈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수칙 속에서도 인내하고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지난 1년은 모든 하루가 낯설었다. 소리도 형태도 없이 일상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매일 아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집단지성을 빌렸다. 거의 모든 행정력이 투입했고 일상을 반납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들이 흔들렸지만, 안심카 선별진료소, 안심콜 출입관리와 같은 고양시의 아이디어가 역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다”라고 전했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안심카 선별진료소, 전화 한 통으로 출입자 관리를 하는 안심콜,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한 안심 숙소, 음식점 옥외영업, 화상진료, 길거리 손 세정대 설치, 마스크 실명제 등은 모두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하나씩 완성해 가며 만들어낸 정책들이다. 이 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적극적인 방역행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교회,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발생으로 1,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끝으로 “지난 1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낯선 길이었지만, 함께 손잡고 걸어오며 희망을 만들어 낸 시간”이었다며 “최일선에서 여전히 사투하며 선별 진료를 도와주신 의료진과 간호사, 마스크 대란 해결에 큰 역할 해 주신 약사님, 사명감으로 감당하기 벅찬 특별한 임무를 감당한 공직자, 사회가 멈출 때 생계를 포기하고 가장 먼저 멈춘 자영업자, 거리두기와 기부, 봉사로 동참한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송하성 기자

개성공단사업조합, 다문화가족 지원 (사)밝은미래에 사랑나눔 물품 전달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8일 일산 테크노타운 조합 사무실에서 고양시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개성공단 기업 설 맞아 사랑 나눔 물품'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문중 대표, (사)밝은 미래 경기도 지부 박경희 대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희건 이사장은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남북 관계의 복원과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길용 의장은 "어려운 가운데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개성공단 기업인에 감사드립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고양시의회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증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은 고양 시내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고양 행복텃밭 분양 다문화가족 등 2월 26일까지 “행복을 분양합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월 26일까지 가족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기르며 이웃과 하나 되는 공간인 ‘행복텃밭’을 분양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양시 관내 14개 농장의 16.5㎡(5평형) 총 700구좌를 1세대 당 1구좌씩 분양한다.

임대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임대비용 총 10만원 중 3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며 자부담금 7만원은 납부해야 한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분양하고, 농장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임금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고양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goyang.go.kr/ag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hegon070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오는 3월 5일까지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31-8075-4269, 4274)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 광장과 와스타디움 조형물광장 등 2곳에서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며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와스타디움 진료소는 평일은 동일하며 토요일과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두 진료소 모두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 선별진료소는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에 위치해 있는만큼 이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진료소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핸드폰 번호, 성별, 나이, 국적 정도만을 확인한다.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검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검사방법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비인두도말 PCR검사로 접수가 끝나면 콧속으로 면봉을 넣어 타액을 채취한다. 단원구보건소 관계자는 “검사를 하면 보통 다음날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바로 통보한다”며 “검사를 위해서는 마감 30분 전

인 4시 30분까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율화섭 안산시장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코로나19 일선에서 근무 중인 현장근무자와 재래시장 상인을 만나 격려와 함께 설 인사를 건넸다.

율화섭 시장은 이날 오전 상록수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안산상록경찰서를 시작으로, 다농마트와 안산소방서, 단원경찰서, 시민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율화섭 시장은 “이번 설 명절은 특히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안산시민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가족모임 증가 등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일반음식점 2121개소에 대해 시 공무원 및 소비자직업위생감시원 등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만·관 합동반을 꾸려 음식점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 및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위생업소 52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및 핵심방역 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주·야간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최근까지 2758개소의 점검을 완료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본오1동작은도서관 맛벌이 위한 아이돌봄 사업



안산시(시장 율화섭) 본오1동작은도서관은 경기도 ‘2021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에 선정돼 3월부터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부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서 부모의 맛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교생에게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오1동작은도서관은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36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독서, 만들기, 코딩, 영어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에는 자원봉사자의 돌봄이 제공된다.

참여 학생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시간만큼 도서관에 머물 수 있고, 학생의 이동 안전을 고려해 인근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메일(jinn293@korea.kr) 및 도서관 방문을 통해 받으며, 자세한 사항 및 필요 서류는 감골도서관 홈페이지(lib.an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가정과 일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작은도서관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1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안녕! 한국어 학교**
 - 한국어기초반, 중급반, TOPIK 준비반 각반 15명 모집
 - 한국어 예비학교(인종과정) 15명 모집
 - 운영기간: 3월 ~ 12월
- *다문화위탁형 대안 학교 "꿈빛학교"**
 -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원격학교 통해 지원가능
 - 꿈빛학교 2개반 20명 모집
 - 운영기간: 3월 ~ 12월
- *검정고시 준비 지원 "꿈다리학교"**
 -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증이 필요한 중도입국 청소년
 - 정원 16명
 - 수시 모집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문의하기 ☎ 031-599-177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2021년 슬로건을 소개합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만나자**

#2021년 #슬로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만나자

‘만나자’라는 일상용어가 2021년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 없이 웃는 얼굴로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통하다

도래통역단 네트워크 '통하다'를 새롭게 런칭합니다.

- 도래통역단 양성교육 '3월/6월'(시작) 8회기, 1회당 3시간씩 통역사양성과정 교육
- 교육이수 후 현장 통역활동 지원 (1인당 최대 50회)

+ 러시아어-한국어 통역가로 활동하고 싶은 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031-599-1770

"꿈다리 상담실"로 통한다!!!

센터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진로진학을 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꿈다리 상담실'문을 노크해 주세요!

주변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031-599-1770

설 명절, 다문화가족과 함께 나누는 떡국!

윤화섭-김미화 떡국 끓이며 설풍습 소개...유튜브 소통



안산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떡국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시민과 ‘언택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9일 떡국을 처음 접하는 다문화가정과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초간단 떡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현장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미화 안산문화재단 대표가 출연해 떡국을 직접 끓이며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여기에 가수 인순이가 깜짝 출연해 새해 인사를 건네며 재미를 더했다. 이들은 떡국 조리법 외에도 떡국을 먹는 이유 등 설 명절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의 유래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촬영된 영상은 설 연휴 첫 날인 오는 11일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떡국을 부탁해 윤과미!’라는 제목으로 시민에게 공개된다.

영상에는 소외된 가정을 위해 떡국 밀키트를 만든 자원봉사자 인터뷰 영상이 담겨 훈훈함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도 열었다.

떡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코로나19 의료지원단과 다문화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2인용 포장 도시락 형태로 만들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친 선별진료소 세 곳에 모두 60세트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140가구에는 떡국과 함께 웃놀이 도구가 담긴 물품이 전달됐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욱 가까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시민 모두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다문화가정 등에 떡국 밀키트와 웃놀이 도구가 담긴 물품 200세트를 보내 한국 전통음식과 전통 놀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환경운동, 일회용 빨대 거절하고 개인 텀블러 사용해요



다문화가족도 최근 SNS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고챌린지’ 캠페인으로 환경운동에 동참해보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3일 집무실에서 최근 SNS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 ‘고고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며 ‘일회용 빨대는 거절하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고챌린지는 올해 초 환경부가 시작한 SNS 캠페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윤시장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목으로 참여해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원주갑)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을 지목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가능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하세요

안산시 올해 2단계 확대, 3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신청 필수



대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안산시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신청하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올해 2단계로 확대 실시한다.

안산시는 올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신청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3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어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을 포함한 2단계로 확대한다. 처음 시행된 지난해 1단계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능 학생은 지난해 3천852명에서, 올해 4천815명으로 늘게 돼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이달 중순 안산시청 및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게시해 추진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지원 학생은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9세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학생 제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학생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50%,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2학기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구비서류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천545명에게 1인당 평균 62만8천만 원 등 모두 16억 원을 지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더욱 높였다”라며 “더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3)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주요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직접 알리는 ‘정책 브리핑’을 추진하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의 관심이 높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통해 2천545명에게 모두 16억 원을 지원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가정을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브리핑을 통해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신청서류를 줄이고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라며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인 만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

행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에는 총 5명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대상으로 멘토링, 법제도, 부부상호이해교육 등의 내용으로 총 3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멘토링 시간에는 국가별 멘토를 섭외하여 초기 입국자들의 한국 생활 궁금증이나, 교육 통역을 함께 진행하면 운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17일에 진행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운영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센터 미등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생활 안내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학기 한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학기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국어교육은 2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접수한다.

교육과정은 1단계 수준으로 기초반이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2단계 수준 말하기1반(오전)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말하기1반(오후)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쓰기1반은 월

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3단계 이상 수준은 쓰기2반이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녀 학교생활 정복하기는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자로 배우는 한국어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말하기2반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TOPIK)은 취업반으로 변경돼 3월에 진행되며 2학기는 6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3학기는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기간에 30분 이상 지각이 3번이면 1번 결석으로 하며, 3번 결석은 한국어교육 수업이 불가하다. 수료기준은 출석 80%, 시험 60점이며 교재비는 별도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599-1708)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본이동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자녀 보육, 우리동네 작은도서관과 함께 해요.

모집기간: 2021. 2. 15.(월) ~ 28일(일)

운영기간: 2021. 3. ~ 11. (36주)

모집대상: 본이동작은도서관 인근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10명

아이돌봄 내용: 운영시간: 월~목요일 13:00~18:00, 1일 1회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2시간),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 자원봉사자 돌봄, 간식 제공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도서관 직접 방문 접수 또는 E-mail 접수(jinn293@korea.kr)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서 다운로드: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lib.ansan.go.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본이동작은도서관 031-481-3035

1학기 한국어교육 모집 안내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기간: 2021년 2월 15일 ~ 5월 12일
- 접수방법: 방문접수(센터 미등록시 추가 서류 요청)
- 교육내용

기간	배치기준	과정	운영시간	강사
(1학기) 2021.2.15. ~5.12	1단계 수준	기초반	월수 10:00~12:00(2시간)	홍미경
		말하기1반(오전)	월수 10:00~12:00(2시간)	차정흔
	2단계 수준	말하기1반(오후)	화목 14:00~16:00(2시간)	이지주
		쓰기1반	월수 14:00~16:00(2시간)	이미경
		쓰기2반	화목 14:00~16:00(2시간)	김영임
	3단계 이상 수준	자녀 학교생활 정복하기	월수 14:00~16:00(2시간)	홍미경
		한자로 배우는 한국어	월수 16:00~17:00(1시간)	이미경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화목 16:00~17:00(1시간)	김영임
		말하기2반	화목 14:00~16:00(2시간)	김대욱

-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TOPIK)은 취업반으로 변경되었으며 3월에 진행
- 교육기간 (2학기) 2021. 6.2 ~ 8.23, (3학기) 2021. 9.1 ~ 11.29
- 교육기간 중 30분이상 지각이 3번이면 1번 결석으로 하며, 3번 결석은 한국어교육 수업 불가 수료기준: 출석 80%, 시험 60점
- 교재비 별도 (대형서점 또는 인터넷서점 별도 구매)
- 문의: 031- 599- 1708(지민주)

※ 센터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교육시 수강준비사항

- 수업 전 미리 시스템(시스코웹엑스) 설치
- 데스크탑PC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선택
- 헤드셋 또는 마이크 이어폰 필수
- 유선인터넷 권장! (와이파이도 가능하나 끊길 우려가 있음)
- 돌아다니거나 공공장소에서 수강 금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시스코웹엑스)로 진행함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들어와야 출석으로 인정)

Cisco Webex Meetings

Google Play

WJRC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s://search.zum.com/search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 외국인주민은 4월에 신청

Gyeonggi to Receive Applications for 2nd Disaster Basic Income Payment

Gyeonggi to Receive Applications for 2nd Disaster Basic Income Payment

Gyeonggi Province recently announced three different application methods for the second disaster basic income payment, which the province intends to make available before the Lunar New Year holiday. Residents are advised to choose the method that best suits them.

Online applications can be made from February 1 to March 14.

As in the first round of payments, one can also apply in person with appropriate identification at local administration and welfare centers for on-site payment in the form of Gyeonggi local currency cards.

On-site applications, which begin on March 1, will be received in accordance with designated weekdays for individuals based on their birth years so as to minimize COVID-19 infection risks and resident inconvenience.

For those with limited mobility, applications can also be made via home visits.

In addition, foreign residents of Gyeonggi can make either online or on-site applications during the month of April.

Hidden COVID-19 Carriers Identified Through

Preemptive Screening

Gyeonggi Province recently set up a COVID-19 screening station at the provincial government complex for the testing of all personnel with the aim of identifying asymptomatic carriers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ns.

During the one-week screening period, two individuals were identified as carriers of the infection.

Preemptive screening has been undertaken throughout the province. One such screening of bus and taxi drivers uncovered a total of 16 carriers.

Gyeonggi Province will continue preemptive screenings on a regular basis, targeting those at high-risk facilities.

Gyeonggi's Delivery Express App Coverage to Be Expanded Province-wide

Following successful trial operations of Gyeonggi's 'Delivery Express' app, the areas covered by this public delivery app will be expanded swiftly.

Twenty-five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have applied to join the app service system. Of these, Pocheon (포천) City will launch app services in February while the cities of Suwon (수원), Gimpo (김포) and Icheon (이천), as well as the counties of

Yangpyeong (양평) and Yeoncheon (연천), will launch app services in March.

Although the Korea-Gyeonggido Company, the operator of the app, originally planned to expand app services throughout the province by the end of the year, expansion is being accelerated for realization with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Gyeonggi Mental Health Hotline Helps Address COVID-19-related Mental Issues

From February to December last year, the Gyeonggi Mental Health Hotline received a total of 593 requests for counseling on COVID-19-related mental health issues.

Of these cases, anxiety was the most common issue, accounting for 35 percent, followed by depression at 30 percent.

Severe cases in which sufferers experienced suicidal thoughts accounted for 3.5 percent of the total.

Severe cases are referred to loc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and monitored through regular text message communication.

Any Gyeonggi resident who is suffering from mental issues due to COVID-19 can receive counseling by calling 1577-0199 GTV

ที่อยู่อาศัย คยองกีโดจุกแท็กคงสา และ เมืองคอร์ปอเรชั่น, รับสมัครผู้เช่าจำนวน 3,380 ครั้งเรือนให้เช่าส่วนตัว

ที่อยู่อาศัย คยองกีโดจุกแท็กคงสา (President Heon-wook Lee, GH) 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รับสมัครผู้เช่า "ที่อยู่อาศัยที่มีอยู่แล้ว" จำนวน 3,380 ราย 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ในคยองกีโดตั้งแต่วันที่ 22 กุมภาพันธ์ ธุรกิจให้เช่าแบบเช่าเหมาที่อยู่อาศัยที่มีอยู่เป็นระบบที่ GH ลงนามในยาทั่วโลกกับเจ้าของบ้านที่มีอยู่เมื่อบุคคลที่ได้รับเลือกให้

เป็นผู้เช่าพบบ้านที่ต้องการ และ ให้เช่าต่อโดยมีค่าเช่าต่ำที่อยู่อาศัยเป้าหมายคือระดับที่อยู่อาศัยแห่งชาติเดี่ยวที่85 m²หรือ น้อยกว่า หลาย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ครอบครัว, พันธมิตร, อพาร์ทเมนท์ เป็นสำนักงานที่อยู่อาศัย การรับสมัครนี้มีลักษณะรวมถึงผู้สูงอายุและคู่บ่าวสาว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ประเภททั่วไปที่มีอยู่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เช่าคือ 2 ปี และ คุณสามารถอยู่ได้ 20 ปีโดยต่ออายุได้สูงสุด 9 ครั้ง

ผู้สมัครเป็นสมาชิกของครัวเรือนจรวัดที่อาศัยอยู่ใน 31 เมือง และ ปลิมณฑลในจังหวัด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 คนงานในเมือง, คนพิการที่มี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เดือน 7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ครัวเรือนสงเคราะห์ที่อยู่อาศัย ผู้สูงอายุ คู่บ่าวสาว ฯลฯ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ประเภททั่วไป และ ประเภทผู้สูงอายุ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ได้สูงสุด 1104.5 ล้านวอน ต่อครัวเรือนโดยไม่รวม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ของผู้เช่า 5% และ ประเภทคู่บ่าวสาวจะได้รับสูงสุด

128.2 ล้านวอนไม่รวม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ของผู้เช่า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สมัคร คือ ตั้งแต่วันที่ 22 ถึง 26 กุมภาพันธ์ และ ณ วันที่ได้รับแจ้งการรับสมัครผู้มีถิ่นที่อยู่สามารถยื่นใบสมัครได้ที่ศูนย์ที่อยู่อาศัย (สำนักงานeupmyeon-dong) ในสถานที่ที่มี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ผู้เช่าของผู้สมัคร

Dong-woo Jang หัวหน้าแผนกธุรกิจที่อยู่อาศัยของ GH กล่าวว่า "ปีที่แล้วเราได้ขยายเป้าหมายไปยังชั้นเรียนต่างๆ เช่นผู้สูงอายุและคู่บ่าวสาวจากประเภททั่วไปเราจะขยายธุรกิจสวัสดิการที่อยู่อาศัย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เพื่อสร้าง 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อยู่อาศัยที่มั่นคงสำหรับผู้เช่า

หลังจาก 3 เดือนจะมีการโพสต์บนเว็บไซต์ GH (www.gh.or.kr) หรือแจ้งเป็นรายบุคคลสำหรั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อื่น ๆ โปรดดูที่เว็บไซต์ GH ในขณะที่คยองกีโด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เมือง Corporation เป็นยังสรรหาซื้อบ้านเช่าในช่วงเวลาเดียวกัน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GH홈페이지(www.gh.or.kr)에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ติดต่อ 1588-0466

<한글 기사 44면>

이아리 기자

안산시, 전국 최초 추진 임산부 신생아 대상 '품안애 안심보험'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는 '품안애 안심보험'을 실시한다.

안산시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품안애 안심보험은 지난 2월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기간 내에 임신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이다.

보험 대상자는 안산시 거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내역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험 가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자동으로 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내역 등을 구비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전년도(2019.12~2020.11) 관내 임산부·신생아 수를 근거로 추산하면 올해 각각 3천여 명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임산부 안전사고에 대해 ▲사망 최대 1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장애발생소득보상위로금 최대 50만원 ▲골절사고·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1일당 3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031-481-2303 이지은 기자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로 촘촘하게

안산시, 외국인 주민은 4월 1~30일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안산시민 모두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 14일까지 온라인(basicincome.gg.go.kr)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 주민은 4월 1~30일 온·오프라인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달 28일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수령자 등 취약계층 6만1천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확인 후 안산화폐 다운카드 충전 또는 새 카드 발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카드 또는 다운카드로, 오프라인은 다운카드로만 가능하다. 외국인 주민은 다운카드로만 할 수 있다. 모든 안산시민은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다만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올 6월 30일이 사용 기한이다. 안산시 지급 대상은 올 1월 19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73만7천204명이다. 내국인은 주민등록한 주민,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 신고한 주민이다. 신생아는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5부제가 적용된다.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 전체 등이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도 같은 달 27일까지 5부제가 적용되며,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첫 한 달 동안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구간을 나눈다. ▲첫 주(3.1~6) 1959년까지 출생자 ▲둘째 주(3.8~13) 1960~1969년 출생자 ▲셋째 주(3.15~20) 1970~1979년 출생자 ▲넷째 주(3.22~27) 1980년 이후 출생자 등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모든 안산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프라인 접수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소방서, 다문화특구 외국인 대상 3일 소방안전협의회 개최

안산소방서는 지난 3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목적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강당에서 다문화특구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관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소방정책 공유 및 지역사회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다문화가정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협의 ▲다국어 화재 예방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소방과 외국인 주민 간의 소통창구 운영으로 화재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순길 외국인 주민상담지원센터장은 "안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언어소통의 부재로 항상 위험 속에 살고 있다"라며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흥재 재난예방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119로 긴급재난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로 각종 재난을 예방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2021년 한부모 가정 일·생활 균형 서비스 우리집을 부탁해

우리집을 부탁해 신청자 모집

“ 일과 가사에 힘든 한 부모 노동자를 위해 '가정관리사'가 당신의 집에 방문합니다. 한 달에 두 번,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봐요. 분명히,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2,223,416	2,868,444	3,510,928	4,145,308	4,772,594

대상 지역 안산시내

대상 가정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 노동자 가정 & 한부모 영세사업자 가정

대상 규모 60가정

서비스 내용 청소, 세탁, 설거지

서비스 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신청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급여명세서
<http://www.asww.or.kr/자료실> [기타] 1번 다운로드

지원 내용 가사서비스 월 2회 제공

이용 요금 회당 5,000원

상담 및 신청 안산여성노동복지센터
T 031-495-5844 / 6844 F 031-495-5843 E asww38@naver.com

우리의 삶이 멈춰서는 안되기에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2월 1일(월) - 3월 14일(일)
 신청방법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급수단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방문 접수

신청기간 | 3월 1일(월) - 4월 30일(금)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급수단 |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기한 | 3개월 (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최대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문의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gg.go.kr>) / 경기도 콜센터 (031-120)

Интересная Корея. Культура соседства. 신기한 한국-한국의 이웃관계 문화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서 크게 증가한 층간소음 민원, 외국인주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Прожив в Корее долги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могу отметить, что соседство в Корее весьма интересная тема и держится на куль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ях корей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и взаимоуважени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считается, что "хорош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й родни".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я была удивлена, узнав, что тут тоже есть похожая пословица. Но, на мой взгляд, у них немного другая смысловая нагрузка: если у нас она означает "соседа,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и поддержит", то в Корее больше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соседа, который не доставляет неудобства и стрессов". На самом деле, мне не пришлось встречать в Корее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ые выражались бы как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гда соседи ходят в гости друг к другу за сплетнями или "за солью" и поздравляют с праздниками. Вообще, на мой взгляд, корейцам присуща исключительная учтивость, они стараются не причинять неудобств окружающим, возможно поэтому добрососедство в Корее проявляется холоднее, чем у нас,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а своем опыте хотелось бы поделиться наблюдениями, как вести себя иностранцу в Корее, чтобы отношения с соседями были не просто мирными, а по-настоящему добрососедскими.

1. Если вы проживаете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соблюдайте правил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такие как тихий режим после 21:00, курение вне квартиры, правильный выброс мусора, уход за домашними питомцами и др. Могу сказать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что бич корейского жилья - это плохая звукоизоляция, из-за чего очень часто даже небольшой шум в своей квартире мож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нервы чужим соседям. Поэтому в ночное время постарайтесь не включать бытовые электроприборы, стиральную машину, не затевать уборку, не играть на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и негромко слушать музыку или телевизор. Обычно по домофону частенько напо-

минают о правил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но в силу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х несоблюдени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конфликту с соседями.

2.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маленькие дети, хорошо, если вы застелите пол специальными толстыми матами и желателен ковер на всю площадь квартиры, где вы передвигаетесь. Это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затратным,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 сразу убьете несколько зайцев: сэкономите на отоплении зимой, обезопасите малыша от ударов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е будете мешать соседям излишними звуками. Когда мои дети были маленькими, у меня на узбекских коврах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были поверх настелены пазловые маты и мат с картой мира, их запросто приобрести в любом крупном магазине, хозяйственных магазинах или через онлайн-шopping и с ними, кстати, дети заодно хорошо играют и обучаются.

3. Здоровайтесь первыми в лифте, в подъезде с соседями. Например, в корейских садах учат малышей всегда первыми здороваться с соседями. Опять ж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дети, здороваясь с соседями первым, вы подаете хороший пример и своим детям. Сказать Аннённасеё/안녕하세요 не так уж сложно согласитесь, даже если вы очень спешите или устали, к тому же, это пусть и небольшая, но хорошая практика языка.

4. Если вы хорошо готовите, то можете угостить соседей коронным блюдом, но даже если и не отличаетесь поварскими талантами, можно купить например тток и угостить. Таким приятным вниманием вы растопите сердце даже очень ворчливого и неприятливого соседа.

5. Самое сложное, если вам не повезло с шумными соседями и договориться по-хорошему не получается.

Корейцы как правило не проводят объяснительные беседы тет-а-тет с соседом(я думаю, из-за той самой пресловутой учтивости), а передают просьбу в виде жалоб через местные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или охранников. Если вы, соблюдая все 4 вышеуказанных пункта, оказались по соседству с теми, кто их полностью игнорирует, скорее всего, к сожалению,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добрые отношения с такими соседями не стоит.

Коронавирус внес изменения и в отношения соседей в Корее: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ного людей стали чаще, а то и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иться дома, школы почти не посещали в школу, весь день проводя дома,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согласно обзору корейских СМИ,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в Корее больше, чем в полтора раза(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9г.)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жалоб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органы и полицию на шумных соседей. Хотелось бы хвастануть, что меня обошла эта тема, но буквально пару месяцев назад впервые на моем 11-тилетнем опыте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е мы получили жалобу от соседки снизу на шум в нашей квартире.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хорошо, если соседи найдут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Однако,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ика, в период коронавируса взаимотношения с соседями могут накалиться и без особо веских причин. Поэтом, я считаю, очень важно каждому знать и соблюдать этику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의 이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그 관계가 상호 이해와 존중에 달려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좋은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믿는다. 한국에 왔을 때 비슷한 속담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돕고 의지하는 이웃'을 의미한다면 한국에서는 '불편(피해)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웃'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사실 한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처럼 이웃 간에 사소한 물품을 얻으려고 방문하거나 명절 때는 서로 축하도 하는 좋은 이웃 관계를 본 적이 없다. 대체로 한국인은 탁월한 예의가 특징이며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보다 한국의 좋은

이웃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라.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그냥 평화로운 이웃 관계를 넘어 진정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외국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1.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밤 9시 이후 정숙 모드

아파트에서는 실외 흡연과 올바른 쓰레기 처리, 애완동물 돌보기 등의 공공질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신 있게 말하자면 한국 주택의 재양은 방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작은 소음조차도 이웃의 신경에 거슬릴 수 있다. 따라서 밤에는 가전제품, 세탁기 사용, 청소, 악기 연주 등을 하지 말고 음악이나 TV를 조용히 듣는 것이 좋다. 보통 인터폰으로 공공질서의 규칙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어기면 이웃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2.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바닥을 두꺼운 특수매트로 덮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거실이나 복도 전체를 덮는 것이 좋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한번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고 아기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리로 이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필자는 우즈베키스탄 카펫 위에 퍼즐 매트와 세계지도 매트를 덮어(생활용품 상점 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더구나 아이들은 그 위에서 놀기도 잘 놀고 또 배우기도 했다.

3. 엘리베이터에서나 복도에서 이웃과 먼저 인사한다. 예를 들어, 한국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항상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도록 배운다. 자녀가 있다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모범이 된다. 바쁘거나 피곤하더라도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게다가 간단하지만 좋은 한국어 연습도 된다.

4. 요리를 잘하면 이웃을 대접할 수 있고 요리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떡 같은 음식을 사서 대접할 수 있다. 그런 유쾌한 관심으로 당신은 때로 매우 심심맞고 비우호적인 이웃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

(중략.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ทำไมได้ตรวจสอบ
ประกาศการคุ้มครองผู้
ฝากเงินหรือไม่?

ทำไมแค่ได้ยินคำ
อธิบายความสัมพันธ์
ระหว่างการประกัน
เงินฝากหรือไม่?

ระบบ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คืออะไร



เมื่อบริษัทการเงินไม่สามารถจ่ายเงินฝากของลูกค้าได้เนื่องจากประสบ
กิจการหรือล้มละลาย ฯลฯ เงินฝากคือระบบที่ปกป้องผู้ฝากเงินโดย
บริษัทประกันจ่ายเงินมัดจำแทนเงินฝาก

ระบบการแสดงอธิบายยืนยัน ความสัมพันธ์การ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

ระบบแสดงอธิบายยืนยันความสัมพันธ์การ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 ผลิตภัณฑ์ทาง
การเงินที่จำหน่ายโดยบริษัท การเงินประกันภัยคุ้มครองผู้ฝากเงิน
แสดงสิ่งต่างๆ เช่น ผู้ฝาก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หรือไม่และเงินที่คุ้มครอง
 ฯลฯ นี่คือ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การรายที่ไม่สมบูรณ์และเพื่อป้องกัน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ต่อ
ผู้บริโภค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ตรวจสอบ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มีการคุ้มครอง 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สำหรับ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มีการติดไว้ที่ที่สามารถเห็นได้อย่างชัดเจน
ว่าผู้ฝาก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หรือไม่



ค้นหา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มี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ค้นหา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ด้วย QR

ท่านสามารถค้นหา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อยู่ภายใต้การคุ้มครอง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ผ่านหน้าโฮมเพจบริษัท

<http://www.kdic.or.kr>

(โฮมเพจ → ระบบคุ้มครองผู้ฝาก → 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ป้องกัน → 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 → ค้นหา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ลองคำนวณจำนวนเงินคุ้มครองของตัวเอง

บริษัท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ช่วยให้คุณสามารถจำลองการ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และจำนวนการคุ้มครองได้โดยการ
เข้าสู่บริษัทการเงิน 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 และจำนวนธุรกรรมได้โดยตรง
"เครื่องคำนวณการจำลองจำนวนเงินที่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
สามารถดาวน์โหลดบนเว็บไซต์ (www.kdic.or.kr) ได้



ลองเชื่อมต่อกับ Life Finance Academy!

บริษัท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มี
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ศึกษาที่มีมูลค่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จำเป็นสำหรับชีวิตจริง
เช่น วิธีการจัด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ระบบ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และ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ทาง
การเงิน (มีหนังสือเรียน e-education พร้อมการฝึกอบรมนอกสถานที่)
สำหรับข้อมูลเพิ่มเติมโปรดดูเว็บไซต์ของ "Life Finance Academy" (edu.kdic.or.kr)
หากมีข้อสงสัยเพิ่มเติมสามารถติดต่อได้ที่เบอร์โท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 (02-2259-8956)



เช็กลิสต์บริษัท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

หากคุณมีคำถามเพิ่มเติมเกี่ยวกับระบบ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
โปรดติดต่อเบอร์โทรของบริษัท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1588-0037)



บริษัท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
30 ของกรมชองโนร ซูง โซล 04521

ข้อมูลนี้จัดทำขึ้นเมื่อเดือนตุลาคม 2020 เนื่องจากมี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ด้จากการแก้ไขกฎหมายและข้อบังคับที่เกี่ยวข้อง
นอกจากนี้เอกสารนี้ให้ข้อมูลเพื่อเสริมสร้างความเข้าใจเกี่ยวกับระบบ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
โปรดทราบว่านี่ไม่ใช่ใบรับประกันและไม่มีผลทางกฎหมายใดๆ



เอกสารอ้างอิงสำหรับผู้พำนักอาศัย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Korean | Thai

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 และดอกเบี้ย
(รวมถึงมูลค่าเวนคืนกรมธรรม์ กรณีเสียชีวิต)

สูงสุด 50 ล้านวอน

ต่อ 1 คน ต่อ 1 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



ยอดเงินส่วนเกินจาก
50 ล้านวอน
จะไม่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อ่านอีกครั้ง ก่อนสมัครผลิตภัณฑ์ด้านการเงิน!

- เป็น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หรือไม่
- ท่านได้รับฟังคำอธิบายเกี่ยวกับ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หรือไม่
- ท่านได้ลงนามยืนยันคำอธิบายหรือไม่

เงินฝากออมทรัพย์และสัญญาประกันของธนาคารพันธมิตรประกันภัยธนาคารออมสิน
-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ที่ไม่ใช่ธนาคาร 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จากสถาบัน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เกาห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พี่เขย, พี่สาว, 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 และสัญญาประกันภัยแบบกึ่งแบงก์ จะไม่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KDIC บริษัท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

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สถาบันทาง การเงินและ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ได้แก่ ธนาคาร, บริษัท
ประกันภัย, ตัวแทน โบรคเกอร์, ธนาคารเพื่อการพาณิชย์,
ธนาคารเพื่อการออม เป็นต้น

- ธนาค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มีสาข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และธนาคารเพื่อการเกษตรและสหกรณ์
เครดิตยูเนียน เป็น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เช่นกัน
- 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ด้วยกองทุนของตนเอง เช่น กลุ่มสหกรณ์การเกษตร
- ซูฮย็อม, เครดิตยูเนียน, สหกรณ์ออมทรัพย์ซัมฮย็อน, ที่ทำการประชานิยชิน
อยู่กับกฎหมายของแต่ละบุคคล

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ไม่ได้คุ้มครองทุก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

- เงินฝาก, เงินออม, ต้นฉบับ เงินทรัสต์ที่ถูกรักษาไว้ โดยหลักการแล้วจะคุ้มครอง
เพียงผลิตภัณฑ์การเงิน ที่รับประกัน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ต้นเมื่อถึงกำหนดเท่านั้น
- ไม่คุ้มครองสัญญาหลัก(ยกเว้น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ชั้นค่า)ของ ผลิตภัณฑ์การลงทุนทาง
การเงิน, ผลิตภัณฑ์ประเภทเงินมีผล, บริษัทหลักทรัพย์ CMA, ตลาดสาร
นี้โดยสิทธิ, ประกันภัยแบบกึ่งแบงก์ เป็นต้น
- ไม่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ที่ฝากโดยรัฐบาล-การปกครองส่วนท้องถิ่น
(รวมถึงโรงเรียนนานาชาติ-รัฐบาล)

ตัวอย่า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ของ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ไม่มี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บริษัทการเงินแห่งหนึ่งได้โฆษณาว่า "เป็นผลิตภัณฑ์ที่รับประกันเงินลงทุนไม่
มีทางสูญเสียตราไปทั่วประเทศไม่แจ้งไม่ก่อนด้วยการลงทุนในธุรกิจที่ยอดเยี่ยม
ลงทุนในหุ้นเอกชน แต่เหตุการณ์ขึ้น

ไม่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ที่ไม่ใช่สถาบัน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อาทิเช่น Bitcoin, Cryptocurrency, P2P เป็นต้น

คุ้มครองผู้ฝาก 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ถูกแอบอ้าง

Mr. L ถูกหลอกให้ลงทุนในผลิตภัณฑ์ A จากบริษัท R ซึ่งไม่ใช่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
ในงาน SNS และการนำเสนอการลงทุน โดยอ้างว่า "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
เงินต้น ผู้ฝากยังจะได้รับผลตอบแทนเป็นจำนวนเงินสูงถึง 50 ล้านวอนอีก
ด้วย", เช่นนี้จะไม่ได้รับเงินลงทุนคืน

受保护金融产品 & 不受保护金融产品



ประเภท	เกาหลี (สถาบัน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เกาหลี)	ไทย (สถาบัน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 ไทย)
วงเงิน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	50 ล้านวอน	5 ล้านบาท(THB) (ประมาณ 1.85ร้อยล้านวอน) เป็นแผนการคุ้มครองเงินคุ้มครองจำนวน 1 ล้านวอนต่อผู้ฝาก (11 สิงหาคม ปี 2021)
รายการ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 เงินฝากกระแสรายวัน (เงินฝากทั่วไป, เงินฝากสำหรับบริษัท, เงินฝากพิเศษ, เงินฝากที่มีเช็ค เป็นต้น) - เงินฝากออมทรัพย์ (เงินฝากประจำ, เงินฝากออมทรัพย์, เงินฝากเพื่อพักอาศัย เป็นต้น) - เงินฝากเงินตร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 - กองทรัสต์ที่คุ้มครองเงินต้น - เงินสมทบกองทุนบำเหน็จบำนาญเพื่อเกษียณอายุ หรือบัญชีเพื่อการเกษียณส่วนบุคคลที่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	- เงินฝากและดอกเบี้ยสกุลเงินบาทที่ฝากกับ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ที่ตั้ง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เงินฝากกระแสรายวัน, เงินฝากออมทรัพย์, เงินฝากประจำ, เงินฝากเงินตร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 บัตรเงินฝาก (CD) - ธุรกรรมที่มีสัญญาซื้อคืน (RP) - ผลิตภัณฑ์การลงทุนทางการเงิน (ไม่รวมถึงผู้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 กองทุนรวม, กองทุนตลาดเงิน เป็นต้น) - หุ้นกู้ธนาคาร	- เงินฝากสกุลเงินบาทที่ไม่ใช่เงินที่ฝากภายใ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ตร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จ่ายเงิน	ภายใน 7 วันทำการ	ภายใน 30 วัน

* อัตราแลกเปลี่ยน: วันที่ 5 ตุลาคม ปี 2020

เงินต้นของ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งินรวมกับดอกเบี้ยที่ระบุ

คุ้มครองสูงสุดถึง 50 ล้านวอนต่อคน,
จำนวนเงินส่วนเกินจาก
50 ล้านวอนจะไม่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 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ที่ระบุ หมายถึง 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ที่กำหนดโดย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ฝาก
เกาหลี ซึ่งพิจารณาจาก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เฉลี่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หนึ่งปี ของ
ของ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 เช่น 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และธนาคาร
- สัญญาประกัน ประกอบด้วย จำนวนเงินรวมของ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กับการคืน
เงินยกเลิกสัญญา (ประโยชน์หลังมรณาย)

ขอบเขต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ต่อคน ของแต่ละ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 จำนวนจากผลรวมของเงินฝาก 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กับ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ตัวอย่าง

Q กรณีธนาคาร A ล้มละลาย, จำนวนเงินคุ้มครองสำหรับผู้ฝากเงินคือเท่าไร? เมื่อมีเงินฝากสาขา (n) ธนาคาร A 40 ล้านวอนกับเงินฝากสาขา (x) ธนาคาร A 60 ล้านวอน?

A 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เพียง 50 ล้านวอน (จากยอดเงินรวมทั้งหมด 100 ล้านวอน) ของธนาคาร A เนื่องจากไม่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จากแต่ละสาขาของ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เดียวกัน

Q กรณีธนาคารเพื่อการออม B, C ล้มละลาย, จำนวนเงินคุ้มครองสำหรับผู้ฝากเงินคือเท่าไร? เงินฝากที่ธนาคาร B 70 ล้านวอนกับเงินฝากธนาคาร C 30 ล้านวอน?

A วงเงินคุ้มครองจะถูกนำไปใช้กับแต่ละ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 โดยจะ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ธนาคาร C 30 ล้านวอน และธนาคาร B 50 ล้านวอน (จากยอดรวม 70 ล้านวอน)



"푸드뱅크 사업, 외국인 주민 확대"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지난해 농수산물 7톤 후원

안산시(시장 윤화섭)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을 올해부터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올해 도매시장 푸드뱅크 사업의 문을 연 농협공관장(대표 안승환) 및 중도매인협의회는 떡국떡 50kg과 굴 50박스를, 대명수산(대표 이재삼)은 조기 등 수산물 50kg을 후원하면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신선한 농수산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장의 법인 및 중도매인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15년부터 틈틈이 농수산물 후원을 펼쳐온 푸드뱅크 사업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운영을 이어와 2020년 총 후원실적은 전년 대비 22%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이 7톤에 달했다.

그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시설에 지원해온 푸드뱅크 사업은 올해부터 외국인 주민도 포함하는 등 7개 복지시설로 지원의 폭을 넓힌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로 더 많은 후원과 수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모유수유로 우리 아기 건강하게

상록수보건소 비대면 모유수유교실 운영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수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모유수유교실을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임신 37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유부이며, 매달 둘째·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진행된다.

전날부터 시작된 교육은 10인 이하 소그룹으로 운영, 섬세하고 집중적으로 지도하던 기존 1대 1 대면교육 수준으로 추진한다.

교육은 ▲건강한 모유 ▲수유자세 및 방법 ▲유방관리 및 마사지방법으로 모유수유 성공에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또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모유수유에 대한 강의를 끝난 뒤에는 산전·산후 우울 자가진단과 교육도 가능하다.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

면 상담과 치료까지 연계가 가능한 마음건강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산모들의 교육이수와 산전·산후 우울 자가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가진단까지 이수한 산모에게는 소정의 증정품을 증정한다.

참여 희망자는 상록수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열린광장→교육신청을 통해 매 교육일 2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모유수유교실은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가 96%에 이를 만큼 많은 호평을 받았다"며 "비대면 운영으로 변경한 모유수유교실에 많은 다문화가정 임신부가 참여해 모유수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1-481-597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101. 시작이 반이다

대화-거실에서



안진숙

준기 : 처제, 올해 목표나 소원이 뭐야?

조이 : 성적 잘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싶어요.

메이 : 작년에도 공부 잘 했으니까 올해도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조이 :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한국도 여행하고 세계여행도 하고 싶어요.

준기 : 멋진 계획이네. 어디로 여행가고 싶어?

조이 : 봄에는 경주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국어 수업 때 많이 나온 도시라서 궁금해요.

준기 : 경주에 가면 한국 문화유산도 많이 볼 수 있고, 관광하기에도 참 좋은 도시야.

메이 : 혼자 갈 수 있어?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네.

조이 : 작년에도 유학생 모임에서 여행동아리를 만들자고 했어요. 올해 아마 많이 갈 거예요. 형부는 올해 멋진 계획이 있으세요?

준기 : 나는 대학원에 가서 MBA(경영학 석사학위) 과정을 공부할 계획이야.

조이 : 저희 학교에도 MBA 과정이 있던데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준기 : 맞아, 요즘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하면서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이 많아.

조이 : 그런데 낮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형부는 잘 해내실 거예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메이 : 그래도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니까 더 늦기 전에 하세요.

준기 :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두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나고 벌써 학교 입학한 것 같아.

조이 : 언니는 작년에 배우려고 하던 조리사 자격증 도전할 거야?

메이 : 당연하지, 우리 가족 모두 올해 큰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되겠네.

모두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해요.

해설

오늘 대화에 나온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은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말합니다. 늘 새로운 도전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표현 - 시작이 반이다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이르는 말

-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실제로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망설이지 말고 첫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올해도 여러분들에 많은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응원하는 사람들을 믿고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양한 일을 시작해 보세요. 성공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문화 - 경주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로 신라시대의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유물·유적이 보존된 거대한 야외 박물관으로 불린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다수의 고분과 왕릉, 수많은 국보와 보물들이 도시 전역에 있다. 관광지로 잘 개발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다문화가족, 능동적인 학습으로 자신과 자녀 교육문제 해결해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엄마학교, 은하수 인형극단 등 참가자 모집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 엄마학교 4기 신입생 모집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엄마학교 4기 신입생’을 오는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사진은 2019년 시흥다문화엄마학교 1기)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다문화 엄마들이 자녀교육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지도 활동을 지원해 초중등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과정으로 자녀들의 성공적인 대학진학과 취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올해는 초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사

회, 역사, 도덕, 실과 7개 과목으로 3월부터 7월까지 교육이 이뤄진다. 시흥지역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 대상이며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강의 및 평가시험이 진행된다. 출석 수업은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총 10회 운영된다.

온라인 수강에 필요한 태블릿 PC 및 교재를 제공하며 출석수업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 졸업 후 초등학교 자녀 가정학습지도 교육경비도 지급하며,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중3까지 수학, 영어 보충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해 준다.

다문화학교는 서류심사 후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자기소개서 및 자녀와 찍은 사진, 입학서약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tlgmd4522@shfc.kr) 또는 센터 전화(070-4149-5818)로 하면 된다.

#우리가 들어줄게요, 함께 나눠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거나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대상자를 위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상담은 개인 또는 가족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전문상담 서비스며, 아동상담은 학교, 유관기관 연계로 이동 제한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다.

무료법률 상담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1:1 서비스다.

전화(031-319-7997, 317-4516/내선 5번) 및 내방 접수 후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신청 받는다. 상담 비용은 무료지만 가족전문상담의 경우 무료 회기 이후 유료상담이 가능하다.


#다문화인식개선 ‘은하수 인형극단’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인식개선 ‘은하수 인형극단’을 운영한다.

‘은하수 인형극단’은 다문화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을 하며 인형극도 배우고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공연도 하게 된다. 공연 활동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2월부터 7월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활동 장소는 센터 3층 강당과 시흥시 전 지역이다.

김영의 기자

우리가 들어줄게요, 함께 나눠요.



"상담 프로그램 안내"

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거나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대상자를 위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상담

개인 또는 가족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전문상담 서비스

이동상담

학교, 유관기관 연계로 이동제한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무료법률 상담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1:1 서비스

운영방법

접수방법 전화및내방접수 > 사전예약 > 상담실시

지원대상 시흥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상시접수

이용시간 프로그램별 진행시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전화 접수 필수


상담비용 무료(단, 가족전문상담의 경우 무료회기 이후 유료상담가능) ✓

문의 ☎ 031)319-7997, 317-4516(내선 5번) 가족상담팀


※ 한국어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경우 통역지원도 가능합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 엄마학교 4기 신입생 모집



더 이상 자녀교육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다문화 엄마학교 교육과정 개요 ♥

- 교육내용 : 초등학교 7개과목(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실과)
- 교육기간 : 2021년 3월~ 2021년 7월
- 교육장소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모집인원 : 시흥지역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

<교육형태> ♥

- 원격교육 : 온라인(<http://school.hanmaum-ec.org>) 상에서 강의 및 평가시험
- 출석수업 : 격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총 10회

<혜택> ♥

- 온라인 수강에 필요한 태블릿 PC 및 교재제공(50만원 상당)
- 출석수업 교통비 지급 (총20만원)
- 졸업 후, 초등학교 자녀 가정학습지도 교육경비 지급(총30만원)
-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중3까지 수학/영어 보충교육 및 멘토링제공

■ 다문화 엄마학교 주요 일정 안내 ♥

- 입학 절차 : 서류심사 → 면접 (한국어 test포함)→ 최종합격자 발표
- 입학 면접 : 추후공지
- 입학식 및 설명회 : 추후공지

■ 다문화 엄마학교 신청안내 ♥



- 신청일정 : 2021년 2월 1일(월) ~ 2021년 2월 23일 (화) 오후 6시 마감


<신청 방법> ♥

- ① 자기소개서 및 자녀와 찍은 사진
- ② 입학서약서
- ③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ex)한국어 토픽

<문의> ♥

- tlgmd4522@shfc.kr (메일발송) / 070-4149-5818 (담당자 박은경)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될 지역사회 정보 골라 모았어요"

시흥시, 영양플러스사업, 병가소득손실보상금 등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는 다문화가족 등 시흥시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눈여겨보고 잘 챙겨두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

#비대면 채용박람회로 취업고민 해결

취업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월 17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화상면접실에서 개최하는 '2월 럭키데이 비대면 채용박람회'를 이용해보자.

채용박람회에는 구인기업 5개 사 내외가 참가할 예정이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전 이력서 제출 후 면접대상자로 통보받으면 일정에 맞춰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실시간 비대면 면접 ▲VR기기 체험(면접 예행 연습) ▲이력서

컨설팅 ▲일자리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시 올해 채용박람회는 매월 5개~1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럭키데이 채용박람회'와 15개~3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청년층 맞춤형 취업박람회로 '산업기능용원(보충역) 채용박람회', 'GTEC 시흥.안산 지역 청년 취업박람회', 경력단절 여성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흥시 취업박람회' 등이 예정돼 있다.

기타 상세정보는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시흥시는 2월 26일까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을 위해 사전 전화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미만(직장가입자 4인 기준 134,046원)으로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영양교육과 매월 2회 우유, 쌀, 검정콩, 감자 등 보충식품이 지원되며, 6개월 후에는 자격 재평가를 실시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한 달에 한 번 필수 교육인 영양교육은 온라인 육아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개개인의 영양 관리를 위해 화상상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전화 접수자에만 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시범사업 대상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은 방문 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대상자별 구비 서류를 갖추어 안내받은 해당 시간에 보건소(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 시에는 소독제 구비, 발열체크 등 개인 건강도 세심히 챙길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건강도시과(031-310-5842)로 하면 된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시흥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해야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의 보상비와 진료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3만원을 선불카드도 지급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20년 12월 25일 이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2월 15일부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이메일/우편)를 권하며,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일자리기획팀(031-310-6242)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新たに導入される出入国政策情報 출국명령이행보증금 도입

전자여행허가제 등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국정책

電子旅行許可制導入

外国人観光客の迅速簡便な入国を支援し、未登録滞在を遮断する電子旅行許可制(ETA)が導入される。

法務部は韓国に査證(ビザ)なしで入国する外国人に、公共秩序維持や國家利益に必要なとみなされた場合、事前に電子旅行許可を判断することにした。電子旅行許可が必要となる外国人は入国申告書提出が免除され、専用審査台で本人確認などを行った後に入国が可能となる。

法務部はこの間外國との人的交流拡大と觀光客誘致などのために、無査證入国對象を拡大してきた。その結果、2018年の無査證入国者は外国

人入国者全体の53%を占めていた。しかし無査證入国外国人が未登録滞在外国人の54.1%まで増加しており、入国審査インタビューの強化や長時間空港での待機後に未登録滞滞在が疑われ、本国に帰るケースが増えている。そのため新制度導入に踏み切ると法務部は説明する。対象国家は査證免除協定国家66ヶ国、無査證入国指定国家46ヶ国など。

法務部は来年の電子旅行許可制施行を目標にシステム開発など、準備を進める計画とした。

出入国命令履行保証金導入

出入国事犯制度も改善される。出

入国事犯の犯則金をクレジットカードやチェックカードでも支払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れまでは犯則金納付は現金のみで、外国人住民は急に現金を準備しなくてはならない煩わしさが大きかったが、クレジットカードなどでの納付が可能となる。

また1月21日から出入国事犯に対する出入国命令履行保証金制度が施行された。履行保証金制度導入は保護施設入所をなくし、身の回りを整理する時間を確保するなど、外国人住民にとって制度改善となった。

以前は未登録外国人住民が急に法務部の取り調べにより本国に帰ら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と、荷物をまと

める準備時間もなく、保護施設に移送され待機後に強制出国していた。

今後は履行保証金を納付すれば傳月貫などの保証金の返還など、出国するまでに身の回りの整理を行う時間を持つことになった。もし法務部が定めた期間までに出国すると保証金全部を返還される。

出入国・外国人官署の長は、出国措置対象外国人に最大2千万ウォン以下の履行保証金を納める条件で出入国命令下す。もし違反すれば保証金全部または一部が國庫に帰属することとなる。

<한글 기사 1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Защит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Корее 한국의 환경 보호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작은 실천 ... 외국인주민도 예외일 수 없어요

Стремите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постоянные инновации не могли не сказаться на состоянии нашей планеты. Человечество непрестанно и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потребляло и потребляет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и только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лет, когда проблемы становятся заметны даже невооруженному глазу, экологи бьют тревогу и призывают людей к рациональному потреблению. В свете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количество мусора увеличилось в разы: одноразовые маски, перчатки, бахилы, посуда, - все это не успевает утилизироваться и тоннами продолжает храниться, загрязняя почву и воды.<사진=불타는 숲, 그린피스 한국 홈페이지>

Я задалась вопросом, что же можем сделать мы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ланеты Земл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ядового жителя?

1. Рациональное потребление. Тканевая сумка вместо магазинных пакетов, многоразовый тумблер вместо одноразовых стаканов, покупка только необходимых вещей, продуктов и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эконом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ды, газ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это лишь часть того, что мы можем прямо сейчас не прилагая особых усилий сделать для нашей родной планеты. А также

2. Повтор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Люди создают предметы искусства из старых велосипедов, ремонтируют сломанные оправы для очков и раздают нуждающимся, перешивают потрепанные вещи в ковры ручной работы, но совсем необязательно так глобально подходить к данному процессу. Можно, например, использовать обратную сторону ненуж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печати, сделать из консервной банки вазочку или подставку для канцелярски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ей, а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зубной щеткой прочищать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е места в раковине. Отдавайте ненужные вещи, косметику близким и знакомым. Если поискать в Интернете варианты повтор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зличных предметов, вы с удивлением обнаружите массу

у полезных советов.

3. Правильная сортировка мусора. Однажды все же наступает момент прощания с вещью, на этом этапе очень важно правильно ее утилизировать. Сортировка мусора по установленным правилам позволяет сэкономить время, энергию и ресурсы, затрачиваемые при его переработке.

4. Сокращение загряз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Здесь вариантов тоже масса: самые простые из н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место собственной машины (предотвращает выделение выхлопных газов и загрязнение воздуха); умерен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тирального порошка, средства для мытья посуды, шампуня для волос? все смываемые средства неизбежно попадают в сточные воды и почву; отказ от полиэтиленовых пакетов и сокращение потребления пластика? все мы знаем, что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пакеты не подвергаются би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ложению, убивают миллионы птиц, рыб и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5. Покупка качественных вещей. Если разделить стоимость более дорогого и качественного предмета на количество ра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ожно легко вычислить, что это гораздо более выгодн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чем покупка десятка более дешевых и некачественных аналогов.

6. Покупка оптом?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это экономит количество упаковок. Покупка на разлив? сейчас в некоторы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установили аппараты по розливу средств для стирки и мытья посуды, в которых покупатели могут наполнить необходимым свои ёмкости. Покупая "на разлив" тем самым можно сэкономить 30% и более от стоимости товара в упаковк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ред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покупка данным способом обретает всё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Многие машут руками, мол, что от меня одного польза, это все так сложно!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существует очень

много простейших способов помочь планете дожить до поколения наших правнуков: выключать компьютер на ночь, сменить лампы на флюоресцентные, выключать воду, пока мыливаете посуду или чистите зу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меньше бумажных салфеток, посадить дерев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не только лично соблюдать эти простые правила, но и делиться знаниями с детьми и близкими, тем самым повышая их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сознанность.

Быстрый темп и 끊임lessly 혁신은 지구 생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류는 지속적으로 제한 없이 천연자원을 이용해 소비하고 있어서 육안으로도 문제가 눈에 띄게 된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운동가들은 경보를 울리고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유행으로 쓰레기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접시 등은 분해되는 시간은 수십~수백년이 걸리는데 계속해서 톤 단위로 쌓여 토양과 물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필자는 평범한 주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1.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쇼핑백 대신 횡걸 가방, 일회용 컵 대신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 식료품 및 가정용품 등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물, 가스, 전기의 경제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지구를 위해 우리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의 일부이다.

2. 재활용한다. 사람들은 오래된 자전거로 예술품을 만들고, 깨진 안경테를 수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낡은 옷으로 수제 카펫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문서의 뒷면을 인쇄용으로 사용하거나 깡통으로 꽃병이나 연필꽂이 등을 만들거나 사용한 칫솔로 싱크대에서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을 닦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친척과 친구에게 불필요한 물건, 화장품 등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에서 재활용을 검색하면 다양한 항목에 대한 유용한 팁을 많이 찾을 수 있다.

3.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

언젠가는 어떤 물건이랑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 온다. 이제는 이 물건을 적절하게 폐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시간,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4.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 우리도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배기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 방지)하고 세제, 샴푸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모든 헹굼 된 제품은 불가피하게 폐수와 토양에 남게 되어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비닐 봉투를 피하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한다. 알다시피 비닐 봉투는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버려진 비닐 봉투는 수백만 마리의 새, 어류 및 해양 포유류를 위협하고 있다.

5. 좋은 품질의 옷을 구매한다.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옷을 여러 개 구입하는 것 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옷을 구매하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6. 대량으로 구매한다.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포장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리필제품(탭)을 구매한다. 일부 슈퍼마켓에는 세제, 주방 세제 및 샴푸 등 디스펜서(Eco Refill Station)가 있다. 구매자가 용기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어 리필제품을 구매하면 포장된 상품 비용의 3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나 혼자서 무슨 소용이 있어? 너무 어려워요!”라고 말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증손자 세대까지 지구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밤에는 컴퓨터를 끄고, 램프를 형광등으로 바꾸고, 설거지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는 물을 절약하고, 휴지나 냅킨을 아껴 쓰고, 끝으로 나무 심기를 지속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단한 규칙을 개인적으로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여 환경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住居環境の改善を望む多文化家族、今年 は買入賃貸住宅に挑戦してみても 歴代最大4万5000号…多文化家族住居安定 に期待 국토교통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政府は2021年には青年、新婚夫婦、高齢者など、低所得層の住居安定のための買入賃貸住宅4万5000世帯を買入・供給する計画を明らかにした。買入賃貸住宅は多文化家族などの住居安定にも好影響を及ぼすと期待される。

今年目標4万5000世帯は、昨年の買入賃貸住宅供給実績の2万8000世帯対比60%以上増加し、2004年買入賃貸住宅事業スタート以来の最大規模だ。

買入賃貸住宅は韓国土地住宅公社など、公共住宅事業者が既存住宅などを購入し、改・補修またはリモデリング後、入居者に廉価で賃貸する住宅だ。

今年目標は ▲新築買入れ約定 ▲公共リモデリング ▲既存住宅買入れ方式で確保する計画。

新築買入約定は前年対比75%増加の2万1000世帯を供給する計画。民間事業者が建築(または建築予定)する住宅を、公共住宅事業者が竣工後に買入れることを事前に約定契約する方式だ。

3~4人以上の世帯も居住することができる新築中型住宅(60~85㎡)の供給拡大のために、買入れ約定である程度以上の住宅を供給した事業者に、公共宅地優先供給・加算インセンティブを提供する。また事業者の負担緩和のために特約保証を新設する計画だ。

公共リモデリングは8000世帯を供給する計画だ。住宅容積率を超過する観光ホテルなどは、この間住宅と容積率の差で用途変更が不可能であったが、政府は今年2分期から公共リモデリング住宅として供給できるよう法令改定を推進している。

既存住宅買入れは1万6000世帯を供給する計画だ。認許可官庁で竣工許可を受けた住宅を公共住宅事業者が買入れ、壁紙や床の張り替えなどの補修後に低所得層に供給する方法で、迅速な供給が可

能だ。買入賃貸住宅は無住宅者に供給し、所得基準(前年度都市勤労者世帯あたり月平均所得)と資産基準などを考慮して供給する。

今年の買入れ賃貸住宅供給の特徴は ▲新婚Ⅱタイプ4順位新設、▲1~2人世帯所得基準緩和 ▲子どもの多い世帯認定範囲拡大 ▲高齢者無制限再契約可能などだ。

所得基準が高い新婚Ⅱタイプは婚姻後7年が過ぎているが子どもがいない婚姻夫婦、または所得・資産基準により申し込めなかった婚姻夫婦などのために入居条件を大幅緩和した4順位を新設した。

1・2人世帯所得基準も緩和され、子どもの多い世帯認定範囲は拡大された。高齢者は無制限で再契約が可能となった。

4順位は月平均所得120%(共働きは140%)以下ならば総資産3億300万ウォン以下ならば申し込み可能だ。

新婚夫婦買入れ賃貸はⅠタイプ1万号、Ⅱタイプは5000号が供給され、子どもの多いタイプは1500号、一般は1万3000号、高齢者は1000号の買入れ賃貸が供給される予定だ。

京畿道の場合、京畿住宅都市公社を通じて既存住宅買入れ賃貸予備入居者1次募集が始まった。

受付期間は2月22日から26日まで。廣州、九里、金浦、南楊州、東豆川、富川、水原、驪州、烏山、龍仁、議政府、坡州、始興、平澤、華城などの15市郡の買入れ賃貸住宅を対象とする。

入居を希望する多文化家族は、住民登録が記載された居住地の行政福祉センター(住民センター、邑面洞事務所)にて申し込むこと。京畿住宅都市公社は同期間に傳賃賃貸住宅も募集している。

問い合わせ : 1588-0466

<한글 기사 11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Ттоккук / 떡국



В этой статье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с Вами рецептом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супа Ттоккук. Ттоккук,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означает суп с ттокком. Суп на основе мясного бульона, с добавлением белого ттока и корейских соусов. Ттоккук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даётся на стол в новый и старый новый год, т.е. считается символом нового года. Считается что этот суп благодаря добавлению в него белого тток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чистоту и притягивает удачу тому кто его ест. Одни считают, что съев тарелку ттоккук в новый год люди становятся на год старше, другие же считают что после этой трапезы они продлевают свою жизнь ещё на год.

До начала 20 века ттоккук подава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новый год, н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его готовят и едят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да.

Это по настоящему вкусный суп, рецептов которого не мало. Но сегодня я поделюсь с Вами моим любимым способом приготовления ттоккук.

Ингредиенты:

Говядина - 400гр

Тток - 400гр

Манду - 8шт

Соевый соус - 3ст.ложки

Чеснок - 1 зубчик

Соль 1/2 ст.ложки

Вода - 2 литра

Масло растительное - 3ст.ложки

Масло кунжутное - 1ст.ложка

Для украшения:

Яйца - 2шт

Измельчённый ким - 1ст.ложка

Зелёный лук - 80гр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Тток промыть и замочить в холодной воде на 20 минут.

Отделить желтки от белков и из них пожарить два блина. После остывания скрутить из яичных блинов трубочки и нарезать полосками. Нарезать зелёный лук и измельчить ким. Это будет украшение для нашего супа.

Добавить в кастрюлю растительное и кунжутное масло и обжарить мясо в течение 2 минут. Затем к мясу добавить 200мл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воды, соевый соус и соль. Варить на среднем огне 20 минут. Спустя 20 минут добавляем оставшуюся воду и ждём закипания. После закипания добавляем тток, манду и измельчённый чеснок. После закипания варим 4~5 минут.

Ароматный и вкусный ттоккук готов. Выкладываем суп в тарелку, сверху украшаем яйцами, зелёным луком и измельчённым кимом.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2021년 신축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국의 설날 대표 음식, 떡국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떡국을 먹어야 1살을 더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떡국을 먹고 싶지 않아 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사실 처음에는 떡국의 맛을 잘 알지 못했지만, 직접 만들어 먹어 본 이후 굉장히 자주 떡국을 요리해 먹고 있습니다. 동네 떡집에 가서 재미있는 떡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어렵지 않고 아주 맛있는 떡국 만들기, 다 같이 해볼까요?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 早产儿及先天异常儿童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8) 正往保健分所(031-310-5941)

- 支援对象
 - 收入水平在全国家庭月平均收入180%以下的早产儿家庭
 - 二胎以上早产或先天异常的情况(无收入水平限制均予以支援)
- 支援内容
 - 引导支援对象接受适当的早产儿或先天异常的医疗服务
 - 早产儿及先天异常儿童的登记管理
 - 按照收入确定分级支援
- 申请方法 : 准备好相关材料在出院后6个月以内前往新生儿居民登录所在地所籍保健所申请
- 提交材料
 - 早产儿先天异常婴儿医疗费支援申请书(保健所配备)
 - 诊疗费发票原件及诊疗费明细单各一份
 - 汇款账户存折复印件1份
 - 出生报告(出生证明)复印件1份
 - 包含疾病名称的断书原件1份(早产儿也须提供)
 - 夫妻居民登录地址不同时须提交家庭关系证明
 - 夫妻身份证(本人无法前来的须带本人印章)已分娩的产妇(※100%预约制)

□ 先天代谢异常检查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8) 正往保健分所(031-310-5941)

- 支援对象 : 辖区内所有新生儿(出生后3~7天之内实施新生儿检查)
- 支援内容
 - (检查项目) 苯丙酮尿症、甲状腺机能低下症、高胱氨酸尿、枫糖尿症、半乳糖血症、先天性肾上腺皮质增生症
 - (1期检查费) 22~41千元中本人负担部分(支援范围仅限6个月以内检查时)
 - 2期精密检查, 先天性代谢异常疾病确诊的患儿, 可向保健所申请检查费支援, 70千元左右
- 提交材料
 - 申请书
 - 诊疗费发票
 - 诊疗费明细(显示金额)
 - 存折复印件
 - 申请确诊检查费支援时须提交断书(须在新生儿出生后1年内提交)

□ 国民幸福卡支援

保健福祉部客服中心(无区号直播129) 社会服务呼叫中心(收费) 1566-3232

- 支援对象 : 持有妊娠证明并加入国家医疗保险者或被抚养人中申请孕产诊疗费者
- 支援内容
 - 由国家提供的支援孕产费用的代金券
 - 向青少年产妇提供孕产医疗费支援(向未满18周岁的青少年产妇每怀孕1次提供120万元以下支援)
 - 医疗保险孕产医疗费支援
 - 产妇和新生儿的健康管理支援
- 申请方法 : 在国民幸福卡办卡公司申请(BC卡, 乐天卡, 三星卡)



□ 先天性代谢异常患儿管理

始兴市保健所(031-310-5838) 正往保健分所(031-310-5938)

- 支援对象
 - 先天性代谢异常疾病确诊患者
 - 经确认需要特殊配方奶粉等医疗支援的未满19岁患儿
- 支援内容

特殊配方奶粉、低蛋白食品支援	医疗费用(含医药费)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向需要特殊配方奶粉及低蛋白食品的茶丙酮尿症等先天性代谢异常患儿提供支援 ■ 根据患儿的特点及摄入量, 考虑个人差异的因素, 参考医生处方及意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天性甲状腺机能低下症患儿: 支付该年度诊疗费(含上一年度欠费), 限276千元范围内 ■ 以先天性代谢异常确诊后在保健所登记(支援申请)的时间为准提供支援, 申请时间之前不享受支援 ■ 针对罕见疑难疾病中克隆氏症及短肠综合征患儿提供特殊食品支援

- 提交材料
 - 申请书
 - 医生诊断书
 - 发票原件(申请之日起1年以内的医疗费发票)
 - 存折复印件
 - 家庭关系证明(夫妇住址不同时)



□ 维护母性育儿支援

雇佣劳动部客服中心(无区号直播1350)

- 支援对象 : 产前后休假(包括流产·死胎分娩休假)、使用育儿假及育儿期缩短劳动时间的劳动者
- 支援内容
 - (产前后休假工资) 产前后休假期间工资按照正常工资的100%全额支付

单胞胎	优先支援对象企业90天提供540万元以下支援, 大型企业30天提供180万元以下支援
多胞胎	优先支援对象企业120天提供720万元以下支援, 大型企业45天提供180万元以下支援
支付下限	劳动者的正常工资(但正常工资低于最低工资时按最低工资)支付

- (育儿假工资)
 - √ 育儿假自起始日起的3个月内按照正常工资的80%提供支援(上限额150万元, 下限额70万元)
 - √ 育儿假第4个月~育儿假结束日为止按正常工资的40%提供支援(上限额100万元, 下限额50万元)
 - √ 针对同一子女, 父母按顺序休育儿假时, 后休育儿假的父或母育儿假3个月工资按照正常工资的100%全额支援(上限250万元)
- (育儿期缩短劳动时间的工资)
 - √ 正常工资的80%(上限额150万元) × (缩短前的规定劳动时间 - 缩短后的实际劳动时间) / 缩短前的规定劳动时间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 高危孕产妇医疗支援

保健政策科地区保健组(031-310-5837) 正往保健分所(031-310-5941)

- 支援对象 : 19大高危妊娠疾病确诊并接受住院治疗的孕产妇
- ※ 19大高危妊娠疾病 : 早期阵痛, 早期羊膜破裂, 分娩相关出血, 重度妊娠中毒症, 胎盘早期剥离, 胎盘前置, 急性流产, 羊水过多, 羊水过少, 产前出血, 子宫颈管无力症, 高血压, 多胎妊娠, 糖尿病, 代谢障碍伴有妊娠剧吐, 肾病, 心力衰竭, 宫内生长限制, 子宫及子宫附件疾病
- 筛选标准 : 国民基础生活保障家庭及潜在贫困家庭, 以医保本人负担金额为准, 参考家庭成员人数标准, 中等收入180%以下的家庭可获支援
- 申请时间 : 分娩之日起6个月内
- 支援内容 : 高危产妇入院治疗费中本人负担部分的全额, 及无工资诊疗费的90%

□ 能源抵用券

能源抵用券呼叫中心(1600-3190)

- 支援对象
 - 生活补助领取者及医疗补助领取者
 - 居民登记的家庭成员中有老人、婴幼儿、残疾人、孕产妇、重大疾病患者、罕见疑难病患者时
- 筛选标准
 - 老人 : 65周岁以上
 - 残疾人 : 按照残疾人福利法登记的残疾人
 - 婴幼儿 : 6周岁以下
 - 孕产妇 : 依据母子保健法正在孕期的孕产妇或产后6个月内的产妇
 - 重大疾病患者 : 国民医疗保险法实施令中所规定的重大疾病患者
 - 罕见疑难病患者 : 国民医疗保险法实施令中所规定的罕见疑难病患者
- 支援内容
 - 提供冬季(11月~5月)期间能够用来购买电、煤气、蜂窝煤、煤油等的综合电子抵用券
 - 电子抵用券由借记卡、信用卡、专用卡的实物卡形式和用来抵消费用的虚拟卡构成



□ 领养考虑期母子支援项目

儿童保育科梦想开始组(031-310-3179)

- 支援对象 : 在支援期内尚未达成领养事实的预产或产后未婚/离婚的单亲家庭提供支援
- 筛选标准
 - 处在非婚姻关系期内的生育(预产期)前40天
 - 或产后7天以内婚姻关系证明上显示非婚关系者
- 支援内容
 - (50万元) 提供1周的产后上门服务(包括儿童生活必需品费用)
 - (35万元) 希望得到家人或者朋友的帮助时提供一周支援
 - (40万元) 入住未婚母亲家庭救助站时, 支援一周的产后服务人工费
 - (70万元以下) 支援产后调理院1周的费用(包括儿童生活必需品费用及产妇食品费用等)
 - ※ 1周费用不到70万元时, 按实际费用支援

□ 无社保人员生育津贴支援

雇佣劳动部客服中心(无区号直播1350)

- 支援对象 : 虽然有收入但无社保, 无法享受“产前后休假工资”支援的产妇(包括流产, 死胎分娩情况)
- 支援内容
 - 生育津贴 : 共150万元(月50万元×3个月)
 - 流产、死胎分娩时根据孕周长短, 津贴标准和支付次数有所不同

孕周	孕周15周为止	6~21周	22~27周	28周以上
支援金额	30万元	50万元	100万元	150万元

- 申请时间 : 分娩日 ~ 分娩日起1年以内(※在此期间未提交申请将无法享受支援)
- 申请方法 : 到访申请, 邮寄, 网上(本人或单位所在地所籍雇佣中心)
- 支援审批/支付 : 申请受理后14日内将通知支援(不支援)的审批结果/汇款到本人存折
- 申请方法 : 登录雇佣保险网站(www.ei.go.kr)加入会员后申请, 或就近前往雇佣中心申请



□ 多子女家庭减免支援

负责部门

减免项目	对象	减免内容	申请时间及方法	负责部门
电费	■家有2016.12.1.后出生未满1年子女的家庭 ■3名以上子女家庭 ■家庭成员在5名以上的家庭	申请日所属月份起1年内, 每月减免30%(限16千元内)	随时及出生后1年以内(电话传真申请)	韩国电力公社(无区号直拨123)
煤气费	■有3名以上18岁以下子女的家庭	做饭·取暖使用金额(冬季6,000元/月, 其他1,650元/月)	三千里都市煤气及各洞行政福利中心(电话或前往)	三千里都市煤气(1544-3002)
汽车购置·登记税	■有3名以上18岁以下子女的家庭	2021年为止购买, 限1台汽车的购置税全免(购买符合定员标准的车辆时)	车管所(前往)	征收科 车辆税务组(310-5152)
保健所诊疗费、手续费等	■有3名以上未满15周岁子女的家庭	全免	随时	保健政策科(310-5817)
上·下自来水费	■有3名以上未满15周岁子女的家庭	当月水费中减免10m ³ 的费用	随时	自来水科(310-6113)
公营停车场停车费	■有3名以上未满15周岁子女的家庭	公营停车场2小时免费, 超出2小时减免50%	持有京畿I-plus卡的车辆	始兴都市公共交通项目组(488-6877)
教育及服务费	■有3名以上未满15周岁子女的家庭	服务费及手续费等全免或减免50%(事先请咨询相应机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各洞居民自治中心 ■女性资源中心 ■始兴ABC幸福学习城 ■体育设施 ■终身教育中心 	终身(310-2513) 女性(310-6003) ABC(310-2063) 体育(310-2145)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차별 없는 돌봄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 시흥시 직영, 다문화지역 특수성 반영한 미래인재양성

시흥시(시장 임병택) 최초 직영 지역아동센터인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정왕동 봉우재로37번길 17, 3층)가 지난 9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협약 및 운영위원회 위촉장 전달 등을 진행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동 돌봄의 보편성과 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의 90% 이상이 개인이나 민간기관이다. 시흥시 최초 공립형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시흥시가 돌봄의 공적 책무를 실천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라며 “무엇보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돌

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시흥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사회적기업 애프엔제이와 요리체험키트 및 아동들의 생일선물꾸러미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리타와의 협약식이 함께 진행됐다. 백명자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장은 “다문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도적인 운영모델 창출과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주도적인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함(께) 특별장학생 신청해요 다문화가족 등 시흥시민 대상

초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다함(께) 특별장학생’에 신청해보자.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사장 임병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다함(께) 특별 장학생’ 1,000명을 선발 모집한다.

2021년 ‘다함(께) 특별장학생’ 모집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생’ 선발에 이은 긴급지원이다.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기존 200여 명 수준의 정규장학생과 비교해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1인당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번 장학금은 과거 지역사회를 위해 불의에 대항한 ‘한반위(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활동가 또는 자녀를 지원한다는 목적도 담았다.

접수 기간은 2월 25일(목)까지이며, 신청 및 서류 제출은 우편 접수(등기)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로,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 또는 대학생이 대상이다. 더불어, 재단은 오는 3월 중에 기존 정규 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특별장학생 선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31-311-6590

김영의 기자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ที่มี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ความเป็นอยู่ที่ไม่ดี - ทำทายให้ย้ายไปอยู่บ้านเช่าที่ซื้อในปี

รัฐบาล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จัดซื้อและ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อไว้ 45,000 ยูนิตรในปีเพื่อสร้างเสถียรภาพที่อยู่อาศัย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อาทิเช่นคนคู่หนุ่มสาวและผู้สูงอายุ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อคาดว่าจะช่วยสร้างเสถียรภาพที่อยู่อาศัยสำหรับ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เป้าหมายปีที่ 45,000ครัวเรือนเพิ่มขึ้นมากกว่า60%เมื่อเทียบกับ28,000ครัวเรือนในอุปทาน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อเมื่อปีที่แล้วและถือเป็นจำนวนที่ใหญ่ที่สุดนับตั้งแต่เริ่มต้นธุรกิจ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อในปี2547

ชื่อ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ที่ธุรกิจอยู่อาศั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ช่นเกาหลีที่ดินและที่อยู่อาศัยคอร์ปอเรชั่นชื่อและปรับปรุงบูรณะหรือสร้างบ้านที่มีอยู่แล้วเช่าได้ในราคาต่ำไปยังผู้เช่าหรือสร้างบ้านที่มีอยู่แล้วให้เช่าในราคาต่ำให้กับผู้เช่าปริมาณเป้าหมายสำหรับปีนี้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ผ่าน ▲สัญญาซื้อขายก่อสร้างใหม่ ▲เปลี่ยนแปลงประชาชน ▲วิธีการซื้อที่อยู่อาศัยที่มีอยู่สัญญาการซื้อการก่อสร้างฉบับใหม่มีแผนจะจัดหาครัวเรือน21,000 คนเพิ่มขึ้น75% จากปีก่อน หน้านี้เป็นวิธีการทำสัญญาก่อนที่จะเสร็จสมบูรณ์เพื่อซื้อบ้านที่สร้าง (หรือวางแผนที่จะสร้าง) โดย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วนตัวหลัง

จากที่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ธุรกิจที่อยู่อาศัยสาธารณะแล้วเสร็จใหม่ (60-85m²) ที่สามารถรองรับได้3-4 คนในครัวเรือนหรือมากกว่านั้นบริษัทได้ให้แรงจูงใจในการ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ที่มีลำดับความสำคัญและจุดที่อยู่อาศัยสาธารณะเพิ่มเติมให้กับ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ที่จัดหามากกว่าที่อยู่อาศัยจำนวนหนึ่งผ่านข้อตกลง การซื้อ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สร้างหลักประกันสัญญาพิเศษ

ใหม่ แผ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สาธารณะเพื่อจัดหาครัวเรือน8,000 ครัวเรือนอัตราส่วนพื้นที่ที่อยู่อาศัยโรงแรมท่องเที่ยวที่เกินขีดจำกัดไม่สามารถนำกลับมาใช้ใหม่ได้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อัตราส่วน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พื้นที่ชั้นใต้ดินมูลค่าส่งผลกระทบต่อโครงการ

ไขกฎหมาย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จัดหาเป็นบ้านที่ปรับปรุงใหม่ได้ตั้งแต่ไตรมาสที่สองของปีนี้

การซื้อบ้านที่มีอยู่มีแผนจะจัดหา16,000ครัวเรือนการจัดหาที่รวดเร็วเป็นไปได้โดยการซื้อบ้านที่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จากหน่วย

งานออกใบอนุญาตและส่งมอบให้กับกลุ่ม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หลังการซ่อมแซมเช่นเอกสารและวัสดุพื้น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ชื่อมา

จะถูกจัดหาให้กับคนไร้บ้านและได้รับการจัดเตรียมโดยคำนึงถึงมาตรฐานรายได้(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เดือนต่อครัวเรือ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ในเมืองในปีที่แล้ว) และมาตรฐานสินทรัพย์ลักษณะของการ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อในปีนี้คือ ▲แต่งงานใหม่|ประเภท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ลำดับที่ 4 ▲ผ่อนคลายมาต ฐานรายได้ 1-2 คน ▲ขยายขอบเขตการรับรู้สำ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ไม่จำกัดจำนวนผู้สูงอายุสามารถต่ออายุสัญญาได้

สำหรับคู่บ่าวสาวประเภทIIที่มีมาตรฐานรายได้สูงลำดับที่4ได้รับการกำหนดขึ้นใหม่ซึ่งช่วยลดข้อกำหนดในการเข้าพักส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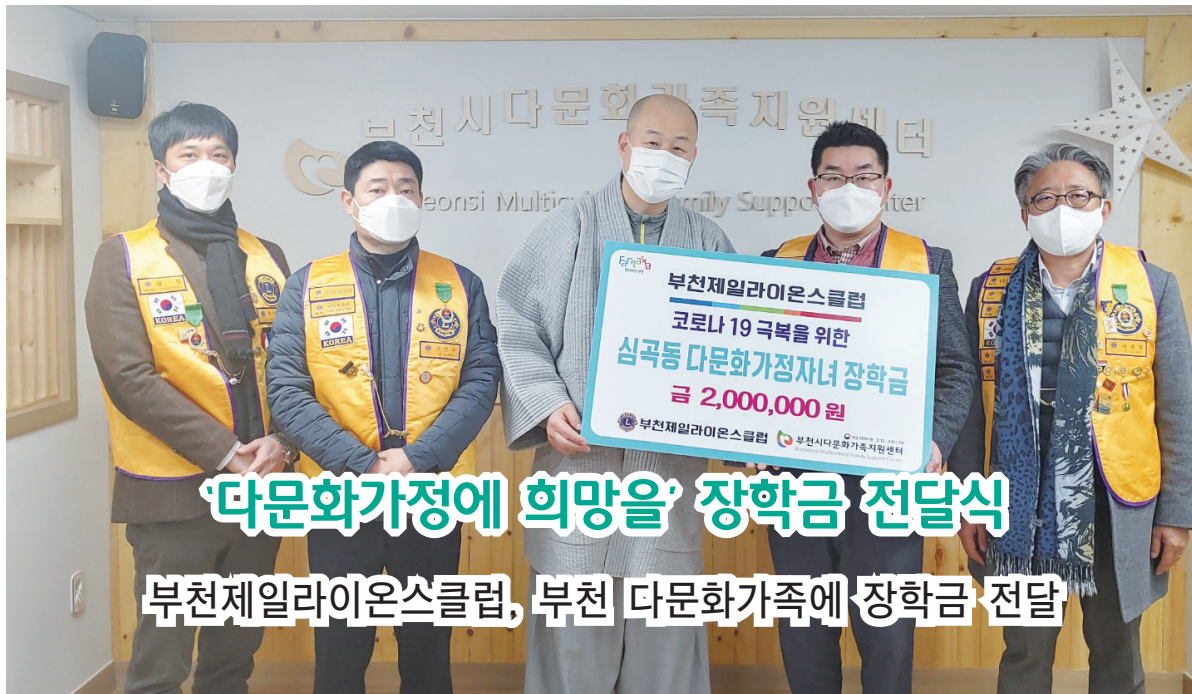
หรับคู่แต่งงานที่แต่งงานได้เป็นเวลา7ปี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หลังจากแต่งงานแต่ไม่มีบุตรหรือผู้ที่ไม่สามารถนำไปใช้เนื่องจาก

ราย ได้และมาตรฐานสินทรัพย์มาตรฐานรายได้สำ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เดี่ยวและครัวเรือนสองคนได้รับการผ่อนคลายลงเช่นกันและขอบเขตการรับรู้สำ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ได้รับการขยายออกไปผู้สูงอายุสามารถต่อสัญญาได้โดยไม่จำกัดจำนวน

สำหรับลำดับที่4 คุณส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หาก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เดือนของคุณเท่ากับ120% หรือน้อยกว่า (140% สำหรับรายได้สองเท่า) และสินทรัพย์รวมของคุณน้อยกว่า330 ล้านวอนสัญญาเช่าที่ซื้อไว้สำหรับคู่บ่าวสาวคาดว่าจะเป็น10,000ยูนิตรสำหรับประเภทI และ5,000ยูนิตรสำหรับประเภทII และ1,500ยูนิตรสำหรับบุตรหลายคน13,000ยูนิตรสำหรับทั่วไปและ1,000ยูนิตรสำหรับผู้สูงอายุ

ในกรณีที่ยองกี-do, การสรรหาครั้งแรกของผู้เช่าที่คาดหวังกับการซื้อและ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ที่มีอยู่เริ่มผ่าน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เมืองคยองก็คอร์ปอเรชั่นเปิดรับสมัครตั้งแต่วันที่ 22 ถึง 26 กุมภาพันธ์และซื้อบ้านเช่าใน 15 เมืองและมณฑล ได้แก่Gwangju, Guri, Gimpo, Namyangju, Dongducheon, Bucheon, Suwon, Yeosu, Osan, Yongin, Uijeongbu, Paju, Siheung, Pyeongtaek, Hwaseongฯลฯเป้าหมาย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ที่ต้องการย้ายเข้า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ที่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บริการ (ศูนย์ผู้อยู่อาศัย, eup, สำนักงานmyeon-dong) ในสถานที่ที่มี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ผู้อยู่อาศัย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Gyeonggi Housing and City Corporation ก็กำลังสรรหา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ส่วนตัวในช่วงเวลาเดียวกัน <한글 기사 11면> 이아리 기자



‘다문화가정에 희망을’ 장학금 전달식

부천제일라이온스클럽, 부천 다문화가족에 장학금 전달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 부천다가)에서 지난 2월 2일 부천제일라이온스클럽 주관으로 심곡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학금 전달 행사가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4명에게 각 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 소독용품, 간편식 등 코로나19 후원 물품 꾸러미를 준비해 소소한 나눔을 실천했다.

부천제일라이온스클럽 양왕덕 회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더 큰 뜻을 품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으로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봉사하겠다”라고 전달식에 참여한 아이들을 향해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후원금을 받은 다문화가정의 가족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관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셔서 고맙다”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여러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민들레 홀씨로 피어나다”

부천시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영문명칭 Bucheon Diaspora Literary Award, 이하 문학상)은 국제 문학상을 말한다. 이는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네트워크와 함께 문학을 통해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현재 2021년 첫 수상작 선정과 제1회 시상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 이번에 개발한 문학상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바람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 낫선 땅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 홀씨’를 모티브로 한다.

한편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현존 작가의 디아스포라 주제 장편소설이 심사대상이다. 총 상금은 6,000만원(작가 5,000만원, 번역가 1,000만원)으로, 매년 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회 문학상의 경우 현재 작품 접수와 예비심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올 1월부터 본심사(심사위원회)에 돌입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문학상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7월 중에 첫 번째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최종후보작(shortlist, 최대 12개 작품)은 수상작 발표 시 함께 공개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부천 도심에서 즐거운 농업체험 하세요~”

부천시, 다문화가족 등 ‘도심 속 농업체험’ 도시농업체험장 참가자 모집



부천시는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농업체험장(도시텃밭) 참가자를 모집한다.

분양할 텃밭은 문화동산텃밭(상동 529-55, 영상문화단지 인근), 소사나눔텃밭(옥길동 512-1, 부천남부수자원생태공원 인근), 산울림텃밭(춘의동 343,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인근) 등 3곳이다. 모집 구역은 총

890구획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인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다둥이·다문화·케어팜(개인, 단체)·도시농업공동체·단체 회원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2월 15일 10시부터 2월 21일 18시까지 부천도시농업한마당 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중앙의 이벤트창을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케어팜(개인) 부문은 장애인(개인)이거나 신청일(2021.2.15.)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다둥이 부문은 신청일 기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 다문화 부문은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포함된 가정이다. 1세대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세대주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체 회원 신청자는 문화동산텃밭의 케어팜(단체)의 경우 관내 소재 노인시설, 장애인·사회복지단체·기관 등의 대표자이며, 산울림텃밭의 경우 관내 소재 유치원, 학교, 회사 등 기관의 대표자다. 도시농업공

동체의 경우 5인 이상 공동체 중 3인 이상이 부천시 도시농부학교 수료자거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대표 1명이 신청하면 우선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단체별 텃밭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추첨에서 탈락한 세대는 민영텃밭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를 권장하며, 관련 정보는 부천도시농업한마당 홈페이지(cityfarm.buche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장은 “도시농업체험장(도시텃밭)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도시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와 생태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032-625-2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체험으로 즐기는 부천, 다문화가족도 함께해요”

부천시, 전통혼례체험·전통요리교실·풍수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책



부천시는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부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한옥마을서 즐기는 전통혼례

부천문화원에서 2021년도 전통혼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나만의 결혼식, 스몰웨딩(작은결혼식)으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전통의 멋스러움과 잔칫날의 흥겨움이 있는 특별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은 예비부부는 물론 다문화가족에게도 전통혼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통혼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 혼례로 진행된다는 점과 허례허식과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없어 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합리적인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혼례가 치러지는 부천한옥체험마을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혼례 관람을 원하는 예비부부 또는 부천관광을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부천문화원 홈페이지 문화행사 달력을 통해 혼례 일정 확인 후 한옥체험마을을 방문하면 전통혼례를 볼 수 있다.

#겨울맞이 온택트 전통요리교실 운영

부천시 도시농업과는 지루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을 초등학교를 위해 2월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비대면 ‘전통요리교실’을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요리교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로 지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실이다.

2019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통요리연구가가 총 8회차의 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교육을 진행한다. 참여가족은 전통요리연구가와 함께 전통한식체험을 주제로 ▲약밥과 수정과 ▲소고기버섯전골과 칼국수 ▲프로폴리스 사과잼과 우리밀빵 ▲떡갈비와 쌍화탕 등 건강에 좋은 한식을 만들게 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032-625-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실질적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풍랑, 해일, 홍수, 지진 등이다. 대상시설은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시설, 재고자산 등이다.

보상 방법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이중 실손보상형은 유리창 피해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특히, 2021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70% 이상으로 늘려 시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낮췄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는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는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5개 지정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중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개별가입이 가능하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02-2100-5103-7 김영의 기자

Tổng công ty nhà đất tỉnh Gyeonggi, cho 3,380 hộ dân thuê nhà theo diện cheonse

Bắt đầu cung cấp đa dạng cho tầng lớp người dân bắt đầu từ 22~26/2.. Đăng kí thuê nhà tại Ủy ban nhân dân địa phương

Tổng công ty nhà đất tỉnh Gyeonggi(Chủ tịch-ông Lee Heon Uk-GH) cho biết rằng sẽ bắt đầu nhận đăng kí thuê nhà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khoảng 3,380 hộ kể từ ngày 22 tháng 2 tới đây, dự án mang tên “Thuê nhà cheonse đối với nhà tập thể”

Dự án này là dự án mà GH mua hoặc thuê nhà từ các chủ sở hữu nhà đã được xây dựng sẵn sau đó cho người dân thuê lại với một giá thuê rẻ hơn. Những ngôi nhà nằm trong diện cho thuê là những ngôi nhà riêng, nhà tập thể, villa hay chung cư, văn phòng dạng nhà ở, vv có tổng diện tích dưới 85m². Đặc điểm của dự án này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đăng kí không chỉ có người thường được quy định theo chế độ cũ thì còn bao gồm cả người cao tuổi và vợ chồng mới cưới.

Thời gian thuê nhà đối với mỗi hợp đồng là 2 năm và có đến 9 lần tái kí hợp đồng, như vậy tổng thời gian thuê nhà có thể lên đến 20 năm đối với mỗi căn hộ.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trong dự án này

là người dân không có nhà của riêng mình, đang sinh sống tại 31 thành phố trong địa bàn tỉnh, thuộc diện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y tế của Chính phủ, những gia đình có một bố hoặc một mẹ nuôi con, người khuyết tật đang lao động và tổng thu nhập bình quân theo tháng phải dưới 70%, những hộ gia đình đang nhận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về nhà ở, những cặp vợ chồng mới cưới, vv hay những đối tượng có đủ điều kiện đăng kí đã được đưa ra trong văn bản công bố cho thuê thì sẽ được đăng kí thuê nhà.

Đối với diện người thuê bình thường và người thuê là người cao tuổi, ngoài số tiền 5% mà bản thân người thuê cần phải bỏ ra để thuê thì họ sẽ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tối đa là 145 triệu won/căn hộ. Đối với diện thuê nhà dành cho vợ chồng mới cưới, ngoài số tiền mà họ phải bỏ ra khi thuê nhà thì số tiền tối đa mà họ có thể nhận được từ phía dự án là 128,250,000won/căn hộ.

Từ ngày 22 đến ngày 26 tháng 2 tới đây sẽ là thời

gian đăng kí thuê nhà dành cho dự án này.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thuê nhà có thể đến Ủy ban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để đăng kí (hàng 기사 44면)

Ông Chang Dong Woo-Giám đốc dự án nhà ở của GH cho biết rằng “GH đã mở rộng phạm vi người có thể đăng kí thuê nhà từ diện người thông thường theo chế độ của năm trước, thì đến năm nay, người cao tuổi cũng như những cặp vợ chồng mới cưới, vv cũng có thể đăng kí thuê nhà của dự án, trong năm nay theo dự kiến tổng số căn nhà được sử dụng trong mục đích cho người dân thuê sẽ có thể lên đến 16,000 hộ” và “GH sẽ nỗ lực hơn nữa trong những dự án về nhà ở nhằm mang lại một không gian sinh hoạt ấm cúng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3 tháng sau kể từ khi kết thúc thời gian đăng kí, người thuê dự bị sẽ được GH công bố tại trang chủ www.gh.or.kr hoặc sẽ có thông báo tới từng cá nhân.

Mọi chi tiết xin vui lòng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1588-0466 để được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외국인주민에 사랑의 쌀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박만호 위원장 등 임원진에 감사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센터장 손인환)는 지난 2월 5일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과 박만호 위원장, 이수창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임원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만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 제10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했다. 박만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점차 삭막해져 가는 요즘, 어려운 가운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부천시 외국인주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며 “노조원들의 마음을 십시일반 모아 쌀로써 드리는 마음을 이

해해달라”고 부천이주민지원센터에 쌀을 전달했다. 이에 부천노총 박종현 의장은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에 감사함을 전했다. 손인환 센터장 역시 “작년 7월 코로나19 외국인주민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공사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억난다. 무척 감사한 일”이라며 “전달 받은 사랑의 쌀은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추운 겨울, 매서운 한파에 떨고 있을 부천시 외국인주민들에게 소중이 나눠드리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하성 기자

소사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감기·독감·발열환자 안전한 진료



부천시 소사보건소는 그동안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개시하지 못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난 2월 15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 질환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평소 진료에 제한이 있었던 시민에게 의료접근 편의성과 안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사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소사아울마당 지상주차장 별도 공간에 위치한다. 사전예약제 운영, 공간 구획, 동선 분리, 음압 장비 마련 및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와 환자, 환자와 의료진 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김은옥 소사보건소장은 “코로나19 연관성이 있다면 검사까지 시행하므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호흡기, 발열환자에게 안전한 진료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소사보건소(032-625-8871) 이지은 기자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điều kiện nhà ở không tốt, hãy thử sống tại nhà ở cho thuê sau mua trong năm nay nhé.

Chính phủ sẽ cung cấp khoảng 45,000 căn hộ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thanh niên, vợ chồng tân hôn, người cao tuổi hay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có thể ổn định điều kiện về nhà ở trong năm nay. Theo chính sách này, chúng ta có thể chờ đợi những hỗ trợ nhất định cải thiện vấn đề nhà ở dành cho cả gia đình đa văn hóa. Mục tiêu hỗ trợ số căn hộ trong năm nay là 45,000 căn, tăng hơn 60% so với số căn hộ được cung cấp trong năm trước là 28,000 căn, và đây cũng là lần đầu tiên kể từ khi dự án cung cấp nhà ở được triển khai năm 2004 Chính phủ hỗ trợ số căn hộ với số lượng lớn. Nhà ở cho thuê này được Tổng công ty Nhà Đất Hàn quốc hay những doanh nghiệp triển khai dự án nhà ở công cộng mua một khu nhà tập thể nào đó sửa chữa lại những chỗ cần tu sửa sau đó cho người dân thuê với một mức giá thấp hơn với giá thuê nhà trên thị trường. Kế hoạch về mục tiêu cung cấp trong năm nay đó là ▲ Mua bán những công trình xây dựng mới ▲Tu sửa những chỗ cần thiết ▲Mở rộng những phương án mua bán nhà tập thể cũ. Về mua bán những công trình xây dựng mới, theo kế hoạch sẽ dự định cung cấp 21,000 căn hộ, tăng 75% so với năm trước. Phương thức mua bán trong năm nay sẽ được thay đổi, cụ thể là sẽ kí hợp đồng để mua lại những khu nhà tập thể trước khi những khu nhà đó đi vào bước hoàn thiện. Nhằm tăng việc cung cấp những căn hộ có diện tích từ 60~85m² dành cho gia đình có từ 3 đến 4 người sống, cung cấp các biện pháp khuyến khích cung cấp nguồn cung ưu tiên và các điểm bổ sung nhà ở tập thể cho các nhà kinh doanh đã cung cấp nhiều hơn một số lượng nhà ở nhất định

thông qua một thỏa thuận mua bán nhất định. Số lượng nhà ở được tu sửa lại và được dùng cho mục đích cho thuê vào khoảng 8,000 căn. Các khách sạn phục vụ mục đích du lịch vượt quá tỷ lệ diện tích nhà ở không thể được tái định cư do sự khác biệt giữa tỷ lệ nhà ở và diện tích sàn nhưng Chính phủ đang thúc đẩy việc sửa đổi Luật để chúng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như những dự án nhà ở tập thể thông thường bắt đầu từ quý II trong năm nay. Việc mua nhà đã được hoàn công và dự tính cung cấp cho thuê ngay vào khoảng 16,000 căn. Theo kế hoạch sẽ có thể cung cấp kịp thời dựa theo việc những khu nhà tập thể đó đã nhận được quyền sử dụng từ phía chính quyền. Chính phủ cho biết, những căn hộ này sẽ được cung cấp cho những đối tượng không có nhà đứng tên bản thân mình và cung cấp dựa theo những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thu nhập bình quân theo từng gia đình dựa theo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bình quân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ong năm trước) và những tiêu chuẩn về tài sản cá nhân. Những điểm chính trong dự án cung cấp nhà ở trong năm nay bao gồm ▲Tạo mới loại hình số 4 đối với các cặp vợ chồng mới cưới II ▲Cải thiện những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dành cho gia đình có 1~2 thành viên ▲Mở rộng phạm vi chứng nhận dành cho gia đình đông con ▲Tái kí hợp đồng một cách vĩnh viễn dành cho hộ gia đình là người cao tuổi. Điều kiện thuê khó nhất trong dự án này vẫn là những điều kiện liên quan đến vợ chồng mới cưới. Theo quy định cũ, những cặp vợ chồng đã cưới được hơn 7 năm nhưng không có con hoặc những quy định về tiêu chuẩn trong thu nhập mà họ không thể đăng kí được thì trong năm nay

những điều kiện này cũng đã được cải thiện phần nào nhằm mục đích hỗ trợ những đôi vợ chồng nói trên. Những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dành cho gia đình có 1~2 thành viên cũng được giảm đi, song song với đó phạm vi chứng nhận dành cho gia đình đông con cũng được mở rộng lên. Ngoài ra những người cao tuổi sẽ có thể kí hợp đồng tái thuê nhà một cách vĩnh viễn. Vị trí đăng kí thứ 4 dành cho các cặp vợ chồng theo diện số II về thu nhập là dưới 120%(140% dành cho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mà cả hai vợ chồng đều đi làm), tổng tài sản của cả hai vợ chồng dưới 303 triệu won. Số căn hộ dự định sẽ cung cấp cho đối tượng là những vợ chồng mới cưới theo diện số I là 10,000 hộ và diện số II là 5,000 hộ, gia đình đông con là 1,500 hộ, người thường là 13,000 hộ và người cao tuổi là 1,000 hộ. Theo như tỉnh Gyeonggi, thông qua Tổng công ty nhà đất tỉnh Gyeonggi, chúng ta có thể đăng kí dự bị lần 1 đối với những căn hộ nằm trong dự án hỗ trợ. Thời gian nhận hồ sơ đăng kí bắt đầu từ ngày 22 đến ngày 26 tháng 2. Có 15 thành phố triển khai dự án này là Gwangju, Guri, Kimpo, Nam Yangju, Dongdocheon, Bucheon, Suwon, Yeosu, Osan, Yongin, Euicheongbu, Pachu, Shiheung, Pyeongtaek, Hwaseong.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í dự án này cũng có thể trực tiếp đến Ủy ban nhân dân nơi đăng kí địa chỉ cư trú để đăng kí. Ngoài ra, người dân cũng có thể đăng kí thuê nhà theo diện đặt cọc tiền <한글 기사 11면> kí gửi cùng thời gian với dự án trên của Tổng công ty nhà đất tỉnh Gyeonggi. Mọi chi tiết xin vui lòng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1588-0466 để được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멀티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с неблагополучной жилищной средой. В этом году попробуйте заселиться в арендованное жильё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о то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 приобрести и предоставить 45.000 единиц арендуемого жилья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в целях стабилизац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семей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молодёжь, молодые и пожилые люд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арендное жильё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поможет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 др.

Цель этого года - 45.000 домохозяйств - это на 60%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годним объёмом (28000 домохозяйств)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в 2004 году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оекта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количеств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большим.

Арендное жильё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 это жильё, которое выкуп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жилищные компании, такие как Корейская земельная и жилищная корпорация и др, затем после ремонта, перепланировки ил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арендаторам по низким ценам.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объём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 за счет ▲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нов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монта ▲ метода покупки существующего жилья.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глашения на покупку нового жиль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

вить 21.000 домохозяйства, что на 7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анным методом до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ма (строющегося или планируемого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заключается контракт,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анное жильё выкуп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жилищным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у част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В целях расширения снабжения новым жильём средней площадью (60-85 кв.м), рассчитанного на семью из 3-4 чел. и более,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льготы и поощрения частным компаниям,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ят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жилья, чем указанного в контракте купли-продаж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новую специальную контрактную гарантию,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бремя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монт планируется осуществить в 8000 домохозяйств.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тели, размер которых превышает коэффициент жилой площади, из-за разницы между соотношением жилой площади не могут быть перепланированы, 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несение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ы,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перепланировать данные постройки под жилые дома со своего квартала этого года.

Для 16.000 домохозяйств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и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дома. Своё временно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озможно путём покупки домов, получивших раз-

решение на эксплуатацию построенного помещения от лицензирующих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жилищ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и после ремонта (оклейка обоев, застил полов и т.д.) предоставлено лицам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Арендное жильё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лицам, не имеющим соб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с учётом стандартов дохода (средн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на семью городского рабочего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и стандартов имущества.

Особен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в этом году: ▲ недав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й 4-й приоритет для молодоженов II типа, ▲ смягчение стандартов дохода для семей и з 1~2 чел.▲ расширение рамок для признания как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 неограниченное продление договор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Для молодоженов типа II с высокими стандартами дохода был недавно установлен четвёртый приоритет, который значительно упростил требования для супружеских пар, которые ранее не могли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так как в течение 7 лет после брака, не имели детей, или те, кто 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и стандартам доходов и имущества.

Стандарты доходов для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стоящих из 1-2 чел., рамки признания семьи как многодетной также были упрощены. Пожилые люди могут подписать контракт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Что касается четвертого приоритета,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если средний еж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составляет до 120% (140% для обоих зарабатывающих), а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оценивается менее 330млн. вон.

Ожидается,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квартир под аренду с выкупом для молодоженов типа I составит 10.000 квартир и 5.000 единиц для типа II, а также 1.500 квартир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13.000 квартир для обычных и 1.000 единиц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случае по Кёнгидо первый набор потенциальных заявителей на арендное жильё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проводится через Корпорацию городск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ёнги.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на арендное жильё с выкупом с 22 по 26 февраля и проводится в 15 городах и округах, включая Кванджу, Гури, Кимпхо, Намьянджу, Тондучхон, Пучхон, Сувон, Ёджу, Осан, Йонгин, Ёйджонбу, Паджу, Сихын, Пхёнхэк, Хвасон. и д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желающие переехать,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йонный, областной) по месту регистрации резидента. Между тем, Корпор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ёнги также проводит набор заявлений на арендное жильё с залогом в тот же период.

Контакты 1588-0466 http://www.gh.or.kr/supply/parcels/parcels_view.do?aldx=11170 <한글 기사 37면>

京畿住宅城市公司招募3380户全税租赁住房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 2月22~26日各种阶层的供给. . 在居住地区的居民中心申请 다문화가족도 신청

京畿道住宅城市公司(社长李宪旭, GH)表示,为帮助京畿道低收入阶层将从2月22日开始“现有住宅租赁”招募3380户住户。现有住宅全税租赁事业是指,如果被选定为入住者的住户,物色自己想要的住宅的话, GH就与现有住宅的所有人解除全税租赁合同,以低廉的租赁费重新租赁的制度。住宅规模为85㎡以下单独、多户、公寓、低层公寓,商住写字楼。此次招募对象特点是,除了基准一般

型以外,还包括高龄者、新婚夫妇。

租期为2年,最多可续约9次,可居住20年。申请对象为无住宅家庭成员,只要符合公文中规定的资格条件,就可以申请。公告中规定,无住宅家庭成员包括居住在道内31个市郡的生计、医疗领取者、单亲家庭、城市劳动者月平均收入在70%以下的残疾人、急需居住支援的家庭、高龄者、新婚夫妇等。

一般型和高龄者的情况是,排除入

住者自负担金5%,每户最多可以得到1亿450万韩元的全税租金支援,新婚夫妇的情况是,除了入住者自负担金之外,最多可以得到1亿2825万韩元的全税租金支援。申请期限为2月22日至26日,以入住者招募公告日为准,可在申请人居住地的居民中心(邑面洞事务所)申请。

GH居住事业本部长张东佑表示“住宅福利事业的对象将从去年一般性为主扩大到高龄者、新婚夫妇等多种阶层,如

果包括今年的供应量,预计全税租赁住房将达1.6万多户。为营造道民稳定的居住环境,将持续扩大居住福利事业。”

入住预定者的发表将从受理日开始的3个月以后,被登载在GH网站(www.gh.or.kr)上或个别通知,其他详细事项可以参考GH网站。另外,京畿住宅城市公司正在招募同期购买、租赁住宅。

咨询热线1588 - 0466

<한글 기사 44면> 장올가 기자

제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부천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50~100만원 가능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부천형 버팀목 자금 지원(3차)을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11개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22개 업종 50만 원이다.

부천시는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하반기 부천시 새희망자금에 이어 2021년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며, 3차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의 ▲공고일(2021.2.9.) 현재 부천시에 사업자등록(개업일 기준)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와 휴·폐업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에 개설된 접수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신청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희망"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3차 부천형 버팀목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의 미래 만드는 하나금융나눔재단, 심리 정서지원

〈기고〉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하나금융 나눔재단(이사장 함영주)은 지난 2018년부터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많다. 가족당 자녀들이 평균 4~5명 정도이다 보니 기초생계비와 정착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채우기도 바쁜 형편에 자녀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적응과 진로문제에 대해 부모가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에 재정적 난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는 지난 2011년부터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에 재정적 난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는 지난 2011년부터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부모들 역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회사 취업을 위하여 가족 모두가 이민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서 자녀들의 교육과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린 자녀들만 고국에 두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하나금융 나눔재단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미술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과 개인 심리검사 및 고충 상담, 진로 탐색 상담을 병행하는 심리 정서 지원사업을 3년째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하여 자녀들을 동반하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한 이들은 생각보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부모들 역시 타국에서 사업장이나 직장생활에 적응하랴 언어의 장벽을 넘느라 자녀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교육지원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로써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안정된 생활과 적응은 물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심리정서 상담을 통해 분명한 꿈과 비전을 찾고 각자의 꿈과 희망을 향하여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민 생활 적응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으로서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은 물론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발굴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주민지원 비영리 단체이다.

특히 2015년부터 재정적 난민으로 온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은 아동 청

外国居民应知道的今年新引进的出入境政策。

引入电子旅行许可

韩国政府将引入电子旅游许可制(ETA)。该制度在支援外国游客迅速、便利入境的同时阻止非法滞留。

法务部规定,对于没有签证进入韩国的外国人,在维持公共秩序或国家利益所需的情况下,可以事前获得电子旅游许可。获得电子旅行许可的外国人将被免除提交入境申请书,只要在专用审查台确认是否为本人,就可以入境。

此前,法务部为扩大与外国的人交流 and 吸引游客等,扩大了免签证入境对象。结果,2018年无签证入境者占有所有外国入境者的53%。

法务部解释说,由于免签证入境的外国人增加到全体非法滞留外国人的54.1%,使入境审查和采访得到加强,在机场长时间等待或怀疑非法滞留等原因返回本国的情况有所增加,因此引入了上述制度。对象国家为免签证协定的66个国家和46个无签证入境指定国家等。法务部计划,以明年实行电子旅行许可制为目标,加快系统开发等准备工作。

履行出国命令保证金的引入

出入境司法制度也将得到改善。现在,

违反出入境司法的罚款也可以用信用卡或现金卡缴纳。此前,由于缴纳违规金只能使用现金,所以给外国居民突然准备现金带来了很大的不便,但现在可以通过信用卡等方式缴纳。

另外,从1月21日开始对违反出入境司法者实行了“出境命令履行保证金制度”。引入“履行保证金制度”对外国居民有利的理由是,不进入保护设施,可以拥有整理周边环境的时间。

在此之前,如果未登记的外国人居民突然被法务部管制,就没有时间准备回国的行李,当场被转移到保护设施机构等待,后来被强制驱逐出境。

今后,只要缴纳履行保证金,就可以收回全税月税等住房保证金,在出国之前有时间整理自己周围的情况。如果在法务部规定的期限内出国,保证金将全部收回。

出入境、外国人管理署的负责人可以向被列为出境处置对象的外国人寄存最多2000万韩元以下的履行保证金为条件下达出境命令。如有违犯,保证金全部或部分收归国库。

<한글 기사 1면>

왕그나 기자

#궁금증해소

이민법 전문 변호사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신분참살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대표번호 1599-2569

#중요요 1만개!

오산 다문화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오산시, 경제적 어려움 덜 먹거리 드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억해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주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2월 중 오산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주민이면 누구나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 등 상담을 원할 시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공적 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의 운영을 앞두고 기본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후원할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후원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집중 모집하고 있다.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를 하면 기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월 3일 기준 오산시 소재한 영업장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받은 피해업종 소상공인과 오산시민으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여객·택시·화물 운송사업자, 전문예술인, 미성년자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로 약 9,500명이며, 대상별 각각 500,000원씩(단, 개인택시 200,000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분야별 지급기준에 부합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넷 포털 문서 24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각 해당 부서로 2월 28일까지 전송하면 된다. 오산시 긴급재난지

원금은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경기도 기본재산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를 적용하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대면(현장)접수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며, 개인은 출생연도(생년) 끝자리,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가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단, 지급대상은 5개 분야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서류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미지급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 오색전은 가까운 NH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 신규 발급가능하며, 3월부터는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19개소 업무협약

중앙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우기제)는 중앙동의 고유 복지브랜드로 지난 2016년부터 ‘해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중앙동의 핵심,특화사업으로 ‘해뜰 꾸리미단’을 운영하는데 ‘해뜰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洞 협의체를 주축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허브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정서 지원으로 어르신 나들이, 건강댄스, 어르신 속풀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어르신 장수사진, 다문화가족 사진 촬영, 저소득가정 학생 총치 치료 등 재능기부 지원도 한다.

특히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洞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소와 복지안전망 핫라인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김영의 기자

2021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그린T 참가자 대모집

경기도청소년수련원 GYEONGGI-DO YOUTH CENTER

- ▶ 신청만 하면 키트와 재료를 무료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 ▶ 비대면 활동 후 '인증사진'과 '설문조사' 참여만 하면된다니...
- ▶ 어머! 이젠 꼭 해야해~!!

활동내용 생활 속 환경교육 실천(1회용품 함께 줄이기)을 위하여 교육영상 시청과 새활용(업사이클링) 리컵키트(행잉플랜트) 조립 및 식물가꾸기

대상·인원 다문화청소년 가족 선착순 500명
※ 청소년: 9~19세(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이라면 8세 이하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1. 2. 1.-마감 시 까지

활동방법 참가신청→참가자 선정→교구배송(1인당 키트 1개, 봉투 화분 2개), 교육영상 시청(QR코드)→비대면 체험활동→설문조사·인증사진제출→생활 속 환경교육 실천
※ 성인을 제외한 인원 수 만큼 교구가 배송됩니다.

참가비 없음(청소년환경교육비지원)

문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활동기획팀 이여래 차장 070-5029-2744

2021년 '오! 해피스쿨' 온라인교육 수강생 모집

1. 참여대상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2. 운영일정(1학기) : 3/3(수) ~ 6/30(수) 매주 월,수,금 10~12시(주 3회)

요일	정규 한국어	특수목적 한국어	체험 프로그램
과정	월요일 / 수요일	금요일	매월 마지막주 금
과정명 (반별 15명)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복습반	결혼이민자 동아리활동
	기초 1단계(훈민, 정음)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초기 정착 프로그램
	기초 2단계	지역문화 활용 한국어	초기 정착 프로그램
	기초 3단계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미래설계 프로그램
	TOPIK 고급 자격증	취업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정 프로그램

*모든과정은 ZOOM(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수강신청	1. 전화 접수 < 031-372-1335 > : 방문예약 ▶ 예약일정 : 2/8(월) ~ 2/18(목) 신청 기간 내 방문예약 가능 2. 센터 방문 < 성호대로 83, 1층 > : 접수 및 배치평가 실시 ▶ 방문일정 : 2/15(월) ~ 2/19(금) 10:00 또는 13:30 예약가능 ★ 하루 2회 정해진 날짜에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방문 인원을 제한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미예약 시 대기로 접수해 드립니다.
배치평가	- 꼭 전화 접수(031-372-1335) 후 방문(오산시성호대로 83, 1층) - 기초단계 또는 수강 이력이 없는 신청자는 배치평가 후 점수에 따라 배정 - 접수 및 배치평가 1시간~1시간 반 소요, 주차장 협소(대중교통이유 권장)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쇼핑 в Корее 한국에서 즐겁게 쇼핑을 하는 7가지 방법

싼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시장부터 온라인쇼핑, 명품 취급하는 백화점과 해외직구까지

Одна из причин, по которой иностранцы приезжают в Корею ? доступны и практически 24 часа в сутки шоппинг.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чти все известные мировые бренды, да и местная продукция отличается отменным качеством. Недаром Сеул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одну из столиц современной моды.

Основываясь на 8-летнем опыте бывалого шопера попробовала разделить шоппинг-категории по классификациям.

Шоппинг-центры. Здесь обычно представлены известные импортные бренды масс-маркета вперемешку с местными, после покупок или в перерывах между можно перекусить в одном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ресторанов или фуд-корт, выпить кофе, сходить в кинотеатр, а дети в ваше отсутствие могут поиграть н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е. Имейте в виду, что почти в каждом шоппинг-молле дей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ая бонусная карта, предоставляюща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идки и иногда даже подарки.

Универмаги.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а продукция класса люкс, как местная так и импортная. Бренды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дорогие украшения и аксессуары по цене небольшого самолета. Что удивительно, в магазин популярных марок выстраивается очередь из желающих пощупать кожу аллигатора своими руками. Здесь также советую оформить бонусную карту,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процентов от дорогостоящей вещи на деле могут вылиться в очень приятную сумму.

Рынки. Здесь вы можете приобрести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любой карман от 5000 вон за футболку до дорогостоящих изделий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дизайнеров. Рынки удобны и привычны нам тем, что с мило можно торговаться.

Шоппинг-улицы. Целые улицы, а иногда и кварталы, состоящие из магазинов и торговых лавок. На крупных улицах вроде Мендона в Сеуле можно посетить магазины известных брендов, тогда как на шоппинг-улицах в ст

уденческих городах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ещи по демократичным ценам.

Аулет-центры. Рай для тех, кто постоянно в поисках выгод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и не привык покупать п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цене.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а только продукция со скидками. Конечно, последние коллекции здесь найти не удастся, но очень часто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качественную вещь по очен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цене. Здесь тоже может пригодиться оформленная ранее дисконтная карта.

Онлайн. Шоппинг в Сети отличается от обычного тем,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пощупать материал и примерить перед покупкой. Однако в свете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когда люди вынуждены находиться дома, онлайн-шоппинг совершенно вытеснил обычные покупки из нашей жизни. Покупки в Сети также удобно возвращать или обменивать: для этого лишь нужно оформить данный запрос на странице продавца и выставить упакованный товар за дверь. Доставка обычно происходит очень быстро: от доставк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до 10 дней.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веряйте сайт на наличие скидочных купонов или промо-кодов.

Зарубежные сайты. Иногда мы сталкиваемся с тем, что заказы с зарубежных сайтов обходятся нам дешевле чем местные аналоги, либо в нашу задачу входит приобрести товар, не завозимый в Корею. В таком случае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доставку до Кореи с зарубежного сайта, оплатить корейской банковской картой и ждать. Ждать придется чуть дольше обычного (минимум дней 7, максимум ?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е забудьте перед заказом оформить персональный таможенный код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https://www.customs.go.kr/english>) и имейте в виду, что для заказов свыше определенной суммы нужно будет оплатить налог (для покупок с США ? свыше \$200, для покупок с Европы ? свыше \$150).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что при заказе с зарубежных сайтов возврат и обмен товар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ен.

Шоппинг в Корее удобен тем, что часто устраиваются скидки, ивенты, не говоря про бесплатные сэмплы в подарок к косметике, которые мы привыкли принимать за должное. И, конечно, сервис. Продавцы-консультанты в оффлайн магазинах и работники колл-центров в онлайн магазинах как правило очень вежливо отвечают на все вопросы и терпеливо выслушивают все жалобы клиентов. Удачных вам покупок!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 하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가 있고 국내 제품도 그에 못지 않게 품질이 뛰어나다. 서울이 점차 현대 패션의 수도로 변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8년 경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장소를 분류해 봤다.

쇼핑몰-일반적으로 쇼핑몰에는 대중시장의 유명 수입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가 혼합되어 있다.

쇼핑 후 또는 그 사이에 레스토랑이나 푸드 코트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영화를 보는 것까지 가능한. 어린이는 그 동안 놀이방에서 놀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쇼핑몰에는 추가 할인과 때로는 선물까지 제공하는 특별 보너스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면 좋다.

백화점-백화점에는 국내 및 해외 고급 제품이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 브랜드, 값 비싼 보석 및 액세서리 등도 있다. 놀랍게도 인기 브랜드 매장에는 악어 가죽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한다. 백화점 쇼핑을 즐기거나 하는 외국인주민은 보너스카드를 만들 것을 권한다. 값이 비싼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적은 할인이라도 실제 금액은 클 수 있다.

시장-티셔츠 한 장당 5,000원부터 한국 유명 디자이너의 고급 아이템에 이르기까지 주머니에 맞는 현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하게 흥정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친숙하다.

쇼핑 거리-쇼핑거리는 '덕이동 로테오 거리'처럼 일정한 길거리에 브랜드 매장

수 십 곳이 몰려 있는 곳을 말한다. 서울 명동과 같은 넓은 거리에서는 유명 브랜드 매장을 방문할 수 있고, 대학가에 딸린 쇼핑 거리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렛센터-아울렛은 저렴한 물건을 찾는, 할인 구매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할인된 상품만 이곳에 진열된다. 이곳에서 최신 상품을 찾을 수는 없지만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전에 발급된 할인카드도 여기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품만을 취급하는 아울렛 매장도 여럿 생겼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울렛매장을 잘 골라야겠다.

온라인쇼핑-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것은 물건을 만져보거나 구매하기 전에 입어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쇼핑과는 다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유행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쇼핑은 일반적인 구매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에서의 배송은 일반적으로 다음날에 도착할 만큼 매우 빠르다. 물론 인터넷에서 물건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것도 편리하다.

해외 사이트-때때로 우리는 수입 물품을 구매할 때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는 것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 경우 해외 웹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기다리면 된다. 최소 7일에서 최대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주문하기 전에 국세청 웹 사이트(<https://www.customs.go.kr/english>)에서 개인 통관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주문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미국 구매물품 200달러 이상, 유럽 구매물품 150달러 이상)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시 상품의 반품 및 교환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쇼핑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화장품 무료 샘플은 물론 할인과 이벤트가 자주 진행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 보조원과 온라인 매장의 콜센터 직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질문에 매우 정중하게 답변하고 모든 고객 불만 사항을 참을성 있게 경청한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쇼핑을 하기를 바란다.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무상담 및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육아품앗이 등 진행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만듭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성심)는 파주시 관내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벌이가정 무료 노무상담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맞벌이가정을 위한 무료 노무상담을 실시한다.

일하는 엄마, 아빠의 직장 내 문제를

공인노무사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엄마, 아빠 대상이며 상담내용은 채용, 임금, 산재, 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전반이다.

노무상담은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매월 1일 낮 12시 온라인(<http://naver.me/xTexRCaK>)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육아나눔터 품앗이 가족 모집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기육아나눔터 품앗이 가족을 모집한다.

부모가 주체가 돼서 자녀들의 돌봄, 양육과 관련한 자유로운 주제를 월 단위로 계획해 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요

리, 독서, 미술, 그림책, 체험활동 등 다양하다. 파주시에 거주하며 영유아, 초등자녀를 둔 2가족 이상 그룹을 선착순 접수하며 무료다. 모집인원은 5~10 그룹이며 활동비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한다.

월 3회 이상 품앗이 활동을 진행하며 일지 및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육아나눔터 관리자 및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49-9164)로 하면 된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운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를 한다.

사업대상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이며 전화, 온라인, 센터내방, 가정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사업내용은 폭력, 이혼, 빈곤, 자살 등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이 이뤄지는 ▲위기 상황지원 및 ▲내부지원 연계 ▲외부지원연계 등이다. 내부지원 연계는 개인 및 가족상담, 한국어교육, 서포터즈, 방문교육,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며 외부지원연계로는 법률상담, 긴급지원 등 타 기관 연계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031-949-9164)에게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DỊCH VỤ QUẢN LÝ CÁC TRƯỜNG HỢP LIÊN QUAN ĐẾN GIA ĐÌNH ĐA VĂN HÓA

Trung tâm sức khỏe gia đình và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hỗ trợ cho các trường hợp khó khăn, vấn đề đa dạng, phức tạp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gặp phải và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ổn định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Chúng tôi luôn hỗ trợ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cùng các gia đình đang gặp khó khăn.

Đối tượng

Gia đình đa văn hóa,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Bắc Hàn

Nội dung

Hạng mục	Nội dung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Hỗ trợ, hướng dẫn cho các trường hợp bị bạo hành, hộ nghèo,...
Hỗ trợ nội bộ	Tư vấn cá nhân và gia đình, dạy tiếng Hàn, hỗ trợ giáo dục tại nhà...vv
Hỗ trợ liên kết	Tư vấn pháp luật, hỗ trợ khẩn cấp hoặc hỗ trợ liên kết các trung tâm liên quan

Thời gian sử dụng

09:00~18:00 (Thứ 2~thứ 6)
Thời gian nghỉ trưa 12:00~13:00

Cách sử dụng

Gọi điện, đến trực tiếp, tại nhà, trực tuyến

Liên hệ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 031-949-9164



Đường đến trung tâm



Địa chỉ: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동일선 방면) 교육지원청 정류장 하차 9709, 333, 92, 92-1, 100, 77-1, 3, 030, 032, 062, 064, 065, 066, 068, 073
(금촌역 방면) 교육지원청 정류장 하차 9709, 333, 92, 92-1, 100, 77-1, 11-1, 3, 021, 030, 032, 062, 064, 065, 066, 068, 073.
지하철: 경의선 금촌역 하차-파주시청, 동일선 방면 도보이동(약 15분 소요)
자가용: (서울) 자유로-문발IC-금촌-교육지원청 정류장 뒤 통일로-조리음료점-금촌-교육지원청 정류장 뒤 (문산) 자유로-당동IC-통일로-금촌-교육지원청 정류장 뒤 통일로-조리음료점-금촌-교육지원청 정류장 뒤

여성가족부 지원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먹이기, 질병소독, 귀저기 갈기, 목욕 등 영아의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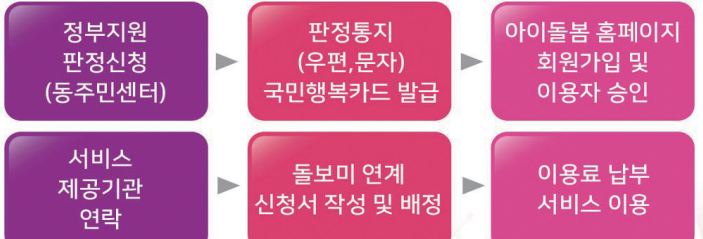
시간제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절차



지인추천 이벤트 2개월에 한번씩 지인에게 아이돌봄사업을 추천하면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www.idolbom.go.kr
★연락문의 031)949-9163 아이돌봄팀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เกร็ดความรู้
เกร็ดความรู้
เกร็ดความรู้

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ที่จะได้ประสบเจอเมื่อเข้ามาใช้ชีวิตในเกาหลีนั้นมากมายหลายประการ แต่สิ่งที่ยากลำบากที่สุดคง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ความเจ็บป่วย หากได้ทำ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เอาไว้ก็จะสามารถช่วยบรรเทา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ในยามเจ็บป่วยได้มาก นอกจาก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ล้วก็มีผลิตภัณฑ์สุขภาพอื่น ๆ สำหรับเตรียมรับมือกับวันข้างหน้า เช่น ประกันชีวิต, ประกันโรคร้ายแรง, ประกันชีวิตผู้สูงอายุ ต่างๆ เหล่านี้ที่เป็นผลิตภัณฑ์ของบริษัทเอกชนที่ควร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บดี ก่อนตัดสินใจเลือกผลิตภัณฑ์ที่เหมาะสมแล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กับตนเอง

한국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아플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이때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망, 질병, 노후 등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민가보험 상품도 있는데 보험료와 혜택이 잘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ประกันภัยคืออะไร?

ประกันคือการออมเงินเพื่อเตรียมรับมือกับสถานการณ์ที่ไม่คาดคิดที่อาจเกิดขึ้นในอนาคต เช่น การเสียชีวิต, ความเจ็บป่วย, ความพิการ, การตกงาน, สราภพ ฯลฯ ประกันอาจจะดูเหมือนเป็นการออมเงินรูปแบบหนึ่งแต่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แล้วแตกต่างกันโดยสิ้นเชิง ประกันโดยปกติมีสองรูปแบบคือประกันในสังคมซึ่งรัฐบาลเป็นผู้บริหารและประกันซึ่งบริหารโดยบริษัทเอกชน การทำประกันคือการนำข้อตกลงส่วนหนึ่งถึงเงินไว้ในการเอาประกันและ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การจ่ายเบี้ยประกัน เมื่อเงื่อนไขที่ได้ตกลงเอาไว้เกิดขึ้นผู้เอาประกันก็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ออกมาแทนหรือเมื่อสิ้นประกันเงินตามระยะเวลาที่ได้ตกลงไว้ก็จะ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คืนได้ พูดง่าย ๆ ก็คือการที่คนหลายๆ คนร่วมกันเก็บเงินเอาไว้เพื่อเอาเงินดังกล่าวไปช่วยเหลือผู้ประสบเหตุร้าย ซึ่งต่างกับการฝากเงินซึ่งเป็นการเก็บเงินเพียงลำพัง ถึงแม้ว่าประกันจะมีประโยชน์ในยามที่ได้เงินคืนแต่หากเกิดโรคภัย แต่ก็ไม่คุ้มเพราะมีค่าเบี้ยประกันที่แพงกว่าการฝากเงินให้เสียเงินไปเปล่าๆ และสิ่งที่ควรระวังอีกอย่างคือการเลือกจ่ายเบี้ยประกันกลางคัน(หรือเรียกว่า "การยกเลิกสัญญา")นั้นจะทำให้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เบี้ยประกันที่จ่ายไปแล้วคืนมาได้

1 보험이란?

보험은 사망, 질병, 장애, 실직, 노후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저축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국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있고,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민영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은 보장받을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하여 보험료를 일정한 기간 동안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혼자서 돈을 모아서 하는 저축과는 다릅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아 도움이 되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합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การออมทรัพย์และประกัน
저축과 보험의 차이

ประเภท 구분	ระยะเวลาจ่ายเงิน 가입기간	การยกเลิกกลางคืน 중간 해지	ข้อควรระวังก่อนสมัคร 가입 시 주의사항
ออมทรัพย์ 저축	สั้น 짧다	รับเงินคืนเงิน 원금보장	ตรวจสอบว่าเงินฝาก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หรือไม่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
ประกัน 보험	ยาว 길다	สูญเสียเงินต้น 원금손실	ตรวจสอบเงื่อนไขให้อย่างรอบคอบก่อนทำสัญญา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기

* วิธีเพิกถอนสัญญาประกัน(วิธียกเลิกสัญญา) : ผู้ทำประกันสามารถยกเลิกสัญญา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มีเหตุผลใดๆภายใน 15 วัน(30 วันในกรณีทำสัญญาการขยายทางโทรศัพท์)นับตั้งแต่วันทำสัญญา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สามารถยกเลิกสัญญาได้ภายใน 3 เดือนหากไม่ได้รับฟังคำอธิบายเกี่ยวกับผลิตภัณฑ์อย่างชัดเจนหรือไม่ได้รับหนังสือสัญญา

* 보험계약 철회방법(취소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대로 상품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ประเภทของประกันภัย

(1) ทำความเข้าใจในประกันของรัฐ (ประกันหลัก4อย่าง)

ประกันของรัฐเป็นประกันที่จัด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นโยบายสวัสดิการสังคมเพื่อ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ซึ่งประกันของรัฐที่เป็นที่คุ้นเคยกันดีได้แก่ 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ซึ่งเป็นประกันที่ให้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กรณีที่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จากการทำงาน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เจ็บป่วยหรือประสบปัญหาสุขภาพ, 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ซึ่ง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ระหว่างการทำงานใหม่ของผู้ที่ตกงานเนื่องจากนายจ้างเลิกกิจการหรือสัญญาจ้างสิ้นสุดลง, ประกันภัยในที่ทำงาน ซึ่งให้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กรณีที่เกี่ยวข้องหรือ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เนื่องจากเกิดอุบัติเหตุในที่ทำงาน, บำนาญ ซึ่งเป็นเงินที่สามารถนำไปใช้จ่ายในวัยที่ไม่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ได้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แก่ชรา

2 보험의 종류

(1) 공공보험(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공공보험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보험과 회사가 문을 닫거나 고용계약이 끝나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고용보험, 일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서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산재보험,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경우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등 네 가지입니다.

ประกันหลัก4อย่าง 4대 보험

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ที่จะได้ประสบเจอเมื่อเข้ามาใช้ชีวิตในเกาหลีนั้นมากมายหลายประการ แต่สิ่งที่ยากลำบากที่สุดคง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ความเจ็บป่วย หากได้ทำ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เอาไว้ก็จะสามารถช่วยบรรเทา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ในยามเจ็บป่วยได้มาก นอกจาก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ล้วก็มีผลิตภัณฑ์สุขภาพอื่น ๆ สำหรับเตรียมรับมือกับวันข้างหน้า เช่น ประกันชีวิต, ประกันโรคร้ายแรง, ประกันชีวิตผู้สูงอายุ ต่างๆ เหล่านี้ที่เป็นผลิตภัณฑ์ของบริษัทเอกชนที่ควร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บดี ก่อนตัดสินใจเลือกผลิตภัณฑ์ที่เหมาะสมแล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กับตนเอง

한국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아플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이때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망, 질병, 노후 등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민가보험 상품도 있는데 보험료와 혜택이 잘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บัต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1 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กอง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1577-1000)

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จัด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นโยบายป้องกัน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และแบ่งเบาค่าใช้จ่าย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ที่เกิดจาก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ในยามที่เจ็บป่วยหรือบาดเจ็บ 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สามารถดูได้จากโฮมเพจกอง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www.nhis.or.kr) หรือโทรสอบถาม 1577-1000 สำหรับสำเนานิยามภาษาอังกฤษกรุณาโทรสอบถาม 02-392-0900 การทำ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กรณีของตนเองไม่มีงานทำจะมีรูปแบบ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ทั้งขึ้นอยู่กับผู้สมัครเป็นผู้มีงานทำหรือไม่

1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보험금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 또는 영어상담전화(☎02-390-2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본인이 직장을 다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방법이 달라집니다.

▶ กรณีที่ผู้สมัครมี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ในฐานะคนทำงาน

ในกรณีเช่นนี้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ได้ในฐานะผู้ถูกจ้างได้การดูแลของคู่สมรสซึ่งมีงานทำ โดยนำแบบฟอร์มขอได้สิทธิ์ผู้ถูกจ้างได้การดูแลของเจ้านาย, สำเนา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คนต่างชาติ, ใบรับรองความสัมพันธ์ในครอบครัว ไปยื่นได้ที่กอง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สาขาใกล้บ้าน ผู้ถูกจ้างได้การดูแลในที่นี้หมายถึงผู้ซึ่งไม่มีรายได้เป็นของตนเองและดำรงชีวิตจากเงินได้ของคู่สมรส

▶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되는 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지적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피부양자란 본인이 돈을 벌지 않고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กรณีที่ตนเองมีงานทำ

จะต้อง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ผ่านที่ทำงานโดยยื่นเอกสารจำเป็นเพื่อให้ที่ทำงานเป็นผู้สมัครได้

▶ 본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만 직장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กรณีที่ต้อง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องถิ่น

หากคู่สมรสเป็น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วนตัวหรือทำงานรับจ้างรายวันซึ่งไม่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ผ่านนายจ้างได้ ก็ยังมีสิทธิ์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ได้หากได้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ป็นเวลา 3 เดือนขึ้นไป โดยสามารถไป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องถิ่นได้ที่กอง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สาขาใกล้บ้าน หากคู่สมรสได้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องถิ่นแล้วก็สามารถเพิ่มชื่อเข้าไปในครอบครัวเดียวกัน

▶ 지역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와 본인 모두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아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라도,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지역보험으로 먼저 가입되어 있다면 하나의 세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 1350)

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จะให้ค่าคุ้มครองแก่ผู้ตกงานที่ถูกไล่ออก หรือถูกเลิกจ้าง โดยมีนโยบายจ่าย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ผู้ที่อยู่ระหว่างหางานทำ และ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สำหรับการฝึกอบรมวิชาชีพ

2 고용보험(고용노동부 1350)

고용보험은 해고, 감원 등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เคล็ดลับอย่าง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ก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
다문화가족 사례

วันนี้คุณแม่วิ่งได้เดินทางมาช่วยเลี้ยงดูลูก และช่วยเหลือตอนที่ฉันคลอดเกิดล้มลงทำให้ต้องเข้าเฝ้ารักษา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ปรากฏว่า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แพงจนน่าตกใจเพราะคุณแม่ไม่มี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 แต่ก็ทราบว่าหากได้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ป็นเวลาเกิน 3 เดือนจะ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ท้องถิ่นได้ทำให้ฉันเบาใจขึ้นมา

신청 어머니가 출산과 육아를 도와주려 한국에 오셨는데 길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체류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되었습니다.

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료화 촉구하며 고양.김포시와 공동성명 발표



파주시는 지난 2월 3일 일산대교에서 고양.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오늘의 이 공동성명 발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실현의 단초가 돼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복지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향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 고양, 김포 지역을 대표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도 지난 2월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김영의 기자

居住环境不佳的多文化家庭,今年入住购买租赁住房挑战 다문화가족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도전해요

韩国政府表示,今年为青年、新婚夫妇、高龄者等低收入阶层的住房稳定计划供应4万5000套购买租赁住房。购买租赁住房有望对多文化家庭等的住房稳定带来帮助。今年的目标4万5000户比去年的2万8000户购买租赁住房供应业绩增加60%以上,是自2004年开始推进购买租赁住房事业以来的最高值。

购买租赁住房是指,韩国土地住宅公司等公共住宅事业者购买现有住宅等后,以低廉的价格向改建、维修或改造后的入住者租赁住房。

今年的目标是▲新建购买约定▲公共改造▲以现有住宅的购买方式确保的计划。新建购买约定将比前一年增加75%,计划供应2万1000户。即,公共住宅事业者在竣工前约定购买民间事业者建设(或预定建设)的住宅的方式。

为了扩大3~4人以上的家庭也可以居住的新建中型住宅(60~85㎡)的供应,购买约定供应一定量以上的住宅,赋予运营商公共宅地优先、商家提供奖励,并为缓解事业者的负担特约保证而新建的计划。

公共装修计划供应8000户家庭。超过住宅容积率的旅游酒店等此前因住宅容积率的差异,不可能改变用途,但是政府从今年第2季度开始正在推进以公共改造来供应住宅的法令修正。

购买现有住宅将提供1万6000套。公共住宅事业者将从许可机关获得竣工许可的住宅购买,通过再粉刷、地板等维修后向低收入层迅速提供的方式。

购买租赁住房将提供给无住宅者,并

考虑收入标准(前一年度城市劳动者每户平均月收入)和资产标准等因素后提供。

今年购买租赁住房供应的特点是▲新设新婚II类型第4顺位,▲放宽1~2人家庭收入标准▲扩大多子女家庭认定范围▲高龄者无限制续约等。

高收入标准的新婚II类型是婚姻后7年,但没有子女的夫妻或因收入、资产无法申请的夫妻等,为入住而大幅度放宽入住条件而新设的第4顺位。

1~2人家庭的收入标准也有所放宽,多子女家庭的认定范围也有所扩大。高龄者可以无限制地续约。

排在第4顺位的是月平均收入在120%以下(双职工140%),如果总资产在3亿3000万韩元以下,就可以申请。

新婚夫妇购买租赁I类型为1万5000户,II类型供应5000户,多子女1500户,一般型是1万3000户,高龄者1000户购买租赁将给予供应。

在京畿道,通过京畿住宅城市公司,已经开始了对现有住宅的购买、租赁、预备入住者的第1次招募。

申请时间为2月22日至26日,以光州、九里、金浦、南阳市、东豆川、富川、水原、骊州、乌山、龙仁、议政府、坡州、始兴、平泽、华城等15个市郡的购买租赁住房为对象。

希望入住的多文化家庭只要向登记身份证的居住地的行政福利中心(居民中心,邑面洞事务所)提出申请即可。另外,京畿住宅城市公司还在招募同期租赁住房。

咨询热线1588 - 0466

<한글 기사 37면> 왕그나 기자

영아 둔 부모의 양육부담 준다

파주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실시

영아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에 반가운 소식이다.

파주시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경감을 위해 '시간제보육'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현재 파주시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개소로 금촌 어린이집(금촌1동)과 시립 산내어린이집(운정2동)에서 운영 중이며, 추가로 6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근로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으로 그중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아동당 1일 사용 시간제한은 없으며 월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월 80시간 사용이 끝나면 정부 지원은 안되지만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031-940-4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г дэмжих төвийн халамжийн үйлчилгээ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д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ийг шийдэх, нийгэмд зохицон төлөвшихөд дэмжлэг үзүүлж байна.

Гэр бүлд учирсан асуудлыг хамтдаа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өлөө хичээн ажиллах болно.

- Үйлчлүүлэгч**
олон соёлт болон гадаад гэр бүл,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цагаачлагч гэр бүл
- Үйлчилгээ**

төрөл	агуулга
Онцгой байдлын тусламж	хүчирхийлэл, гэр бүл салалт, амжиргааны доод түвшин, амиа хорлолт зэргийг хувь хүн бүрт тохирсон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үйлчилгээг танилцуулах, хамруулах
Төвийн дотоод зуучлал	Хувь хүн болон гэр бүлийн зөвлөгөө, төвийн болон гэрээр заада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ичээл, төвийн төрөл бүрийн цуглаанд зуучлах
Төвийн бус бусад зуучлал	Хуулийн зөвлөгөө, зайлшгүй тусламжийн бусад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зуучлах

Ажлийн цаг
09:00~18:00 (даваа~баасан)
цайны цаг 12:00~13:00

Холбогдох аргууд
утас, онлайн, центр биечлэн ирэх болон гэрээр

Лавлагаа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халамжийн ажилтан
☎ 031-949-9164

facebook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Төврүү ирэх зам:

хаяг: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보일천 우정: 교육지원청 부속일 대우 부속 9709, 333, 92, 92-1, 100, 77-1, 3, 030, 032, 062, 064, 065, 066, 068, 073)
(금촌역 우정) 교육지원청 부속일 대우 부속 9709, 333, 92, 92-1, 100, 77-1, 11-1, 3, 021, 030, 032, 062, 064, 065, 066, 068, 073.

메트로: 경의선 금촌역 부속-파주시청보일천 우정(15분정거리)
마шин: (서울) 자유로-문발IC-금촌-교육지원청 정류장 뒤
통일로-조리음료지원-금촌-교육지원청 정류장 뒤
(문산) 자유로-당동IC-통일로-금촌-교육지원청 정류장 뒤
통일로-조리음료지원-금촌-교육지원청 정류장 뒤

여성가족부 지원 경기도 파주시

Пажу хотын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г дэмжих төв

군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위해 핀셋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소 영업제한업소 50~100만원 지원, 해당 업소 운영 다문화가정에도 도움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월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행복 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한대희 시장은 "어떻게든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마음 아플 따름"이라며,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지원 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소와 영업제한업소 등 5,430여 곳으로,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번 행복지원자금 액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5개 종류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과 지난 연말 등 두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은 100만원, 지난 연말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인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행복지원자금은 온라인의 경우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한 후 서류확인 등을 거쳐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온라인 미신청 사업체와 대상 명단에서 누락된 사업체는 3월 8일부터 3월 12까지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서류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소요 예산 48억 9천여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군포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복지원자금 운영단을 구성해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행복 지원자금 지원은 군포·안양·의왕 3개시 합의를 따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는 기자

Новшеств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введённые в этом году, о которых должны зн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국정책

Внедр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езд

Введена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ETA),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быстрый и удобный въезд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заблокировать незако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остранцам, которым разрешён въезд в Корею без визы,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держк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и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ах, заранее получить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электро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ездку. Иностранцы, получившие электро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ездку,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карты и могут въехать в страну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их личности на специальной стойке проверки.

До сих п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целях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и при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расширило список въезжающих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личество безвизовых въезжающих в 2018 году увеличилось и составило 53% от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въезжающих.

езжающих.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въезжающих в страну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и нелегально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увеличилось до 54,1%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нелегалов 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было усилено собеседование для въезжающих, многим людям приходилось долго ожидать в аэропорту или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 родину из-за подозрения в намерении незаконно остаться в стран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пояснили, что учитывая указанные факторы была внедрена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Введён залог для лиц подлежащих депортации
Так же в законе об иммиграции был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Теперь возможно оплатить штраф за нарушение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порядка кредитной картой или картой предоплаты. Раньше оплата штрафов была возможна только наличными, поэтому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внезапно приходилось собирать наличные, но теперь возможно расплачиваться кредитной картой.

Также с 21 января была введена система залога депозитов для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авонарушителей. "Залог на гарантию исполнения" введение

данной системы будет выгодно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 как они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задержания и у них будет врем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выезду.

Раньше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внезапно подвергшимся задержанию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йд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не предоставляли время для сборов или подготовки к возвращению в свою страну, и их направляли в центры 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где они находились до депортации.

Теперь, при внесении залога (депозита) на гарантию исполне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рем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выезду, например для получения залога за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и т.д. При выезде из страны в срок, установле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залог возвращается.

Глав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власти может назначить депозит в размере до 20 миллионов вон иностранцам, подлежащим депортации.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условий, весь или часть депозита будет переведена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казну.

〈한글 기사 1면〉

장올가 기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월부터 현장 접수

군포시 1인당 10만원 ... 외국인주민도 온오프라인 신청

군포시는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2021년 1년 19일 기준 군포시 거주 시민(거주 외국인 포함) 273,775명으로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지급하며,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후 3개월(시한 : 2021년 6월 30일) 안에 주민등록 거주지 내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취약계층(기초연금수령 고령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 2만 6,400여 명)의 경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일반인은 3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계획인데, 신청 분산을 위해 2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

화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됐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올해 모든 거주 외국인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안전총괄과(031-390-0449)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교육으로 부모역할 지원해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부모역할 등에 대해 알려준다. 부모역할지원사업인 '군포부모학교'는 3월 20일 1회기로 자녀 훈육법이, 3월 27일 2회기로 자녀 자존감 높이기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3월 12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군포시 거주 유.아동기(2~11세) 부모 40명 대상이며 회기당 20명이다. 참여자 가정 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단국대학교 외래교수인 유지혜 강사의 강의로 이뤄진다. 신청 및 문의는 센터(031-392-1812)로 하면 된다. 토요일봄 너나들이로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이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까지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월 23일까지 온라인(http://gunpo.familynet.or.kr) 선착순 접수한다.

이지은 기자

올해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추가 감면한다

군포시, 코로나19 장기화 극복 2월 부과분부터 감면 대상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추가로 3개월 동안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 규모는 4400여건에 액수는 월 4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380여건, 14억 5,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수도과(031-390-32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달리는 북버스 이동도서관 서비스 4만권 도서 구비 45인승 버스 출동

군포시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6개 지역 14곳을 순회하는 '2021년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동도서관 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주변으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한 차량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노인과 임산부, 소외된 지역주민 등에게 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5인승 버스를 특수차량으로 개조한 이동도서관은, 아동·일반도서 등 총 39,700여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1,132명, 제공된 도서는 5,944권에 이른다.

이지은 기자

부모역할지원사업
군포부모학교

1회기
"자녀 훈육법"
일시 : 3월 20일(토)
10:00~12:00

2회기
"자녀 자존감 높이기"
일시 : 3월 27일(토)
10:00~12:00

접수기간 | 2021.02.15.(월)~2021.03.12.(금)
접수방법 |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참여대상 | 군포시 거주 유·아동기(2~11세) 부모 40명 (회기당 20명)
장 소 | 참여자 가정 내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 사 | 유지혜 강사(단국대학교 외래교수)
문 의 | 031-392-1812 담당자 박다혜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격수업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 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일 시 : 2021년 2월 15일 - 상시
참여방법 : 센터 방문 및 회원등록 - 반 배정 안내 - 수강신청서 작성 및 교육참여
비 용 : 무료 / 교재비 별도(개별 구입)
장 소 : 각 가정 내(비대면), 센터 내(대면)
신 청 : 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가능
문 의 : 031)395-1811. 담당. 노희진
내 용 : * 신규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여권 지참
발음교정반1, 동화책으로 만나는 한국어교육, 토픽 읽기, 토픽 듣기, 토픽 쓰기, 취업반, 발음교정반2, 중도입국자녀반, 검정고시반, 기초반1,2

군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요일봄
너나들이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

대 상 : 군포시거주 양육자와 자녀 20가족 (*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일시 : 2월 27일(토) 10:00-12:00
교육방법 : 실시간 비대면 교육(시스코 웹엑스 활용)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

모집기간 : 2월 9일(화) ~ 23일(화)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gunpo.familynet.or.kr)
*선착순, 신규이용자 우선 접수
문 의 : 담당자 은현주(031-392-1816)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Những chính sách về xuất nhập cảnh được thi hành mới trong năm nay mà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nắm bắt. 올해 달라진 한국의 출입국정책

Áp dụng chế độ cấp visa du lịch điện tử

Nhằm mục đích hỗ trợ việc nhập cảnh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Hàn quốc một cách nhanh chóng và thuận tiện nhất cũng như ngăn chặn được việc lưu trú bất hợp pháp, trong năm nay Hàn quốc đã quyết định thi hành chế độ cấp visa du lịc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hông qua hệ thống điện tử(ETA)

Bộ Tư pháp cho biết sẽ cấp visa du lịch điện tử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thuộc diện không cần visa vẫn có thể nhập cảnh được nhằm đảm bảo duy trì trật tự xã hội cũng như phán đoán thấy điều này là cần thiết cho lợi ích của Quốc gia.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n được visa du lịch điện tử sẽ được miễn xuất trình visa tại cửa Nhập cảnh mà chỉ cần xác nhận những thông tin cơ bản của bản thân mình tại quầy kiểm duyệt dành riêng cho dạng visa này là có thể nhập cảnh.

Bộ Tư pháp cho biết trong thời gian vừa qua với mục đích mở rộng quan hệ ngoại giao cũng như duy trì một lượng khách tham quan ổn định nên đã tiến hành mở rộng đối t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visa. Bộ Tư pháp đã thu được kết quả sau khi tiến hành triển khai phương án đó chính là bộ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visa chiếm đến 53% tổng số ngườ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eo con số thống kê năm 2018. Tuy nhiên, song song với con số người nhập cảnh tăng thì con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visa lưu trú bất hợp pháp cũng tăng đến 54.1% trong tổng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dẫn đến việc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ần phải trải qua vòng phỏng vấn đầy gắt gao của Đại sứ quán hay phải đợi hàng giờ đồng hồ tại quầy Nhập cảnh tại sân bay, vv nếu trong quá trình kiểm tra cơ quan chức năng nhận thấy có những điều nghi vấn liên quan đến việc lưu trú bất hợp pháp sẽ không được phép nhập cảnh mà phải quay trở lại quốc gia của mình. Nhằm khắc phục những vấn đề nêu trên Bộ tư pháp đã ra quyết định thi hành chế độ ETA.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cấp loại visa này là những công dân thuộc 66 quốc gia kí hiệp định miễn visa với Hàn quốc, 46 quốc gia được chỉ định là quốc gia được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visa. Bộ Tư pháp cũng đang gấp rút chuẩn bị những công đoạn tiếp theo như tạo ra hệ thống để có thể thi hành chế độ này một cách tuần hoàn nhất vào trong năm tới.

Áp dụng nộp tiền bảo chứng với Lệnh xuất cảnh
Trong năm nay, chế độ về tội phạm liên quan đến xuất nhập cảnh cũng đã được thay đổi. Bắt đầu từ năm nay người nước ngoài vi phạm luật xuất nhập cảnh cũng có thể thanh toán tiền phạt bằng thẻ tín dụng hoặc thẻ check. Trước đó, tiền phạt chỉ có thể nộp bằng tiền mặt nên thỉnh thoảng có gây ra một số những bất tiện đối với người bị nộp phạt nhưng hiện nay người vi phạm có thể nộp bằng thẻ ngân hàng, đây là một điều rất thuận lợi.

Ngoài ra, kể từ ngày 21 tháng 1 vừa qua, chế độ

nộp tiền bảo chứng đối với người nhận được lệnh xuất cảnh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do vi phạm luật xuất nhập cảnh cũng đã được thi hành. Điểm hữu íc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hi nộp số tiền bảo chứng này đó chính là không cần phải về những cơ sở bảo hộ người nước cho đến khi xuất cảnh mà họ có thời gian để chuẩn bị những vấn đề cá nhân khác trước khi xuất cảnh.

Trước đây, người nước ngoài khi không đăng kí chứng minh thư tại Hàn quốc, khi bị các tiến sỹ chức năng của Bộ Tư pháp bắt, họ sẽ được dẫn về các cơ sở bảo hộ người nước ngoài, chờ ở đó cho đến khi được xuất cảnh mà không có thời gian chuẩn bị đồ đạc hay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cá nhân trước khi rời khỏi Hàn quốc. Bắt đầu từ năm nay, khi người nước ngoài nộp tiền bảo chứng trước khi xuất cảnh thì họ sẽ có thời gian để có thể xử lý các việc cá nhân của mình như nhận lại tiền đặt cọc nhà, vv Số tiền bảo chứng đó họ sẽ nhận lại được sau khi xuất cảnh theo đúng thời gian mà Bộ tư pháp đã yêu cầu.

Số tiền bảo chứng này được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quy định, tối đa là 20 triệu won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n được lệnh xuất cảnh.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vi phạm nội quy này thì số tiền bảo chứng đã nộp sẽ bị trích một số hoặc toàn bộ vào quốc khố của Hàn quốc.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기자

京畿住宅都市公社、傳貰賃貸 전세임대 3,380世帯入居者募集

2月22~26日まで、多様な階層供給... 居住地域の住民センターにて申し込み

京畿住宅都市公社(社長イ・ホンオク、GH)は、京畿道内の低所得層のための‘既存住宅傳貰賃貸’ 3,380世帯の入居者を2月22日から募集すると発表した。

既存住宅傳貰賃貸事業は入居選定された人が希望する住宅を探し、GHが既存住宅の所有者と傳貰契約を締結して、廉価な賃貸料で再賃貸する制度だ。

対象住宅は國民住宅規模85㎡以下の單獨、多世帯、文化、住居用オフィステルだ。今回の募集の特徴は、申し込み対象を既存の一般タイプ以外に高齢者、新婚夫婦を含んだことだ。

賃貸期間は2年、最大9回の再契約で20年間居住可能だ。

申し込み対象は無住宅世帯構成員で、道内31の

市郡に居住する生計・醫療受給者、ひとり親世帯、都市勤勞者月平均所得70%以下の障がい者、住居支援が急がれる世帯、高齢者、新婚夫婦など、公告文にて定められた資格条件を満していれば申し込み可能だ。

一般タイプと高齢者タイプは入居者負擔金5%を除外すれば、世帯当たり最大1億450万ウォンまで傳貰金の支援を受けられる。新婚夫婦タイプは入居者負擔金を除外した1億2,825万ウォンまでの傳貰金支援が可能だ。

申し込み期間は2月22日から26日まで。入居者募集公告日基準で申込者の住民登録が登載された居住地の住民センター(邑面洞事務所)にて申し込むこと。

チャン・ドンウGH住居事業本部長は、“昨年は

一般タイプが中心だったが、今年は高齢者、新婚夫婦など、多様な階層へと対象を拡大し、今年の供給物量を合わせると公社の傳貰賃貸世帯数は計1万6千号となる”とし、“道民の安定した住居環境のために住居福祉事業を持続的に拡大していく”とした。

入居予定者の発表は申し込み日から3ヶ月後、GHホームページ(www.gh.or.kr)に掲示されるか個別通報される予定。その他の事項はGHホームページを参考にすること。

一方、京畿住宅都市公社は買入賃貸住宅の募集も行っている。

問い合わせ：1588-0466

〈한글 기사 44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다문화가족 향한 지역 기업들의 지원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 다문화가정에 설 선물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월 9일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와 함께 하는 제25회 다문화 가정 후원나눔행사'를 가졌다.

설을 맞이해 영일식품을 포함한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자체 생산품인 세제, 손칼국수면, 양념, 빵, 찹쌀떡과 라면 등(850만원 상당)을 다문화 가정 40가구에 전달했다.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다문화가정에게 물품을 후원해 왔으며 이번 행사가 25회째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식품제조가공업협회와 다문화가정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후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물품 나눔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반려고양이까지 동물등록 확대 광명시, 1만원만 부담하면 가능

반려고양이를 키우는 다문화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기존 반려견에만 한정됐던 동물등록을 2월부터 반려고양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내 지정 동물병원 17개소(사전예약 필수)에서 내장형 칩을 등록하면,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 중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 등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만원의 진료·상담비 부담만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은 12일부터 기존 인식표, 내장형 칩, 외장형 칩 3가지 방식에서 내장·외장형 칩의 두 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 반려묘 등록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02-268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12일까지 직업교육훈련 '반려동물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3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180시간)고, 교육은 주 5일(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며, 교육 장소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다.

김영의 기자

광명동굴, 외국인들이 꼭 가 볼 만한 대표 관광지로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 국내외 누적 관광객 592만명, 다양한 볼거리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이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9일 2021~2022년도 '한국관광 100선'에 광명동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7~2018년, 2019~2020년에 이어 3번째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것으로,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 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 이번이 5회째다.

이번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은 ▲2019~2020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지자체 추천 관광지, ▲최대 방문 관광지 중 선별한 198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 선정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1972년까지 금·동·아연을 채굴하던 수도권 유일의 광산으로, 1972년 폐광된 이후 새우젓 저장고로 쓰이다가 2011년 광명시에서 매입하여 개발했다.

동굴 내부에는 각종 공연과 3D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동굴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황금폭포, 근대 역사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동굴 외부에는 라스코전시관, LED미디어타워, 인공폭포, 도담길 등 특색 있는 장소와 다양한 즐길 거리도 있다.

광명동굴은 지난 2015년 4월 유료 개장한 이래 592만 명이 방문했으며,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이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광명동굴을 사랑해 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광명동굴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화공원은 한반도 평화 염원과 관광객들을 위한 역사 체험의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광명동굴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한 위로와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관광 100선에는 광명동굴을 비롯해 광주 화담숲, 양평 두물머리, 임진각과 파주 DMZ 등 경

기도의 관광지 12곳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안내

가정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p>한국어교육</p> <p>대상: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회기: 주 2회, 2시간, 80회기</p> <p>-한국어교육 1~4단계 -이해, 문법, 화용, 문화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정보제공</p>	 <p>부모교육</p> <p>대상: 임신-아동기 부모 회기: 주 2회, 2시간, 40회기</p> <p>-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기타 한국 생활 필요 정보제공</p>	 <p>자녀생활</p> <p>대상: 13세 미만 다문화자녀 회기: 주 2회, 2시간, 80회기</p> <p>-숙제지도, 독서코칭, 토론지도 -문화인식, 공동체 인식 지도 -기분생활습관, 건강 및 진로지도</p>
---	--	---

신청방법

1. 센터문의접수: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문의(02-6265-1366)

2. 행정복지센터: 센터 문의 후 거주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외(연경) 신청서 2면·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체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동반 상 가제된 주민등록증본 1부,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지참

이용요금

중위소득 150% 이하 (9인가구 기준 597,221원 이하) **무료이용** 중위소득 150% 이상 **월 8회기준 65,280원**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문의 02)6265-1366 | Fax 02)2611-5470



결혼이민자가 만든 '다문화 밀키트' 전달
광명건가다가, 베트남 음식 다문화가족 등에 전달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내 각 단체는 설을 맞아 나눔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2월 3일 결혼이민자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설날 다문화 밀키트' 전달식을 가졌다. 다문화 밀키트는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만든 베트남 음식(쌀국수, 반미)으로 70인분을 다문화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광명식품제조가공협회 영일식품을 포함한 8개 업체에 전달했다. 밀키트를 제작한 결혼이민자 김하영씨는 “평소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해주신 광명식품제조가공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결혼이민자로서 고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마음을 담은 따뜻한 한 끼

로 정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명식품제조가공협회 이영면 명예회장은 “광명시 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후원 물품을 지원하면서 다문화가족과 2013년도부터 인연이 지속됐다. 이렇게 직접 만든 베트남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밀키트를 전달받은 결혼이주여성 남편은 “베트남 음식은 가족이 함께 자주 맛있게 먹는 음식이지만, 이렇게 결혼이민자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은 처음이다. 다가오는 설날 아내 고향의 정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다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s://gmfc.family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 'e커머스 글로벌 창업과정' 참여자 모집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직업교육훈련 'e커머스 글로벌 창업과정'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교육대상은 여성 예비 창업자,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 여성으로 취(창)업 의사가 확고한 여성은 참여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184시간)이고, 주3일(월, 수, 금) 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이다.

교육내용은 1인 1오픈마켓 개설을 목표로 기업가 정신, 전자상거래, 성공창업 노하우, 글로벌 셀링 트렌드, Ebay 상품등록 실습, 셀러등급 상향전략, 국내외 전자상거래 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교재비, 실습재료비 포함)이며, 교통비로 월5만원씩 2회 지급(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한다. 자비부담금 10만원이 있으나, 교육수료 시 5만원,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원을 환급해 준다.

참가를 원하는 여성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1층 취업상담실(09:00~18:00)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2680-67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주거환경 좋지 않은 다문화가족, 올해 매입임대주택 입주 도전해요

역대 최대 4만5000호 풀린다 동주민센터 신청 ... 다문화가족 주거안정에도 도움될 듯

정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매입·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문화가족 등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작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지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목표 물량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2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동안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관 등 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II 유형 4순위 신설, ▲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II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

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됐고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다.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 이면서 총자산 3억3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I유형은 1만호, II유형은 5000호가 공급되며 다자녀는 1500호, 일반은 1만3000호, 고령자는 1000호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1차 모집이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파주, 시흥, 평택, 화성 등 15개 시군의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 1588-0466 <중국어 32면, 베트남어 24면, 러시아어 26면, 일본어 19면, 태국어 21면> 송하성 기자



바리스타 전문심화과정으로 전문성 높여요

김포건가다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바리스타1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2월 15일 관내 바리스타학원에서 경기도와 김포시 지원사업인 '202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바리스타1급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사업인 바리스타 양성과정이 단순한 취업 목적 외에 가정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여성 전문직으로써의 진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심화과정인 바리스타1급 양성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이번 '바리스타1급 양성과정'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10회 30시간 교육에 들어갔다. 매주 평일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자격증 취득 과정에 맞춰 실습과 이론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특히 2020년 하반기 바리스타 과정에 참

여하여 전원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창업 등의 심화과정을 통해 구성원 및 사업담당자들과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면서 미래를 찾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화 센터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강사 및 교육생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참여자들은 자격증 취득 후 지역사회 지원 연계를 통해 취업 활동과 재능 기부로 나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청년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만19세~30세)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는 제도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 필요하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가구에서 청년 가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1월부터 청년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에서도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걱정 없는 풍성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되며, 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가구 추천 주거취약 가구 주택 에너지 효율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1년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2차) 가구를 2월 2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받는다.

김포시 주택과에 따르면 주택의 노후도 및 난방이 취약한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총 18가구(예비대상 4가구 포함)를 금년도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로 발굴하여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노후도가 심한 자가 주택 및 소유자로부터 5년 이상 거주를 동의 받은 임차주택 거주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이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난방비등 주거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업으로써 일반 주택 개보수 사업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 개보수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가구당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전화 980-2416 ~ 2417),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일부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노력!

김포시 기존주택 전세 및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오는 2월 22일(월)부터 2월 26일(금)까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60호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기도에서 200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김포시는 16호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2.05) 기준 ▲(1순위자)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

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2순위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고령자) 차상위계층이상의 만 65세 이상인 자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맞벌이 90%) 이하인 가구 등이며,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 등으로, 모집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11,000만원~13,500만원)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980-2416~7),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Корпор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ёнги проводит набор на 3.380 квартир под аренду жилья с залогом.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ля различн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с 22 по 26 февраля ...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Корпор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ёнги (президент Ли Хон Ук, GH) объявила о том, что с 22 февраля начат набор 3380 арендаторов «существующего жилья под аренду с залогом» для семей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ёнгидо.

Проект "существующее жильё под аренду с залогом" реализуется по следующей системе: лицо, выбранное в качестве арендатора, подыскивает желаемое жильё, GH подписывает контракт с владельцем выбранного жилья под аренду с залогом, а затем пересдаёт жильё в аренду с залогом по невысокой цене.

Параметры жилья - это одноквартирные,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многоблочные дома, апартаменты, или жилой офистель с национальной шкалой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енее 85m². Особенностью данного набора является включение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молодёжи в дополнение к существующему общему списку заявителей.

Срок аренды составляет 2 года, и возможно максимальное продление до 9 раз,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зможно проживание в течении максимум 20 лет.

Претендентами являются семьи, члены которой не имеют соб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проживающие в 31

городах и округ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ёнги: получающие пособия на сре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и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неполные семьи, городские рабочие с ежемесячным доходом менее 70% от среднего,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жилые люди, молодожены и т.д.

Обычные семья и пожилы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максимум 104,5млн. вон на семью, исключая 5% арендного взноса, а молодожены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максимум 128млн.250тыс. вон без учёта арендного взноса.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с 22 по 26 февраля, и с даты уведомления о наборе,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подать в местн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районный, областной) по месту регистрации заявителя.

Тян Донг У,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жилищного бизнеса GH, сказа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овали обычные классы, 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а расширена цель на различные классы, такие как пожилые люди и молодожены.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домохозяйств, сдаваемых в частную аренду, составит 16.000 ». Мы будем расширять проект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жильём, чтобы создать стабильную жилищную атмосферу для жителей ».

〈한글 기사 44면〉 장울가 기자

기획 아키오의 한일역사 이야기

“정의 실현을 향해” 2021 일본군 '위안부' 판결



미야우치 아키오

코로나 확산 속에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음울한 새해 1월 8일에 서울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생존자는 5명)의 호소를 인정,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것입니다. 그날은 기이하게도 약 30년 전인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일본은 곧바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결판이 났다”, “2015년 한일합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라며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가토 관방장관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으로 한국 재판권 복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새로이 주장해, 판결을 받아들일 기색도 없습니다. 일본 언론도 배상명령으로 한국 내 일본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강제집행이 내려질지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우선 짚어봐야 하는 것은 강행규범(行規範-jus cogens)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모든 법률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은 잘못된 일이라 해도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노예)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행규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리가 작동되면, 비록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어도 이를 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일협정으로는 일본이 식민지배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하지 않았으며, 한국에 일종의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유상과 무상 경제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또한, 개인이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가 협정으로 인해 없어진 않았다고 일본 정부도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일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은 당시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 개선」으로 정권안정을 도모한 박근혜 정권이 피해자나 지원자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언약에 불과합니다. 합의한 박근혜 정권은 합의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원하는 한국시민의 힘으로 퇴진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응(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정한 강행규범이 적용됩니다. 한일협정과 합의를 구실로 일본 정부가 판결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재판에서 피고가 된 일본 정부 측은 한 번도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피고가 언급하지 않은 한일협정 한일합의는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국가면제)란 ‘어느 나라의 재판소가 다른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재판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국제관습법입니다. 즉 일본 정부는 한국(의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판가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피해자는 주권면제 예외가 된다’라는 것은 이탈리아 펠리니 사건 판결(독일로 인한 이탈리아인 강제노동 피해자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주권면제 예외가 되는 인권예외(人權例外) 요건으로써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위반한 규범이 강행규범?법정지국의 국내재판이 최후구제 수단일 것 등이 있습니다.(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낡은 국제법에서는 인권예외는 부정됩니다. 반대로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법에서는 긍정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세계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을 겨냥한 ‘반일’ 판결이 아니라, 제국주의로 인한 식민지 지배를 묻는 세계적인 인권의식 고조의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30년 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워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큰 한 걸음이 될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예외를 인정한 판결로써 국가로 인해 침해된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 김포에서는 가족 모두 안전하고 평등한 설명절 맞았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 설명절 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2월 6일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2021 설명절문화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화상회의 서비스 '줌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함께 대면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대면 교육에는 가족역량강화 대상자 중 북한이탈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자녀가 초대됐다.

센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김포 관내 다양한 가족과 민관학 관계자 등 200여 가구에 3일간 설명절 키트(떡국만들기, 윷놀이, 공기놀이, 중국 세뱃돈 봉투 및 전자공예)를 배분한 바 있다. 교육에는 이들 중 사전 신청한 55가정, 약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먼저 김연화 센터장이 설명절 이해교육, 한복입기, 세배하기, 전통·현대식 차례상 차리기 등 한국의 설 명절 문화교육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결혼이주여성 강사 3명(중국, 베트남, 일본)으로부터 각국의 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전통놀이와 떡국을 함께 만들며 행사를 마쳤다. 특별히 명절놀이로는 윷놀이와 공기놀이를 진행했는데 윷판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션들로 구성된 센터제작 자체 윷판을 활용했다. 공기놀이는 부모 및 조부모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게해 세대전수가 가능하도록 진행했다.

분리된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완화와 방역수칙에 의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자 중 북한이탈 한부모 가족들이 소규모로 명절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고향에 가지못하는 아쉬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일본의 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참여한 유미코 씨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본과 한국의 명절의 비슷한 점과 다른점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

다. 일본의 설 명절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며 "코로나19로 아이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윷놀이를 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사회의 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올해 설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수칙과 관련해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만큼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인 명절행사에 전통과 현대의 방식을 절충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설 명절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은 체험재료가 담긴 사전 키트 외에도 명절음식레시피 및 전통놀이 방법, 센터에서 제작한 윷판, 명절문화캠페인 자료 등 풍성한 유인물과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로 호평을 얻었다.

이지은 기자



쌍방향 소통 가능한 한국어교육 진행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경기도와 김포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인 '2021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을 개강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코로나19로 갑작스런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학습자 일방시청 방식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올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은 ▲2021년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수업이 이뤄진다. ▲김포시 관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규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과 TOPIK 초급, 중급, 그리고 자격증 대비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3시~15시까지며, 주말반(토)은 오전 10시~13시까지 진행된다. (반은 단계별 배치평가 후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은 2월22일~3월5일까지 관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단계별 배치평가와 ZOOM이용방법 교

육에 참여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통해 가족 간 유대관계 향상을 위해 무료(교재비 자부담)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즐거운 한국어, 정확한 한국어와 영화와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개별연구교재), TOPIK 교재를 활용한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단계별 배치평가를 통해 난이도를 조절하여 반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통해 한국어 강사님들의 ZOOM활용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연구하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ZOOM 이용 방법을 사전에 교육하여 수업 참여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2021 부모역할지원

온라인 (줌 Zoom 활용) **예비 초등학교 부모교육**



우리아이 초등학교 입학! 슬기롭게 함께 준비해요^^

회기	일시	장소	내용
1	2021.2.24(수) 10:00~12:00	온라인 (줌 Zoom 활용)	- 코로나시대 온라인학습법 - 학교가기 전 준비사항 -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강사 박지현 소장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센터 홈페이지 (<http://gimpo.familynet.or.kr>) 로그인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목록 → 신청하기

문의 가족사업2팀 고은정 031-996-5923
* 신청자에 한하여 줌 Zoom 링크 주소 개별문자 발송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김포시 전 세대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50매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2020.12.31. 기준 김포시로 되어있는 세대주
배부물품: 세대당 20리터 50매
지원시기: 2021. 1. 18.(월) ~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볼 만한 과천시 알짜정보 모았어요”

과천시, 동네정원. 청년 마음다방. 자전거보험 등 다양한 시책 눈길



과천시는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할 만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으로 마음마저 환하게!

과천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꾸미는 ‘시민참여형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을 통해 마을정원 2개소를, ‘공공주도형 마을정원’에서는 중앙공원 꽃길과 화분정원 조성을 하게 된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마을 내 공원 및 공유지 등 이용 가능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10인 이내의 동별 마을공동체가 정원을 조성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게 된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에서는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정원교육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원설계와 조성 자문을 해 줄 시민정원사를 매칭할 예정이며, 조성 설계에 따라 관목, 초화류와 정원조성 자재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도형 마을정원’은 중앙공원 산책로 주변에 꽃길 조성 및 장소에 제약이 없고 이동 가능한 꽃 화분을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형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시청 홈페이지→과천소식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3월 5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과천시(02-3677-2722)로 하면 된다.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자!

과천시는 올해에도 주민의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2021년에도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며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자전거보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상해 후유장애공제금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 사고 별

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총 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보험 관련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2021년 2월 9일 이전 발생 사고의 경우 MG새마을금고(02-502-3602)로, 2021년 2월 10일 사고부터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마음다방에서 내 마음에 비타민 선물!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번 달부터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청년 마음다방’을 매월 1회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변화, 경제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다.

청년 마음다방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2월 23일 첫 프로그램으로 ‘명상 프로그램, 내 마음의 비타민’이 진행된다.

‘명상 프로그램, 내 마음의 비타민’에서는 불안, 우울,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을 명상과 호흡을 통해 배출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내면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2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는 중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선착순 10명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문의는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kcmhc.or.kr)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또는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2-504-4440)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실

- 상담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상담내용**
 - 상담: 부부갈등, 이혼문제, 가족문제, 자녀양육, 성격문제, 부모-자녀관계, 진로학습문제 등 상담
 - 놀이치료: 심리적 문제, 유치원 및 학교 부적응, 부모자녀 관계 등 어려움을 겪는 유아~아동 놀이치료
 - 심리검사: 인성, 성격, 학습, 진로 등 다양한 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
- 상담방법**
 - 상담전문가와와의 1:1 개인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
 - 놀이치료전문가와와의 1:1 놀이치료, 부모상담, 심리검사
- 접수 및 문의**
 - 센터 전화접수 후 상담실시(연중수시)
 - 가족상담팀 : ☎ 02-503-0070





아이돌봄서비스

내 아이 돌봄을 책임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입니다.

- 대상** 영아 종일제 : 만 3개월~만 36개월
시간제/종합형 : 만 3개월~만 12세
- 내용** 돌봄 및 놀이 활동, 준비된 급·간식 제공 등 (영아는 이유식, 목욕, 젖병소독 등 제공)
-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 가입 후 아이돌보미 연계(정부지원대상자는 동사무소 문의,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아이돌봄팀 02-507-0073 / 02-503-0041

청년 마음다방 명상 프로그램 '내 마음의 비타민'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과천시 거주하는 청년(만19~34세) 10명
- 신청방법**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교육게시판 참조
- 일시** 2021.02.23(화) 16:00~17:00 온라인(zoom)



문의 | T.02-504-4440 Email. kcmhc@hanmail.net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Gwacheon Community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자살예방센터

한국 명절에 다문화가족, 이웃과 '전' 음식 나눠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복된 하루' 사업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지난 2월 6일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명절 지원사업 '복된 하루'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정 50가족이 참여한 이날 프로그램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다문화가족과 함께 명절음식을 배우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에 배포한 식재료를 활용해 한국 설명절의 유래 및 문화를 소개하고 동그랑땡, 갯잎전 등 5종류의 '전'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활동이 진행됐다.

전문요리사가 진행한 '복된 하루'는 단계 별로 '전'을 요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들을 배려해 참가자들이 음식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요리과정 중간에 전 만들 때의 주의사항,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는 방법 등 요리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결혼이주여성 엄마 외에도 아빠와 자녀 등 온 가족이 참여한 경우가 많아 사이 좋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 심심한데 명절에 꼭 필요한 요리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며 "한국음식을 자주 하

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 오늘 요리를 하는 과정이 아주 재미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아내와 함께 참여한 한 남성은 "다문화가정에 유익한 요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가 끝나면 꼭 센터에 가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하루 전인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사진 맨 오른쪽)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은 이주배경아동 돌봄환경개선지원사업 '레인보우 빌리지'도 추진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안양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5곳으로 확대해

안양시가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안심무인택배함이 5곳으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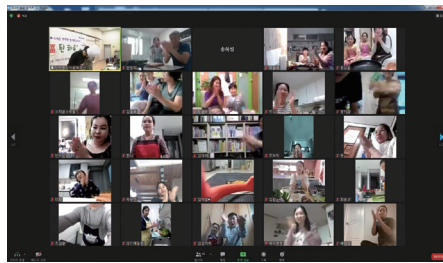
안양시가 10일 안양4동·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과 명학역 육교(1번 출구) 등 3곳에 공공 안심무인택배함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무인택배함은 택배 주문 시 받을 곳을 택배함 주소지로 요청, 택배 도착 알림 문자 수신 후 48시간 이내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택배 배달원과 마주칠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어 여성을 비롯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특히 편리함을 누리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설치된 3곳은 시가 여성인 가구,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 치안사고 현황 등을 종합한 6만3천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 공간중점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렇게 확대되는 안심무인택배함은 장기보관 방지를 위해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24시간 마다 1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지은 기자



2021년 경기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모집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 장점을 살려 놀이,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하는 활동

- **모집기간**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25일 17:00 까지
- **모집대상**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안양시민 9팀 (2가정 이상 그룹 형식)
- **우선 선정기준** 1.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영유아 포함) 둔 신규 품앗이
2.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를 둔 신규 품앗이
3.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영유아 포함)를 둔 기존 품앗이
4.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를 둔 기존 품앗이
- **활동내용** 육아정보나눔, 취미활동, 학습&놀이, 등하교 품앗이 등
- **활동지원** 그룹 당 활동비 월30,000원 지원 (예산 범위 내 제공)
- **활동방법**
1. 그룹형성방식 신청문의 -> 회원가입 ->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교육 -> 품앗이 활동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교육(온라인 zoom) 3월 3일 11시~12시, 19시~20시(팀끼리 1회 참여 필수)
2. 이용시간 및 장소 - 센터 강의실 및 육아나눔터 이용 시 : 월~금 09:00~18:00
- 센터 외 장소 자유롭게 진행 (가정·야외 등)
- **신청문의** 교육상담팀 최병현 " ☎ 031)8045-5573 "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주배경아동 환경개선지원사업]

레인보우빌리지 참여아동모집 2021

- 활동기간** 2021.03~10. 매주 월/수 16:00~18:00 (주 2회)
- 활동내용** 아동의 주체적인 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 아동권리·다문화 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 아동권리플래시몹 제작 (작사, 플래시몹 영상 기획 및 제작)
-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을 지도 제작
- 아동권리선언식
- 모집대상** 안양2·3동, 박달1·2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 20명
- 모집기간** 2021년 2월 1일(월) ~ 2월 19일(금)
- 지원방법**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방문 또는 유선연락(031-464-9701)



“코로나19 우울함, 요리교실과 취업교육으로 싹~ 날려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선주민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제과기능사 자격증과정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취업욕구가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적 주체로서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결혼이민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이 신청인원보다 있을 경우 2021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취업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 교육기간 : 2021.03.31.(수)~2021.06.30.(수)

구분	운영일시	운영횟수/시간	장소
취업기초소양교육	03월 31일(수) 10:00~14:00	1회기/4시간	안양시청 2층 일자리센터 교육관
교육일시	2021.04.02.(금)~2021.06.30.(수) 매 주 수, 금 14:00~17:00	총 24회기/72시간	BNC 요리제과제빵학원
계	25회기/76시간(1회기 취업기초소양교육, 24회기 교육)		

※ 양개입장은 센터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1. 3. 02(월) ~ 03. 24(목) 09:00~18:00(업무시간 내)
 * 면접일시 : 2021. 3. 26(금) 14:00~16:00(신청인원 10명 초과 시 면접 실시)
 * 코로나19 악재에 수혜에 따라 모집인 및 면접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대상 :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총 10명 (10명 이상 지원 시 면접 진행)

되며, 키트를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 요리에 참여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선주민과 소통으로 지역사회 소속감 증대 및 공동체 의식 함양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 내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취업 욕구가 높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취업처를 연계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주체로서의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제과기능사 자격증과정이 총 25회기 진행되며 3월 26일 면접 후 3월 31일 취업기초 소양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수,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이뤄진다.

시청 일자리센터 교육장과 BNC요리제과제빵학원에서 교육이 이뤄지며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10명 대상이다.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취업 욕구

가 강한 결혼이민자, 한국어 중급 이상 과정 수료 및 취업 욕구가 강한 결혼이민자, 한국어 평가, 면접 등을 거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이 추천하는지 순으로 선정된다.

이번 취업교육은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기초소양교육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질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또 취업교육 진행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취업 욕구가 높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은 물론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취업처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주체로서의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은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과 자격증(국가 공인) 교육반을 구성하여 제과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 및 교육을 성실히 수료한 결혼이민자에게 워크넷, 일자리센터 등 취업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방문 신청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8045-6396)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가족요리교실 'Kitchen Together'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가족요리교실 'Kitchen Together'를 4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6회기로 진행한다.

'Kitchen Together'는 선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요리교실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효과를 갖기 위해 마련된다. 안양시 관내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 10가족을 모집하며 1~16회기 가정마다 요리조리 및 소개가 이뤄진다. 전문 강사를 이용한 특별한 요리 강의도 6회기 진행

외국인주민 119재난신고 5개국어 지원해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다문화 119안전지킴이' 운영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들도 119에 신고를 접수할 때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월 15일부터 '의용소방대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를 경기도 내 최초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지역에서 활동 중

인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외국인이 119에 신고를 접수할 때 재난종합지원센터와 신고자 간 3자 연결을 통한 통역을 지원해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는 현재 경기북부에 거주 중인 중국, 필리핀 등 4개국 출신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5개 언어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실시간 통역으로 신고자의 사정과 상태를 파악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통역 지원활동에 동참해준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신고 전화까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안양건가다가, 다문화가족과 함께 한 설 나눔 행사 개최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하는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 오후 4시 '2021 설명절 다문화가족과 함께 한 설명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되어서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는 놀이교구와 시장을 방문해서 장을 볼 수 있는 예코백을 배포했다.

안양시 다문화가족 45가족을 대상으로 센터 3층 지하나눔방에서 진행됐으며 연성대학교 서비스러닝센터의 후원으로 떡국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나눔행사가 되었다.

김영의 기자



안양시청 031-8045-7000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045-5705 안양여성의전화 031-468-1366 안양일자리센터 031-8045-210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3,380가구 입주자 모집

2월 22~26일까지 다양한 계층 공급...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현욱, GH)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380가구의 입주자를 2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몰색하면, 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대상을 기존의 일반형 이외에 고령자, 신혼부부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수

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일반형과 고령자 유형은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가구당 최대 1억 4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1억 2,825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일반형 위주에서 올해는 고령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세대수는 총 1만6천여호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GH홈페이지(www.gh.or.kr)에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 기간 매입임대주택도 모집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GH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주택의 골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비롯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으로, 집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는 기본주택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기본주택 분양형을 계획하고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공급·운영은 공공사업자가 하고 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와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문의 1588-0466 <중국어 26면, 베트남어 23면, 러시아어 39면, 일본어 35면> 송하성 기자

화성시 농업인 4천명에 '농작업용 안전화' 보급

화성시가 미끄럼 사고 방지 등 농업인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농작업용 안전화'보급에 나섰다.

농작업 시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준비된 안전화는 총 4천 켤레이며 신청량에 따라 읍면동별로 배분해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화 신청은 주민등록과 대상 농지가 화성시에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첨부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에 가입을 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본점, 정남, 태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города Хвасонг

Hwaseong Immigrants Community Service Center

Устный и письменные переводы(визит, телефон)

- Адрес: визит, телефон
- Время работы : четверг, пятница, суббота 10:00~18:00
- Виды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выходное пособ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травма, медицинск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ское право и другие виды консультаций.
- Языки консультаций: английский, русский, кыргызский, вьетнам, бангладеш, индонезия, монголия.

Выездн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оводятся вместе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юристами

*График посещения для мобильных посещений объявляется на веб-сайте или фейс-буке (в квартал не более 4х раз)

Поддержка устного перевода для гос. учреждений

- Полиция, мед. учреждения, банк и другие заведения.
-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 Мед. учреждения: регистрация и устный перевод
- Банк: затруднения с переводом
- Производство: языковые трудности с работодателем

※ Визитные переводы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Адрес центра

- Адрес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23(구문천리924-2)
- Факс : 031-8059-1265
- Время работы :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воскресенье 10:00 ~ 18:00
- Телефон : 031-8059-1625~8

Hwaseong immigrants community sevice center

Hwaseong Immigrants Community Service Center

এই সেন্টার দুই ভাবে পরামর্শ দাখি থাকে (সরাসরি এবং টেলিফি নামে)

- পরামর্শ স্থান : কনেন্দর পরদির্শনরে মাধ্যমে এবং ফো নামে মাধ্যমে ।
- পরামর্শরে সময় : সো আমবার থেকে রো আমবার 9 টা থেকে 5 টা পর্যন্তনত।
- পরামর্শরে বখিয়বস্তু : মালকি করতুক অপরাশি খেতি মজুরি বা বতেন, অবসর ভাতা, শলি্প দুর্ঘটনা, অভিবাসন, কাজরে শরত, মডেকিলে পরামর্শ, শকিয়া পরামর্শ, বীমা পরামর্শ, দেওয়ানি ও ফো জদারি আইন পরামর্শ, জি ওয়াল সম্পরকে, আশরয় সম্পরকে পরামর্শ দাখি থাকে।
- পরামর্শ পরদানরে ভাষা : ইংরজী, মঙগো লালিয়া, ভখিতেনাম, রাশখিয়া, ইন্দো লেশখিয়া, করিগসিতাল, চাইনীজ, বাংলা।

ভ্রাম্যমাণ কাউন্সলিং:

বদিশীদরে জনখ বভিনিন অঞ্চেলে আইনজীবী, শ্রমকরমী, সমাজকরমী এবং দো ভাষীরা পরামর্শ মূলক কাউন্সলিং করে থাকে এবং একসাথে পশোদার পরামর্শ গ্রহণ করা যাবে ।

*চলমান ভ্রাম্যমাণ কাউন্সলিং এর সময় সূচি সেন্টারে হো মশবেজ এবং ফসেবুকে পজে পাওয়া যাবে(ত্রমাসকি একবার, মো টে 4 বার)।

দো ভাষী সহায়তা :

পাবলিক পরভখিঠান--বদিশীদরে পরমো জনে সরকারী পরভখিঠানগুলতি ভাষা সহায়তা করে থাকে। যমেন থানা এবং অভিবাসনরে কখতেরো। **হাসপাতালরে চকিৎসা নতিে সমস্যার সৃষ্টি হলে বদিশীদরে জনখ ভাষা সহায়তা করে থাকে।

**বখাংকরি এর বভিনিন সমস্যার জনখ ভাষা সহায়তা করে থাকে।

**নখি গকারী এবং শ্রমকিদরে মধ্যম তখখ আদান-পরদানে অসুখিধার জনখ ভাষা সহায়তা করে থাকে।

***দো ভাষী পরখিবো পাওয়ার জনখ পূর্ববেই যো গামে গগ করা আবখ্যক।**

কনেন্দরে ঠকানা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23 (구문천리 924-2)
- ফ্যাক্স : 031-8059-1265
- পরামর্শরে গ্রহনরে জনখ নরিধারতি দলি ও সময় : সো আমবার থেকে রববার (০৯:০০--১৮:০০)
- ফো নাম নম্বর : 031-8059-1625~8

Những quy định về việc tái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법무부의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PCR음성확인서 제출해야

Trong thời gian trở lại đây, nhằm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dịch Covid-19 trong cộng đồng không chỉ những người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mà những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ũng phải thực hiện nghiêm ngặt những quy định do Chính phủ đưa ra. Chế độ tái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ã có một số thay đổi nhất định nhằm khống chế sự lây lan của dịch bệnh. Những thay đổi đó như thế nào? Chúng ta hãy cùng nhau đi tìm hiểu nhé!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í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ó nghĩa vụ nộp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PCR với Covid-19.

-Quy định hiện hành: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phải nộp một trong các giấy tờ như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với Covid-19 PCR, Giấy xác nhận của bệnh viện hoặc Giấy miễn xác nhận.

-Quy định thay đổi m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bắt buộc phải nộp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với Covid-19 PCR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với Covid-19 chỉ có hiệu lực khi được cấp trong khoảng thời gian 72 giờ đồng hồ bắt đầu tính từ lúc người nước ngoài xuất cảnh.

*Không tiếp nhận Giấy chứng nhận miễn xác nhận lây nhiễm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mặc dù Giấy chứng nhận này đã có hiệu lực trước khi quy định được thay đổi.

◆Hiệu lực tiến hành

-Quy định mới có hiệu lực kể từ lúc 00h thứ Sáu ngày 8 tháng 1 năm 2021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nhận được cấp phép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rước thứ Sáu ngày 8 tháng 1 năm 2021, bao gồm cả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được cấp phép miễn nộp Giấy xác nhận xét nghiệm khi tái nhập cảnh, nếu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từ sau 00h thứ Sáu ngày 8 tháng 1 năm 2021 đều bắt buộc phải nộp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với Covid-19 PCR mới có thể được nhập cảnh.

Các bạn đã xuất cảnh và đang có nguyện vọng quay lại Hàn quốc để tiếp tục công việc cũng như cuộc sống của mình hãy chuẩn bị kỹ về những thủ tục tái nhập cảnh do Hàn quốc thông báo để có thể xử lý tình huống một cách tốt nhất nhé!

법무부의 재입국허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내국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

해 온 외국인주민의 건강을 위해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현행규정: 재입국 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변경된 내용: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

*PCR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로 신청 불가

◆시행일

-지난 1월 8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1월 8일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1월 8일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확인해 주세요.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นโยบาย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ที่แนะนำในปี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วรทราบ 올해 출입국 정책 변화

การแนะนำระบ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

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ระบบการเดินทางการอนุญาต (กทพ.) เป็นที่รู้จักซึ่งสามารถป้องกันการเข้าพักที่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ขณะที่สนับสนุน

รายการ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และสะดวกสบายของนักท่องเที่ย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สามารถเข้าเกาหลี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 (วีซ่า) สามารถขอใบอนุญาตเดินทางทาง

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ล่วงหน้าได้หากจำเป็นเพื่อรักษาความสงบเรียบร้อ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หรือ 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ชาติ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ไม่ต้องส่ง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 และ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ได้หลังจากตรวจสอบตัวตนที่เคาน์เตอร์คัดกรองพิเศษ

จนถึงขณะ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ขยายจำนวนเป้าหมายการเข้าโดย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เพื่อขยาย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ส่วนบุคคลกับ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ดึงดูดนักท่องเที่ยว เป็นผลให้จำนวนผู้เข้างานที่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ในปี 2018 เพิ่มขึ้นในระดับที่คิดเป็น 53% ของผู้เข้าต่างชาติทั้งหม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ก็ตาม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ชี้แจงว่าจำ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มีวีซ่าเพิ่มขึ้นเป็น 54.1% 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ที่ผิดกฎหมาย ทั้งหมด และเป็นผลมาจากการเสริมสัมภาษณ์คนเข้าเมืองหลายคนรอที่สนามบิน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หรือ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เนื่องจาก สงสัยว่าจะอยู่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ประเทศเป้าหมายคือ 66 ประเทศที่มีข้อตกลงยกเว้นวีซ่าและ 46 ประเทศที่กำหนดให้เข้าโดย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ำ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เร่งเตรียมความพร้อม เช่น การพัฒนาระบบโดยมีเป้าหมายที่จะใช้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เดินทาง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ในปีหน้า

ใบ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การเดินทาง

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อาชญากรย้ายถิ่นฐานด้วยตนเองนี้ คุณสามารถชำระค่าปรับของ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ด้วย บัตรเครดิต

ติด หรือ บัตรเดบิต ก่อนหน้านี้การชำระค่าปรับทำได้ด้วยเงินสดเท่านั้นดังนั้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งต้องเตรียมเงินสดไว้อย่างกะทันหัน แต่ตอนนี้พวกเขาสามารถชำระด้วยบัตรเครดิตได้แล้ว

นอกจากนี้ ตั้งแต่วันที่ 21 มกราคม ระ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

สำหรับ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ก็ถูกนำมาใช้ เหตุผลที่การ

ใช้ระบบฝากผล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อ พวกเขาสามารถมีเวลาจัดระเบียบ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โดยไม่ต้องเข้าไปในที่พัก

ก่อนหน้านี้หา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มีเอกสารถูก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าบปรามกะทันหันพวกเขาจะไม่มีเวลาเก็บข้าวของหรือเตรียมตัว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และถูกย้ายไปยังศูนย์พักพิง และ รอการถูกบังคับให้เดินทางกลับ

ในอนาคตหากคุณจ่ายเงินประกันผลงานคุณสามารถมีเวลาจัดระเบียบ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ของคุณจนกว่าคุณจะ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เช่นรับเงินมัดจำ เช่น ซอนเช หรือ ค่าเช่าอื่น ๆ หากคุณ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ตาม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ำหนดคุณจะได้รับเงินมัดจำคืนทั้งหมด

หัวหน้า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าจออกคำสั่งให้ออกจากประเทศภายใต้เงื่อนไขของการฝากเงินฝากผลงานสูงสุดถึง 20 ล้านวอน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ภายใต้มาตรการ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อก หากฝ่าฝืนเงินฝากทั้งหมด หรือ บางส่วนจะตกเป็นของคลังแห่งชาติ

< 한글 기사 1면 >

이아리 기자

www.police.go.kr

네팔어 내로



विदेशीहरूको लागि अपराध रोकथाम पुस्तिका



अनजानमै गरिएको अपराध

- 1. हिंसा, चोटपटक, ब्ल्याकमेलिङ, घर तोडफोड, सम्पत्तिको विनाश, लुटपाट, बन्धक, असुली, धम्की आदि जस्ता अपराध गर्ने उद्देश्यले समूह बनाएको वा समूहमा सामेल भएको मामलामा कडा सजाय हुनेछ ।
- 2. चककु र भालो जस्ता हतियार अनुमति बिना बोक्न मनाही छ ।
- 3. तपाईं ज्यालाको पैसाद्वारा जुवा खेलमा संलग्न हुनुहुँदैन र तपाईंले जुवा खेलको लागि स्थान उपलब्ध गराउनु भएतापनि, तपाईं जुवा खेलका कार्यहरूमा बराबर हुने गम्भिर सजायको हकदार हुनुहुनेछ ।
- 4. सडकमा रहेको सम्पत्ति (साइकिल, आदि) मालिकको अनुमति बिना लियो भने चोरीको सजाय भोग्नु पर्नेछ ।
- 5. विदेशी विनिमय बैंकको प्रयोग नगरी विदेशी मुद्रा स्थानान्तरण गरेमा गम्भीर अपराधको सजाय भोग्नु पर्नेछ ।
- 6. लागू पदार्थहरू उत्पादन गर्ने, तस्करी, स्वामित्व र व्यवस्था मिलाउने जस्ता लागू पदार्थहरूसँग सम्बन्धित कार्यहरूलाई गम्भीर रूपमा सजाय दिइनेछ र तपाईं अनिवार्य बहिष्कारको हकदार हुनुहुनेछ ।
- 7. राष्ट्रिय नीति निकाल्ने, नकारात्मक गैरकानूनी अपूर्ण, विदेशीहरूको नकारात्मक प्रयोग र नकारात्मक प्रयोग/खरिद वा इन्टरनेट (डाक वेब) SNS, आदि मार्फत किने जस्ता नकारात्मक अपराधहरू बारे कठिन र गहन कानूनी कार्यवाही कार्यन्वयन गर्नु ।
- 8. 18 वर्ष माथिका विदेशीहरूले सधैं आफ्नो परिचय पत्र (पासपोर्ट अथवा विदेशी दूता कार्यालय) आफ्नो साथमा बोकेर हिंड्नु पर्दछ । परिचय पत्र साथमा बोकेर नहिंड्ने विदेशीले (1 लाख बनाइनु कम्) जरिवाना तिर्नु पर्ने हुन सक्छ ।
- 9. यदि तपाईंले दोश्रो व्यक्तिको परिचय प्रयोग गरी आफ्नो परिचय लुकाउन गरेको छ भने, उच्च तलको सरकारी सम्पत्तिको साथ पुर्‍याएको कसुरा तपाईंले सजाय भोग्नु पर्नेछ ।
- 10. गैरकानूनी फोटोग्राफी र यौन शोषण सामग्रीहरूको प्रसारण जस्ता कार्यहरूमा गम्भीर रूपमा सजाय दिइन्छ ।
- 11. शहरीक सम्पर्क नभएतापनि, 1) इन्टरनेट र सोशल मिडिया जस्ता माध्यमबाट प्रचारलाई प्रेरित गर्न सक्ने शब्द र फोटो/आइकनको प्रसारण, 2) सार्वजनिक ठाउँमा शरीरको भागको फोटो खिच्ने र वितरण गर्ने र 3) गैरकानूनी रूपमा फिल्म खिच्ने सामग्रीहरू राख्ने खरिद गर्ने, भण्डार गर्ने र हेर्ने जस्ता कार्यहरू ।
- 12. तलको अवस्थामा बनि लाइसेन्स तथा गाडी र मोटरसाइकल आदि चलाउँदा कडा सजाय हुनेछ ।

रक्त महिटा ध्यान	सजाय	प्रशासनिक झुकाव
0.03% - 0.08%	1 वर्षभन्दा कम कारागार वा 5 मिलियन वन मन्दा कम जरिवाना	अनुमतिपत्रको निलम्बन
0.08% - 0.2%	1-2 वर्षसम्म कैदवासी वा 5-10 मिलियन वन मन्दा जरिवाना	अनुमतिपत्रको खण्डन

0.2% भन्दा बढी	2-5 वर्षसम्म जेलसजाय वा 10-20 मिलियन वन मन्दा जरिवाना	अनुमतिपत्रको खण्डन
2 भन्दा धेरै बढी मुद्दालेको प्रमाण हुनु सक्ने चलाइको	2-5 वर्षसम्म जेलसजाय वा 10-20 मिलियन वन मन्दा जरिवाना	अनुमतिपत्रको खण्डन

- 1. सजायको प्रभावलाई सडक ट्रफिक ऐनको धारा 148-2
- 2. स्वामित्व कानूनी रूपमा स्थानान्तरण गरिएको अटोमोबाइल चलाएको अवस्थामा (व्यक्तिगत देखेको)
- 3. सजायको प्रभावलाई सडक ट्रफिक ऐनको धारा 81-7 को दफा 2 (1 वर्ष भन्दा कम कारावास वा 10 मिलियन वन मन्दा कम जरिवाना)
- 4. आधारभूत नियमहरू उल्लंघन गरेमा पेनाल्टी वा जरिवाना लाग्न सक्ने भएकोले तपाईंले सावधानी अपनाउनुपर्छ
- 5. विचारो नगरी जयभाबी चुरोट, गम, फोहर, आदि प्याकनु हुँदैन ।
- 6. सार्वजनिक ठाउँमा विचारो नगरी थुनुनु र धूमपान गर्न नहुने ठाउँमा धूमपान गर्नु हुँदैन ।
- 7. मोटरसाइकिलको चालक र सवारले हेल्मेट लगाउनुपर्छ र पैदल ओभरपास वा क्रसवाकको प्रयोग गरि सडक पार गर्नु हुँदैन ।

दैनिक जीवनमा अपराधलाई कसरी रोकथाम र सामना गर्ने ?

- 1. ठगी (अथैव बहु-स्तर विक्री संचालक, टेलिफोन आर्थिक ठगी, धडनि फिसिङ, इन्टरनेट धोखाधडी, आदि)
- 2. तलको अवस्थामा सामान्य खालका थोक तथा खुद्रा विक्री वितरणको प्रक्रिया पूरा नगरी, उपभोक्ता आफै विक्रेता भइ सामान विक्री गर्ने कम्पनीको संदस्य तथा विक्रेता बन्ने कामबाट अलग रहनु पर्दछ ।
- 3. टिपेकालिन रूपमा अघाधिक लाभ लिन सकिने भन्दा कुनै पनि व्यवसायको सदस्यता बना वा लगानी गर्नको लागि आइतबार नै, कुनै पनि सामानको खरिदमा एकाधिकार राख्ने, जबरजस्त खरिद गर्ने वा र्थिन लिने जस्ता कुुरामा प्रोत्साहित गरेमा ।
- 4. पाँट टाँस गर्न, फेल्ट कपडा तथा रोजगारी दिलाउने प्रलोभना पुरी सामान विक्रेता बनाइ वास्तविक रूपमा जबरजस्त सामान किन्न लगाएको अवस्था ।
- 5. सामानको गुणस्तर उच्च छ भन्दा झूटो विज्ञापन गरी अधिक महंगो मूल्यमा विक्री गर्नु ।

वैधानिक रूपमा दूता भएका व्यवसायहरूको जानकारीको लागि

- 1. फेयर ट्रेड कमिशन www.ftc.go.kr, 044-200-4010
- 2. म्युचुअल एड कोअपरेसन www.macco.or.kr, 02-566-1202
- 3. कोरिया स्थैल सेल्स कोअपरेसन www.kosssa.or.kr, 02-2058-0831

1. खाता निकास गर्न वा फोनमा सार्वजनिक संस्था वा वित्तीय संस्थाको नक्कल गर्ने र्थिन दिने वा खाता, केडिट कार्ड र निवासी दाना नम्बर, आदि जस्ता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माग गर्न अवस्थामा, त्यस्ता फोन कलको जवाफ नदिनुहोस् ।

2. फल समूहको अधीनस्थ संस्था भएका कल सेन्टर, आदिमा नाइसा निकाले र टेलिमाकेड जस्ता भूमिकाहरूको लागि फल उपभोक्ताको रूपमा गम्भीर रूपमा सजाय दिइन्छ ।

अवाक फिरीड मालिगानहरू

- 1. परिवारको सदस्य (बच्चा) ले फोन कलको जवाफ दिन नसके अवस्थामा प्रेरित गरेर बहानाको रूपमा अघरणा गरेर नाइ भुलाउनुको माग गर्ने ।
- 2. अभियोक्ता वा प्रहरी व्यक्ति भएको नाटक गरेर बहानाको रूपमा अपराधमा संलग्न भएर र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को खुलासा गरेर नाइ भुलाउनुको माग गर्ने ।
- 3. वित्तीय संस्था रहेको नाटक गरेर कमा तथा प्रभाव गराउने वातावरण तयारिई लोभ्याउने बहानाको रूपमा विज्ञापन क्रम र शुल्कहरू, आदिको छुटकाको लागि नाइ भुलाउनुको माग गर्ने ।
- 4. केडिट कार्ड वा डेबिटकार्डको नम्बरलाई खरोटे नाटक गरेर स्थगित भुलाउनुको बहाना गर्नु नाइ भुलाउनुको माग गर्ने ।

1. इन्टरनेटबाट व्यक्तिहरूको वीचमा कारोबार गर्ने अवस्थामा, तपाईंले कार्यकम गर्नुपूर्व सुरक्षित कारोबार साइट प्रयोग गर्नुपर्छ वा अन्य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मुक्ति गर्नुपर्छ (टेलिफोन नम्बर र खाता नम्बर, आदि) ।

2. तपाईं इन्टरनेट छलका शक्तिहरूको रिपोर्टको इतिहास खोज्न सक्नुहुन्छ र राष्ट्रिय नीति निकाय (www.police.go.kr) वा साइबर हल (mobile app) को वेबसाइटबाट शक्तिहरू रिपोर्ट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

1. घरेलु तथा डेटिङको बेवामा हुने हिंसा

- 1. यदि तपाईंमाथि घरेलु हिंसा वा डेटिङ हिंसा भएमा, अपठेो नमान्नुहोस्, बरु परेरी वा तपाईंको परिवार, आफन्त, छमेकी वा साथीहरूसँग सम्पर्क गरी सहयोग माग्नुहोस् ।
- 2. तस्विर, इन्टरनेट रिपोर्ट जस्ता हिंसाका प्रमाणहरू संकलन गरी महिला हक अभिकार सम्बन्धी संस्था, आश्रम जस्ता घरेलु हिंसा सम्बन्धि विन निकायमा पारामर्श लिनु पर्दछ । (महिला आपतकालिन सहायता नम्बर 1366 / दानुरी कलसेन्टर 1900-1366)

1. बच्चा हराउने र अपहरण गर्ने

- 1. परिधि तरिकाले व्यवहार गरे पनि अपरिचित मान्छेले भनेको कुरा पालन गर्नु हुँदैन र तिनीहरूले जबरजस्ती गरे भने सहयोगको लागि पिछ्याउनु पर्छ भन्ने कुरा आफ्नो बच्चालाई सिकाउनुहोस् ।
- 2. आफ्नो नाम, उमेर, ठेगाना, टेलिफोन नम्बर र आमाबाबुको नाम याद गर्नु पर्छ भन्ने कुरा आफ्नो बच्चालाई सिकाउनुहोस् ।
- 3. सार्वजनिक ठाउँमा विचारो नगरी थुनुनु र धूमपान गर्न नहुने ठाउँमा धूमपान गर्नु हुँदैन ।
- 4. यौन अपराध (जस्जस्ती करणी, यौन दुराचार र अश्लीलताको रूपमा कसैको शरीरको अंगको फोटो तथा भडिया यत्नमा बेवाचुकता आदि)
- 5. यौन हिंसा भएमा आफूले लगाएको कुरा नमान्ने नसक्ने अवस्थामा 112 मा उजुरी गर्नुहोस् ।
- 6. आफ्नो विषयको यौन हिंसाबाट प्रभावित व्यक्ति भएमा उक्तो कुरा सन्दिने र 1577-1366 मार्फत पारामर्श सेवा लिने सक्ने गरी सहयोग माग्नुहोस् ।

1. आधारभूत नियमहरू उल्लंघन गरेमा जरिवाना लाग्न सक्छ ।

- 1. विचारो नगरी जयभाबी चुरोट, गम, फोहर, आदि प्याकनु हुँदैन ।
- 2. सार्वजनिक ठाउँमा विचारो नगरी थुनुनु र धूमपान गर्न नहुने ठाउँमा धूमपान गर्नु हुँदैन ।
- 3. यौन अपराध (जस्जस्ती करणी, यौन दुराचार र अश्लीलताको रूपमा कसैको शरीरको अंगको फोटो तथा भडिया यत्नमा बेवाचुकता आदि)
- 4. यौन हिंसा भएमा आफूले लगाएको कुरा नमान्ने नसक्ने अवस्थामा 112 मा उजुरी गर्नुहोस् ।
- 5. आफ्नो विषयको यौन हिंसाबाट प्रभावित व्यक्ति भएमा उक्तो कुरा सन्दिने र 1577-1366 मार्फत पारामर्श सेवा लिने सक्ने गरी सहयोग माग्नुहोस् ।

1. जालसाजी

- 1. 'नि: शुल्क कुरम' भनेर लेखिएका फोन मेसेजको लिङ्क क्लिक गरेमा -- तपाईंको स्मार्ट फोन, घरेलु भाडो तथा मासिक बचत फिर्ता सक्ने -- फलस्वरूप तपाईंको व्यक्तिगत तथा वित्तीय विवरण आदि लिक भइ आफूले थाहा नगरेको नपठेो थोरै थोरै धेरै परिणाममा आर्थिक नोक्सानी बेहोर्नु पर्ने हुन सक्छ ।

1. आफूले धिनेका व्यक्तिहरूको मेसेज भएपनि फोनमा मेसेज मार्फत आफ्नो लिङ्क क्लिक गर्नुअघि एक फोन कल गरेर सोच्नु पर्दछ । यसरी कुनैपनि एलिकेसन पक्तीनी रूपमा इन्टरनेट नहुने गरी फोनको सुरक्षा सेटिङलाई मजबुत राख्नु पर्दछ ।

चोरी (घरबाट सामान चोर्नु, पकेटमात्तु, लुट्नु आदि)

- 1. निदाहरू लिने, आदि सहित लामो समयसम्म घरबाट बाहिर रहे अवस्थामा, निराश्रित भएर केहिभर गरिएका छैन र तपाईंको घरको अगाडि बाक बनाइएका छु भनी सुनिश्चित गर्न प्राथमिक उपायहरू अपनाउनुहोस् । गराहना र नाइ सहित मूल्यवान वस्तुहरू बेकको सुरक्षित डिपोजिट बाकसमा राख्न सुरक्षित हुन्छ ।
- 2. मानिसहरू धेरै जम्मा हुने स्थान, जस्तै बस टर्मिनल, बजार आदि भिड हुने ठाउँमा सामान राख्नुहोस् । पकेटमात्तु तपाईंको साथमा भएमा सामानहरू चोर्ने सक्ने भएकोले विशेष सावधानी हुनुहोस् ।
- 3. आफ्नो बैंक खाताबाट ठूलो रकमको नगद निकालिएको अवस्थामा प्रहरी अधिकृतमा सहायता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नुहोस् ।
- 4. Google Play Store वा Apple App Store बाट राष्ट्रिय नीति नियामकद्वारा उपलब्ध गराइएको पीडित सम्बन्धित जानकारी एप भएको PolCare एप डाउनलोड गरेपछि प्रयोग गर्न सकिन्छ ।

OX प्रश्नोत्तर

1. प्रलोभको रूपमा छोटो समयमा उच्च नाफामा सदस्य वा लगानीकर्ताहरूलाई नियुक्त गर्ने र ससपाधि पछि पछि पछि खरिद र क्रय लिन आदि कार्यलाई प्रेरित गर्ने व्यक्तिहरूलाई सजाय दिइनेछ । []
2. व्यक्तिगत नाफा खोज्नको लागि सार्वजनिक संस्था रहेको नाटक गरेर कुरा फिर्ता गर्ने वाचा गर्न कार्यहरूमा संलग्न भएका व्यक्तिहरूलाई सजाय दिइनेछैन । []
3. बच्चा बाहिर जाँदा, बच्चाहरूलाई सिक्ने, ब्रेसलेट र बाइरवाट सजिलै देखा सकिने सम्पर्क विवरणहरू भएको नाम ट्याग सहित बच्चा हराउन नदिने वस्तुहरू लगाइदिन आवश्यक हुन्छ । []
4. बाल दुर्घट्यारले शारीरिक रूपमा कष्ट दिने वा बच्चाहरूलाई ख्याक नगरिकन अनुपस्थित छोड्नेलाई जनाउँछ र बच्चाहरूलाई भावनात्मक रूपमा दुर्घट्यार वा बेवसास गरेका व्यक्तिहरूलाई सजाय दिइनेछैन । []
5. तपाईंलाई विद्यालय हिंसाको घात हुनुहुनेछ भने, आक्रमणकारीको व्यक्तिगत विवरण, तपाईंलाई अथैव व्यवहार कडा, कहिले र कसरी गरिएको थियो र व्यक्तिगत विवरण र सम्पर्क नम्बरको रेकर्ड राख्न सुझाव दिइन्छ । []
6. तपाईं गैर कानूनी विदेशी हुनुहुन्छ र छलका पीडित हुनुभएको छ र तपाईंलाई भएको क्षतिहरूको बारेमा प्रहरीमा रिपोर्ट गर्नुभएको छ भने, तपाईंको व्यक्तिगत जानकारी आग्रासन कार्यालय र सम्बन्धित सरकारी निकायमा सूचित गराउनुहोस् । []
7. परस्पर दुर्घट्यारको अवस्थामा वा मामिला दायर गरेपछि अनुसन्धानको क्रममा गैर कानूनी विदेशी परस्पर दुर्घट्यारको मामिलामा संलग्न भएको संकेत लागेमा, तपाईंको स्थिति बारे आग्रासन कार्यालय र सम्बन्धित सरकारी निकायलाई सूचित गराउनुहोस् । []
8. तपाईं अपराधबाट भएका क्षतिहरू विदेशीहरूको लागि सहायता केन्द्रमा रिपोर्ट गर्न वा तपाईंको दैनिक जीवनमा भएका असुविधाहरूको लागि पारामर्श अनुरोध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 []
9. आफ्नो हाण्डब्याग वा क्रस-ब्यागलाई खोसिबाट जोगाउनुको लागि तिनीहरूलाई भित्तातिर वा पैदलयात्री हिंडनेतिर नराख्नुहोस् । []
10. फोन गर्न गाह्रो भएमा, तपाईं 112 आपतकालीन रिपोर्ट एप वा टेक्स्ट संदेश 'बाट रिपोर्ट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 []

सही जवाफ : 1.O, 2.X, 3.X, 4.X, 5.O, 6.X, 7.O, 8.O, 9.X, 10.O

अपराध उजुरी गर्ने तरिका

- 1. यदि तपाईं कुनै अपराधबाट पीडित हुनु भएको छ भने अथवा अपराध देख्नुभएको छ भने तत्काल सहयोगको लागि 112 मा फोन गर्नुनुहोस् ।
- 2. रिपोर्ट कमाउँदा, तपाईंको हालको स्थान र अवस्था बारे सूचना दिनुहोस् र तपाईंले क्षति र अनुहारका देखावट, विशेषता, बोलिफारमा वस्तु, नम्बर, बन्दको लागि गएको दिशा र आक्रमणकारीले प्रयोग गरेको वाहनको माध्यम कतिले, कतौ र कतौ देखेनुभएको भनी शान्तपूर्वक प्रमाणित गर्नुहोस् ।
- 3. तपाईं भोगाउनु फोन (भिडियो कल पनि हुन सक्छ), साधारण फोन र सार्वजनिक फोनेले 112 रिपोर्ट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र सार्वजनिक फोनेले आपतकालीन कलको प्रयोग गर्न समयमा (तल्लो आपतकालीन कल बन्द 4 112 मा कल गर्नुहोस्), तपाईं कलको पैसा नतिरिक्न कल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 यो अपराधहरू बारे रिपोर्ट गर्न बोकेको अन्य आकस्मिक अवस्थामा पनि प्रयोग गर्न सकिन्छ ।
- 4. विदेशीको 112 रिपोर्ट गर्दा, रिपोर्ट 3 थप अनुवाद सेवाको तैयारी (प्रहरी-अनुवादक-रिपोर्ट) मा दायर गरिनेछ ।
- 5. फोन गर्न गाह्रो भएमा, तपाईं 112 आपतकालीन रिपोर्ट एप वा टेक्स्ट संदेश 'बाट रिपोर्ट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
- 6. 112 आपतकालीन उजुरी एलिकेसन गुगल प्लेस्टोर तथा एपल एलिकेसन स्टोरबाट डाउनलोड गरी प्रयोग गर्न सकिन्छ ।
- 7. परामर्शहरूको संकलन सरल बनाउनको लागि प्रहरी तपाइनुसुद्ध समग्र अपराधको दूरस्थलाई संरक्षण गरेर राख्नुपर्छ । अपराध दायरको छानबिनमा प्रहरीलाई सहयोग गर्नुहोस् ।

सहयोगको लागि सम्पर्क नम्बर

अपराधको उजुरी तथा आपतकालीन अवस्था	संख्या
अपराध रिपोर्ट (राष्ट्रिय प्रहरी एजेन्सी)	112
यदिआलय हसिा रिपोर्ट केन्द्र (राष्ट्रिय प्रहरी एजेन्सी)	117
आगलागी तथा आपतकालीन उदार सम्बन्धी उजुरी (अग्नाय विभाग)	119
ह्याकिंग, स्म, वैकल्पिक गोपनीयता उल्लंघन सम्बन्धी उजुरी (KISA)	118
महिला र बच्चाहरूको लागि सशान्त संकट सहायता केन्द्र (लैंगिक समानता र परबिा मन्त्रालय)	1899-3075
हराएका बालबालिकाको रिपोर्ट (राष्ट्रिय प्रहरी एजेन्सी)	182
महिलाहरूको लागि आपतकालीन पारामर्श (लैंगिक समानता र परबिा मन्त्रालय)	1366
दानुरी कल सेन्टर (लैंगिक समानता र परबिा मन्त्रालय)	1577-1366
यदिशैहरूको लागि सामान्य जानकारी केन्द्र (न्याय मन्त्रालय)	1345
सरकारी सेवा गाइड (आन्तरिक तथा सुसुझा मन्त्रालय)	110
विदेशी पर्यटक सूचना (कोरिया पर्यटन संस्था)	1330
मानव अधिकार उल्लंघन अघी, पारामर्श (कोरियाको राष्ट्रिय मानव अधिकार आयोग)	1331
कानूनी पारामर्श (कोरिया कानूनी सहायता नगिम)	132
बाल संरक्षणका लागि संस्था वरिष्ठ संस्थान (संस्थास्य तथा कल्याण मन्त्रालय)	129
युवाहरूको लागि सहायता पारामर्श (लैंगिक समानता र परबिा मन्त्रालय)	1388

कोरियन प्रहरीले सुरक्षित समाज निर्माण गर्न मद्दत गर्दछ ।

वैदेशिक आप्रवासी सहायता नीति

- 1. कोरियन प्रहरीले न्याय मन्त्रालयसँग अपराधबाट पीडितहरूको उदार तथा कोरियामा बसोबास गर्न विदेशीहरूको मानव अधिकारको लागि 'अवैधानिक आप्रवासी उजुरी छुट प्रणाली', संचालन गरेको छ ।
- 2. 'अवैधानिक आप्रवासी उजुरी छुट प्रणाली', भन्नाले अवैधानिक रूपमा कोरियामा बसोबास गर्ने विदेशीहरूको बारेमा प्रहरीमा उजुरी गरेमा उक्त विदेशी व्यक्तिको व्यक्तिगत विवरण अध्ययनमा विभागमा जानकारी नगर्ने प्रणाली हो ।
- 3. अपराधको प्रकर तलको अनुसार रहेको छ ।

- 1. (आपराधिक कानून) उजममा, कृपटीकरण, अपमानजनक हत्या, कुरतात्याना, पकने, धुने, धम्की दिने, कडा, ओसापरार, करणी, दुर्घट्यार, अधिकारको प्रयोग गर्न बन्धित, लुट्नेचोर्ने, ठगीधम्की दिएर पला असुने ।
- 2. (विशेष कानून) हिंसात्मक क्रियाकलाप तथा दण्ड सजाय सम्बन्धी कानून, यौन हिंसा अपराध दण्ड सजाय सम्बन्धी विशेष कानून, सवरी दुर्घटना व्यवस्थापन सम्बन्धी विशेष कानून, यौन व्यापार तथा व्यवसायी दण्ड सजाय सम्बन्धी कानून ।

1. अपराधबाट पीडित हुनुहुन्छ भने अलमलमा नपरी 112 मा उजुरी गरेर सहयोग लिनुहुन अनुरोध गरिन्छ ।

2. प्रहरी चौकी नगई अपराध (क्षती)को बारेमा उजुरी वा नागरिक अपिल गर्न मिल्ने गरी विदेशीहरू स्वतन्त्र रूपमा आवतजावत गर्न बहु सांस्कृतिक सहायता केन्द्र, गैर-सरकारी संस्थाहरू 'विदेशी नागरिक सहायता केन्द्र' को नाममा संचालिन छन् ।

3. सेवा लिने प्रक्रिया

1. कुनैपनि विदेशी नागरिक आपराधिक घटनाबाट पीडित भएमा
2. विदेशी नागरिक सहायता केन्द्रमा उजुरी गरेमा वा पारामर्श लिनेमा
3. विदेशी नागरिक सहायता केन्द्रबाट कोरियन प्रहरीको अन्तर्राष्ट्रिय विभागमा उक्त उजुरी पुग्नेछ ।
4. प्रहरी कार्यालय वा सम्बन्धित निकायबाट उक्त उजुरीको सुनुवाइको लागि थप प्रक्रिया अपनाइन्छ ।

4. कोरिया बसाइको क्रममा कुनैपनि अपराध तथा असुविधाहरू अनुभव गर्नु परेमा विदेशी नागरिक सहायता केन्द्रमा पारामर्शको लागि अनुरोध गर्न सकिन्छ । केन्द्रले कोरियन प्रहरीको अन्तर्राष्ट्रिय विभागलाई उक्त विषयको बारेमा जानकारी गराउनेछ भने, उजुरी तथा पारामर्शका विषयलाई कोरियन प्रहरीको सम्बन्धित निकायले व्यवस्थापन गर्नेछ वा थप प्रक्रियाको लागि सम्बन्धित सरकारी निकायसम्म पुर्‍याउनेछ ।

अपराध सम्बन्धी उजुरी तथा पारामर्शका विषयहरू

- 1. हिंसा, घरेलु हिंसा, स्कूल हिंसा, ठगी (अभियोग, उजुरी), आदि जस्ता आपराधिक कसैसँग सम्बन्धित रिपोर्टहरू रिभरवा प्रहरी विभागले प्रत्यक्ष व्यवस्थापन गर्नेछ ।
- 2. ज्याला भुलाउने, औद्योगिक प्रलोभ र कोरियामा रहे व्यक्ति हुने विलम्ब आदि सम्बन्धी समस्याहरू रोजगार तथा श्रम मन्त्रालय, शैक्षिक समानता र परिवार मन्त्रालय र न्याय मन्त्रालय, आदि जस्ता सम्बन्धित संस्थासँग सूचित गराइन्छ । यसका साथै, रिपोर्टलाई नागरिक उजुरीका सामग्रीहरू अनुरार सम्बन्धित दूतावास वा गणिज्यदूतावासमा मानिस्टिशन गरिनेछ ।

1. विदेशी नागरिक सहायता केन्द्रको प्रयोगको लागि आफ्नो नजिकैको प्रहरी कार्यालयको अन्तर्राष्ट्रिय विभागमा संपर्क गर्न सकिन्छ ।

अपराध (हानि-नोक्सानी) रोकथाम सम्बन्धी शिक्षा र इन्फोर्मिड लाइसेन्सको लिखित परीक्षाको कक्षा लिन सकिने व्यवस्था छ ।

- 1. अपराधहरूको विषय सम्बन्धी सामान्य बसोबास गर्न सक्षमता पुर्‍याउने
- 2. बर्तमानकालिक परिवार सहायता केन्द्र, कसमदको कार्य स्थल, गैर-सरकारी संस्था जस्ता विदेशीहरू जम्मा हुने स्थानमा प्रत्यक्ष उपस्थित भई, वैधानिक आप्रवासी महिला, विदेशी शिक्षार्थी विभाग जस्ता समूहलाई आवश्यकता अनुसार बारम्बार पढ्न सक्ने आराधिका घटनामा केस तथा सहायता लुगर्न विषयको बारेमा विस्तृत रूपमा जानकारी एवं परामर्श दिने 'अपराध नियन्त्रण घुम्ती कक्षा' संचालन भएको छ ।
- 3. इन्फोर्मिड लाइसेन्सको लिखित परीक्षाको कक्षाको लागि दक्ष प्रशिक्षक मार्फत 'विदेशी नागरिक इन्फोर्मिड कक्षा' नि:शुल्क रूपमा संचालित छन् । (पुस्तक 3 वटा भाषाहरूमा उपलब्ध छ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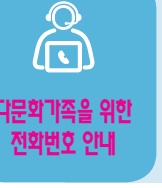
1. इन्फोर्मिड लाइसेन्स परीक्षा सम्बन्धी जानकारीको लागि

- 1. सडक यातायात पराधिकरणको इन्फोर्मिडको लाइसेन्स परीक्षा केन्द्र <https://www.safedriving.or.kr>, 1577-1120
- 2. इन्फोर्मिड कक्षासेन्सको 3 वटा भाषाहरूमा लिन सकिन्छ (अंग्रेजी, चिनियाँ र मियतमा) ।

1. अपराध रोकथाम कक्षा र इन्फोर्मिड लाइसेन्स कक्षाको बारेमा संपर्क गर्नको लागि आफ्नो नजिकैको प्रहरी चौकीमा रहेको विदेशी विभागमा जानुहोस् ।

अपराध (क्षती) रिपोर्ट गर्दा र नागरिक गुनासोको लागि कोरियन भाषा बोल्न नसकेको विदेशीहरूलाई सहयोग गर्न भाषा अनुवाद सेवा उपलब्ध छ ।

- 1. उपलब्ध भाषा अनुवाद सेवा
- 2. पर्यटक अनुवाद सेवा 1330
- 3. कोरियाली, अंग्रेजी, जापानी, चिनियाँ, आदि 8 भाषाहरू
- 4. कोरियाली, अंग्रेजी, जापानी, चिनियाँ (24घण्टा)
- 5. रियलमा, मियनमा, थाई, मेलिसियाली र इन्डोनेसियाली (08:00-19:00)
- 6. दानरी कल सेन्टर 1577-1366 (24घण्टा)
- 7. मियनमा, मेलिसियाली र इन्डोनेसियाली, आदि सहित 13 वटा भाषाहरू
- 8. विदेशीहरूको लागि आवश्यक जानकारी केन्द्र 1345, 1961-2025
- 9. थाई, इन्डोनेसियाली र बुर्मा, आदि सहित 20 वटा भाषाहरू
- 10. कोरियाली, अंग्रेजी, चिनियाँ (09:00-22:00)
- 11. मियनमा, मेलिसियाली सहित 17 वटा भाषाहरू (09:00-18:00)
- 12. BBK कोरिया 1588-8664 (24घण्टा)
- 13. रवी, बौद्ध, हिन्दी, मलयालम भाषा, आदि जस्त 20 भाषाहरू



Помощь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방문학습지'



Вы знали, что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 한글 국어 방문학습지 в течение 10 месяцев 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обычно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то есть сейчас?

◆Что это за программа?

Слышали ли вы про Гумон, Нунноп и, Синкбиг или встречали на улице или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красочные папки с яркими книжками и рекламками, зазывающие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развитие и уровень знаний? Это и есть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Панмун хаксыпчи.

В Корее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поэтому существует огромный выбор различных обучающих программ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младшей и средней школ.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это бюджетная(недорогая) обучающ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самообразования по определенному предмету(родной язык, письмо, чтение, математика и др),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рабочие тетради, говорящие ручки, планшеты и тп) и включающа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занятия с репетитором раз в неделю по 10-15минут. Ежедневно ребенок занимается по 10-30 мин по каждому предмету, и раз в неделю с репетитором закрепляют прочитанный материал, уточняют непонятные моменты и проходят новую тему. Благодаря "Домашнему обучению с репетитором" вырабатывается ежедневная привычка 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му обучению, которую очень важно прививать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родителей в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что зачастую многими

иностранцами родителями, к сожалению, игнорируется.

◆Кому нужна такая программа?

-детям дошкольного или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для начального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детям, отстающим или наоборот опережающим шко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етям-дошкольникам и школьникам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школе и школьным предметам;

-детя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испытывающим трудности из-за не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дним словом, все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желаний родителя можно выбрать программу: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уровню развития ребен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шко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и школьным предметам.

◆И во сколько обойдется такая радость родителям?

Цены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колеблются в пределах 29.000вон.~100.000вон и зависят от предметов и видов программ. Так, программа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по письму ил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30.000вон ~38,000 вон в месяц, включая оплату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услугу репетитора.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помощь и как ее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на "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школьников младшей школы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городски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управлениями и в виде 90% оплаты обучения. Обычно ежегодно в феврале в табунацентрах, которые с 2021 года стали называться Центрами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а также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 иде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на предстоящий учебный период: март-декабрь (10месяцев).

Так, Центр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подд

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г.Ыванг до 10 февраля 2021г. проводи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поддержку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 Всего набирается 13 детей, проживающие в г.Ыванг,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возрасте 4-10лет и иностранные школьники с 1-бкласс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Ниже прикрепл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подаче заявк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акже в г.Сувон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 до 16февраля 2021г. проводится набор 100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возрасте 4-10лет(2011~2017г.р) и детей из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посещающих корейские начальные школы, 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г.Сувон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омощи в "Обучении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

Поспешите уточн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помощи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방문학습지 한글?국어 в Центрах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в своих города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а такж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 своего района/ 행정복지센터. Думаю, в период коронавируса данная помощь нужна как никогда.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들은 학습지 지원 등 교육서비스를 10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청은 보통 2월 초에 받고 있습니다. 방문학습지에는 구문, 눈높이 등이 있습니다. 가끔 길거리나 쇼핑센터에서 알록달록한 홍보지를 배부하기도 하고 현수막으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발달과 지식을 테스트하게끔 초대하는 부스를 차리기도 하지요.

한국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들이 집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문학습지는 교과서, 워크 북, 스마트 펜, 태블릿 등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특정과목(국어, 쓰기, 읽기, 수학 등)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합니다. 주1회 10~15분 동안 개인 수업을 포함한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훈련은 자기주도학습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어린이는 각 과목당 10~30분 동안 스스로 공부한 뒤 주1회 학습 선생님과 함께 지난 수업을 복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며 또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방문학습 덕분에 매일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유아기부터 주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부모라면 누구나 이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공부를 돕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부모들이 모든 교육을 전적으로 학습지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방문학습지 프로그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방문학습지 프로그램은 선생님 보다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방문학습지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사교육 및 추가 교육을 원하는 미취학 학생 또는 초등생;

-학교 진도보다 뒤처지거나 반대로 앞서가는 학생;

-학교교육 및 학교 과목을 준비하는 미취학 학생 또는 초등생;

-한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자녀; 한마디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방문학습지 비용은 3만3천원~10만원으로 과목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쓰기, 읽기, 국어 프로그램은 교재와 학습 선생님 비용을 포함해 월 3만~3만8천원입니다.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방문학습지(한글 또는 국어)'는 시청 등에서 수업료의 90%를 지원합니다. 보통 매년 1월말~2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학습기간은 3~12월(10개월)입니다.

경기도의 여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방문학습지(한글 또는 국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4~10세,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1~6학년 재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다문화가족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화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 전 교육과정, 'H.E.Y 청년지원센터', '새일여성인턴' 등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 전 징검다리과정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은 2021년 2월 한 달 동안 입학 전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학 준비 교육프로그램 징검다리과정'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징검다리과정은 초·중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사전 준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을 통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과 학교적응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한다.

징검다리과정은 관내 3개교(발안초, 한울초, 남양중)에서 각각 운영하며, 학교별 6~10명 학생을 대상으로 약 20시간에 걸쳐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학습 내용은 학교급 전환기의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 학교생활 적응, 기초 한국어 이해, 자기주도성 신장, 자기 이해? 표현, 다양한 의사소통, 진로 효능감 증진 등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남현석 교육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적합한 학교 입학 전 준비교육 모델 확산과 다문화 학생의 효과적인 학교적응 지원을 통해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력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방학 중 징검다리과정을 운영하는 관내 학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청년 희망 공간 'H.E.Y 청년지원센터'

화성시는 병점동 일원에 청년 전용 공간 '청년지원센터

터 H.E.Y'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청년지원센터 H.E.Y'는 청년 일자리와 문화,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공간으로 병점우체국 건물 4층과 5층에 들어섰다.

약 120평 규모로 4층은 취·창업 지원공간 일자리 카페, 5층은 청년활동 지원공간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카페는 일자리 전용 상담실, 개인 및 그룹용 스튜디오, 코워킹이 가능한 공유데스크가 설치됐다. 직업상담사가 상시 배치돼 1대 1 진로상담과 원스톱 취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5층 공간은 세미나와 회의,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커먼스페이스와 공유주방, 세미나룸을 갖췄다. 취·창업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여가생활 등 다양한 청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간개방은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 개방할 계획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3월부터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비롯해 청년 진로탐색학교, 청년 도시 학교, 소셜다이닝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지원센터 H.E.Y'는 지난해 시가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6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센터 명칭은 'Hwaseung Energetic Youth'의 약자로 청년을 반갑게 맞이하겠다는 청년 친화적 센터의 정체성이 반영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빠른 자립을 돕는 동시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과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이란 장기간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경력단절 여성이 인턴 근무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후에 취업을 도와주며,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20년 1,156명에서 1452명으로 296명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장기고용 유지 강화를 위해 '새일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인턴 1명(전일제 및 시간인턴제 모두 적용)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총 240만 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인턴에게도 근속장려금으로 6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과 구직자들이 경영난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만큼,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모 기업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감원한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밖에도 도내 29개 새일센터에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순능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여성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참여 등 새일여성인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내 2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근로자 다양한 어려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쉽게 해결해요"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애로사항 상담 및 기관 연계 해결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담 접근성이 떨어져 권리구제 및 노동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인근지역 서포터즈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숙소의 낡은 도배·장판을 교체하거나 난방용품,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도 장화, 장갑, 모자 등 농작업용품과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모집 대상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수행능력,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단체에

게는 1,000~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채우는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돕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며 "사업의 목적에 공감하는 민간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식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